

20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학술대회

하위주체는 욕망하는가

- ◇ 일시 : 2020년 7월 3일(金) 13:00-18:00
- ◇ 장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 주최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학술대회 일정

사회 : 양승목(동국대)

일 시		발 표 및 내 용
개회	13:00~ 13:20	개회사 및 축사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장(정한국)
제1부 (13:00~ 14:35)	13:20~ 13:45	제1발표 : 애정전기소설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전유 양상과 의미 발표자 : 윤정안(서울시립대) 토론 임보연(경희대)
	13:45~ 14:10	제2발표 : 상위/하위 주체의 담론을 형성하는 선비의 욕망에 대한 고찰-홍만종의 『蓂葉志譜』를 중심으로- 발표자 : 강지연(충북대) 토론 성민경(이화여대)
	14:10~ 14:35	제3발표 : 야담에 나타난 정욕 담론과 성적 주체 인식 -<深深堂閑話>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승은(한림대) 토론 권기성(창원대)
	14:35~ 14:45	휴식
제2부 (14:45~ 16:00)	14:45~ 15:10	제4발표 : 19세기에 분출된 욕망의 수렴과 애욕의 세태서사 발표자 : 신상필(부산대) 토론 이주영(동국대)
	15:10~ 15:35	제5발표 : 의적 혹은 도적설화를 통해 본 하위주체의 욕망과 재현의 의미 발표자 : 서유석(경상대) 토론 김선현(숙명여대)
	15:35~ 16:00	제6발표 :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남성 하위주체의 존재와 욕망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발표자 : 탁원정(이화여대) 토론 공혜란(한국외대)
	16:00~ 16:15	휴식
제3부	16:15~ 18:00	종합토론 진행-김성철(목포해양대) 서혜은(경북대)

목 차

- ◎ 애정전기소설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전유 양상과 의미 1
윤정안(서울시립대학교)

- ◎ 상위/하위 주체의 담론을 형성하는 선비의 욕망에 대한 고찰-홍만종의 『莫葉志諧』를 중심으로- 8
강지연(충북대학교)

- ◎ 야담에 나타난 정욕 담론과 성적 주체 인식-<深深堂閑話>를 중심으로- 22
이승은(한림대학교)

- ◎ 19세기에 분출된 욕망의 수렴과 애욕의 세태서사 30
신상필(부산대학교)

- ◎ 의적 혹은 도적설화를 통해 본 하위주체의 욕망과 재현의 의미 48
서유석(경상대학교)

- ◎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남성 하위주체의 존재와 욕망-<완월희맹연>을 대상으로- 57
탁원정(이화여자대학교)

애정전기소설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전유 양상과 의미

윤정안(서울시립대학교)

1. 서론

조선 전기의 애정전기소설인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은 불우한 남성 주인공과 원혼이 된 여귀와의 만남이라는 서사의 열개를 공유한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같은 작자의 작품이며, 한 세기 후의 작품인 <하생기우전>은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화소가 대폭 수용되어 있으며, 특히 <이생규장전>의 전후반부가 역전되어 나타나는 등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작품이다.

이 작품들에서 남성 주인공인 양생, 이생, 하생은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불우인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배필을 맞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만복사에 더부살이 하는 처지이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생기우전>의 하생 역시 배필을 맞이하고자 하는 욕망과 더불어 출세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출중한 실력을 지녔지만, 혼탁한 세상에서 가문의 배경이 없는 그는 좌절하고 만다. <이생규장전>의 이생은 양생과 이생처럼 배필을 맞이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생 역시 양생이나 하생처럼 자신에게 닥친 일 앞에서 늘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소극적인 남성 주인공이 아닌 여성 주인공의 몫이다. 세 작품의 여성들은 소극적인 남성 주인공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사건을 전개시켜 나간다. 양생과 하생 앞에 나타난 여성 주인공은 그들의 배필이 되겠다고 한다. 최랑은 담장 너머의 이생을 담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혼인의 성사에서 이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최랑은 목숨을 걸고 부모에게 혼사를 요구한다. 세 작품의 차이는 곧 이들의 욕망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세 작품의 남성 주인공은 작자의 분신으로 이해되곤 한다. 현실에서 소외된 김시습과 신광한의 처지는 양생과 이생, 하생의 모습과 겹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남성 주인공의 운명을 추적하면서 작자의 현실 인식을 분석하곤 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남성 주인공의 형상은 유사하고, 외려 서사의 차이는 여성 주인공들에 의해 구현된다. 그런 점에서 세 작품의 탐색은 오히려 여성 주인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엄태식은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작자는 대개 현실에서 소외된 사대부들이며, 작품 속의 남주인공은 작자의 처지나 세계관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서도 “남주인공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오직 여주인공과의 결연”¹⁾에 있으므로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은 남성 주인공이 아닌 여성 주인공의 탐색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력한 남성 주인공이 작자 자신을 의미한다면, 적극적인 여성 주인공은 작자의 욕망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주인공의 욕망은 일차적으로 남성 주인공의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연을 맺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작자의 욕망은 남성

1)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과 결말 구조」,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296쪽.

주인공보다는 여성 주인공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남성 주인공이 작자의 현실을 유비한다면, 여성 주인공은 작자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혼전 성관계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소극적인 남성 주인공들은 낯선 여성의 제안에 머뭇거린다. 이때 이 여인들은 인연은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서 남성에게 관계를 종용한다. 이로써 이들은 예교에 어긋난 존재들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방탕하거나 음란하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회에서 음란한 여성이 악으로 규정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묘사이다. 세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오히려 정절을 들먹인다. 부모의 허락이 없는 혼전의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정절을 들먹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의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정절이 훼손된 여성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정절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순된 논리의 구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2. 성에 대한 모순된 태도

이 장에서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만복사저포기>의 경우이다.

아무 고을 아무 마을에 사는 소녀 아무는 삼가 부처님께 사뵈니다.

지난번 국경의 방비가 허물어져 왜구가 침입해 왔을 때, 어디를 가나 싸움은 눈앞에서 치열하였고 위급함을 알리는 봉화가 여러 해 계속되었습니다. 왜적이 집을 불살라 버리고 백성을 노략질하니,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 숨고 이리저리 도망하였으며 친척과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버들잎처럼 연약한 몸이라서 멀리 갈 수가 없어 깊이 규방에 들어가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부정한 행실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딸 자식이 정절을 그르치지 않았다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한적한 곳으로 피신케 하고 초야에 임시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벌써 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둥근 달이 뜨고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상심한 닳에 제대로 감상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며, 하늘에 등실 떠 있는 구름이나 들판에 흐르는 강물과 더불어 무료하게 세월을 보낼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람 없는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면서, 운명의 야박함을 한탄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밤을 혼자 보내면서, 아름다운 난새가 짝을 잃고 외로이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이 신세를 슬퍼하였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이제 혼백마저 쇠하고 상해 갑니다. 그래서 여름의 더딘 석양과 겨울의 기나긴 밤에는 더욱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합니다. 부디 각항께서는 연민하는 뜻을 삼가 드리워 주십시오.

생애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고, 업은 결코 피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제가 타고난 운명에 인연이 있다면 얼른 배필을 만나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비읍니다.²⁾

위의 인용문은 <만복사저포기>의 여주인공이 부처님께 올린 발원이다. 여인은 왜적의 침입에서 스스로 정절을 지켰으며, 그것을 부모님이 칭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발원의 후반부에

2) 김시습 저, 심경호 옮김, <만복사저포기>, 『금오신화』, 흥익출판사, 2000, 61~62쪽(이하 <만복사저포기>으로만 표기).

가서는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 이는 모순된 진술이다. 위의 발언에서 여인은 정절을 지킨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정해진 혼처가 나타날 때까지 혼인은 기다려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인은 부처님께 배필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정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사정이 있다. 여인은 왜적에게 정절을 지키다가 죽어 이승을 떠나지 못한 원귀이다. 저승으로 마땅히 가야 하지만 쌓인 원한이 있으므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여 그 원한을 풀고자 양생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저의 행동이 계율을 어겼다는 것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 『시경』이나 『서경』 같은 경전을 읽어서 예의가 무언지는 조금 압니다. 그러니 『시경』 <건상>에서처럼 정절을 지키지 않고 여인이 남자에게 정담을 속삭이는 것이 껌연쩍은 일이고, 『시경』 <상서>에서 말하였듯이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란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썩덤불 속에 거처하여 들판에 버려져 있다 보니, 애욕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견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번 절에서 복을 빌고 법당에서 향불을 피고는 일생의 운수가 박하다고 스스로 탄식하였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삼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몽치머리에 가시나무로 비녀를 삼은 가난한 차림이라도 좋으니 아낙으로서 낭군에게 인생 백 년 동안 높은 절개를 바치고, 술 빛고 옷을 기우는 부지런한 살림살이를 하여 한평생 지어미로서의 길을 닦으려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도리가 없어, 저승길은 가야만 해요. 즐거움이 미처 극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슬픈 이별의 시간이 갑작스레 닥쳐왔군요. 이제 저의 발걸음이 병풍 안으로 들어 가면, 신녀 아향이 우레의 수레를 돌릴 것이고, 그러면 구름과 비는 양대에서 개고 까치와 까마귀는 은하수에서 흩어질 거예요. 이제 한번 이별하면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렵겠지요. 작별에 임하고 보니 정말 서글프고 정신이 아득하여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³⁾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시경』이나 『서경』과 같은 책을 읽었으므로 여성이 지켜야 하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왜적을 만났을 때 그러한 도리를 지켰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 즉 처녀로 죽은 한으로 인해 아낙으로서의 삶을 잠시나마 살아 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생과의 관계가 불가피했음을 강변한다. 아낙으로서의 삶 역시 여성이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⁴⁾

그런데 조선시대의 혼인은 부모의 중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만복사저포기>의 여인과 같이 사사로이 남성을 만나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여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여인은 정절을 훼손한 셈이 된다. 즉, 혼인이라는 여성으로서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여인은 유교의 예법을 훼손하고 있다. 그것은 유교적인 여성상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절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하생기우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사실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첩은 바로 시중 아무개의 딸이운데, 죽어서 이곳에 묻힌

3) <만복사저포기>, 77~78쪽.

4) 윤정안, 「고전소설의 여성 冤鬼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45~46쪽 참조. 원귀는 죽어서 정절을 지키는 것과 살아서 아낙이 되는 여성의 삶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인데, <만복사저포기>의 여인은 혼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삶을 살아볼 수가 없었으며, 이것이 한이 되어 이승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래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사소한 원한까지도 복수를 하여 사람을 매우 많이 해쳤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셨는데, 다섯 오빠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요절하였고 제가 홀로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제 상제께서 저를 부르시어 명하시기를, '네 애비가 큰 옥사를 심리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을 온전히 살려주어 지난날 다른 사람을 중상하여 해쳤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 아들은 죽은 지 오래되어 어찌할 수가 없고,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 보내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을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낭군을 만나게 된 것 역시 운명인가 봅니다. 영원히 좋은 사이가 되어 평생 낭군을 모시며 뒷바라지를 하고자 하는데,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⁵⁾

하생이 복사의 말에 따라 행동하다가 만난 여인은 사실은 저승에 막 당도하려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은 여인은 하생에게 접근하여 혼전 전에 사사로이 하생과 성관계를 갖는다. 여인은 하생을 유인하여 깊은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하생에게 자신의 소생을 부탁하고 있다. 그것을 '운명'이라 칭하며 하생이 그렇게 바라는 혼인을 조건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다.

<하생기우전>의 여인 역시 <만복사저포기>의 여인처럼 부모의 허락도 없이 사사로이 남자를 만나 혼전에 성관계를 갖는다. 이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여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하생기우전>의 여인은 아버지가 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유교적 덕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교적 덕목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식이 죽는다는 점에서 여인 역시 유교적 덕목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묻기를,

“네가 죽은 뒤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더냐?”하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하고, 부끄러워하였다.

부모가 굳이 물으니, 여인이 비로소 말을 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았다. 온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라워하였다.⁶⁾

부모가 여인에게 물은 이상한 일이란, 하생과의 혼전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하생으로부터 저간의 사정을 들은 부모는 그것을 여인에게 확인하려 한다. 이에 여인은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냐며,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잡아뭄다. 그러나 부끄러워했다는 표현은 여인 역시 하생과의 성관계가 있었으며, 그것이 예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생기우전>의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유교 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동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만복사저포기>에서와 같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절을 훼손해야만 했다.

한편 <이생규장전>의 경우에는 앞선 두 작품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 <만복사저포기>와 <하생기우전>에서 여인들은 모두 원귀인 상태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 죽어서 저승으로 가

5) 신광한 저, 박헌순 옮김, <하생기우전>, 『기재기이』, 범우, 2008, 137~138쪽(이하 <하생기우전>으로 표기).

6) <하생기우전>, 143쪽.

지 못했다는 점, 즉 원귀인 상태라는 것은 이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논리적이든 아니든 그녀들에게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변명이 있다. 하지만 <이생규장전>의 경우에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혼전 성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미 송도에서 이름난 두 남녀는 서로 짝이 될 만하다고 소문이 난 상태이다. 담장 안에 갇혀 사는 최랑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생은 시험 삼아 유혹의 내용이 담긴 시를 담장 안으로 던졌고, 이를 본 최랑은 이생의 마음과 재주를 확인하고는 이생을 담장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생에게 말한다.

저는 애당초 그대의 아내가 되어 평생토록 키와 빗자루를 손에 드는 집안 허드렛일을 맡아 하면서 끝까지 함께 환락을 맺으려 하였어요. 그렇거늘 이렇게 갑작스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마음이 태연하여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대장부의 의기를 지니고서도 이런 약한 말씀을 하시다니요. 이 다음에 규방의 이 일이 누설되어 아버님께서 저를 책망하신다면, 제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⁷⁾

최랑은 혼사를 전제로 이생이 담을 넘도록 했다고 말한다. 일시적인 환락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 이생은 최랑에게 선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계를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한다. 또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생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최랑의 말은 실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혼인은 중매로 결정되는 것이지, 두 남녀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임 역시 최랑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최랑의 각오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노출된다면 정절이 훼손된 최랑의 처지는 명약관화하다. 사대부가의 여성이 사사로이 남자를 담장 안으로 끌어들여 혼전에 성관계를 맺었으니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랑의 말은 현실이 되고 만다. 울주로 쫓겨난 이생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상사병에 걸린 최랑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리고 딸의 상황을 알게 된 최랑의 부모 앞에서 최랑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혼인을 요구한다.

아버님, 어머니! 저를 길러주신 은혜가 깊어 감히 숨기질 못하겠나이다.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대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기 전에 결혼의 좋은 시기를 잃지 말라는 말이 『시경』의 「주남」에 노래되었고, 장판지에 먼저 느껴 경거망동 한다면 흥하다는 말이 『주역』에 경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버들 같은 가냘픈 몸으로, 상낙을 노래한 시에서 뿡나무 잎 시들기 전에 시집갔어야 했는데 뒤늦게 시집가서 버림받았던 일은 경계로 삼지 않고서, 길의 이슬에 옷을 적셔서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삼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 듯이 벌써 창아 같은 짓을 하였으니, 죄가 이미 가득 넘쳐나고 수치가 가문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장난꾸러기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 향을 훔친 뒤에는, 여경이 교생에 대하여 지냈던 것과 같은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저의 여리디 여린 연약한 몸으로 썩디 서러운 고독을 견디려 하다보니, 정념은 나날이 깊어 가고 고질로 된 병은 나날이 더해 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장차 궁귀로 화해 버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만일 저의 바람을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함께 저 아래 황천에서 다시 노닐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에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⁸⁾

7) 김시습 저, 심경호 옮김, <이생규장전>, 『금오신화』, 흥익출판사, 2000, 101~102쪽(이하 <이생규장전>으로만 표기).

<이생규장전>의 최량은 앞선 두 작품의 여인들처럼 불가피함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다. 다만, 여인으로서 시들기 전에 빨리 혼인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뿐이다. 물론 이것은 이생과의 관계를 변명하기 위한 적당한 핑계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량은 목숨을 내세워 이생과의 혼인을 요구한다. 이생과 혼인을 하게 해준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는 무남독녀 외동딸의 겁박에 가까운 호소에 최량의 부모는 최량의 요구를 수락하고 만다.

최량은 유교적 예법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였으며, 그것이 비난받아 마땅하며, 심지어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뻔뻔하게 이생과의 혼인을 요구하였으니, 최량에게 정절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흥건적의 난을 만나 죽어서 원귀 된 최량은 “절의는 귀중하며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가 치욕을 면한 것만 다행이라고 여기지요.”⁹⁾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임이 정절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절의는 귀중한 것이고 삶은 가벼우니 치욕을 면하기 위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최량의 말은 앞서 부모에게 이생과의 혼인을 요구하던 것과는 모순된다. 즉, <이생규장전>의 최량 역시 앞선 두 작품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모순된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

3. 불안전하게 전유된 정절의 의미

글의 서두에서 남성 주인공이 작자의 분신이라면, 여성 주인공은 작자의 욕망인 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성 주인공이 무기력한 것은 현실의 작자를 반영한 것이라면,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의 좌절된 욕망을 채워준 것은 작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망인 썸이다. 그것은 욕망인 동시에 환상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 주인공들이 원귀로 등장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여성 주인공의 논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유교의 정절 논리를 위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함을 내세우면서 유교의 윤리를 전유하여, 즉 정절의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부모의 허락도 없이 혼전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정절의 윤리를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논의는 모순되어 있다. 또한 이들 역시 스스로가 예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한다.

이처럼 유교 윤리를 전유하는 여성의 모습은 장편가문소설이나 <숙영낭자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과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유교 윤리를 활용한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여 궤절하고 그 남성을 남편으로 취하는 경우”¹⁰⁾가 이에 해당한다. 즉, 마음에 드는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음모나 계략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편 <숙영낭자전>의 경우에는 “정절을 자신을 속박하는 장치가 아니라 닦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專有”¹¹⁾한다. 즉, 숙영낭자는 유교 가치 가운데 정절을

8) <이생규장전>, 111쪽.

9) <이생규장전>, 116쪽.

10) 고은임, 「국문장편소설 여성인물의 정절 이념 전용(轉用) 양상 -유씨삼대록, 명주기봉, 부장양문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88쪽.

11) 윤정안, 「멜로드라마로 본 <숙영낭자전>」, 『국제어문』 80, 국제어문학회, 2019, 178쪽.

최상위에 올려 두고 정절을 잘 지킨다면 다른 가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숙영낭자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불가피함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만복사저포기>나 <하생기우전>의 여성 주인공과 유사하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선군을 유혹한다고 설명하지만, 숙영낭자 역시 예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선군을 유혹하여 그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이후 정절을 강조하며 가장 순결한 여성으로 표상되며, 심지어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정절을 의심할 시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¹²⁾

그러나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의 전유 양상은 장편가문소설이나 <숙영낭자전>과는 차이가 있다. 세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자신들이 유교 윤리를 활용하여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것이다.

세 작품의 여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유교적인 것이며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며, 유교적인 예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만복사저포기>는 혼인한 여성의 삶이 정절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에 이르게 되며, <이생규장전>의 경우에는 사랑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된다. <하생기우전> 역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정절은 훼손되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세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것을 모두 정절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으니, <숙영낭자전>의 경우처럼 나름의 논리로 수렴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전유되면서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고 만다.

이는 애초에 여성 주인공들이 추구하였던 욕망이 현실에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환상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 주인공의 무기력함은 결국 현실에서 추구될 수 없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인데, 환상적인 존재인 여성 주인공의 등장으로 인해 그것은 잠시나마 실현되었던 것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은 필연적이다. 종국에는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욕망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생기우전>의 경우에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기에 이러한 파탄을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작자 신광한의 낙관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것일 뿐, <하생기우전>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하생이 출중한 실력을 지녔음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던 것은 세상이 혼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의 부조리함이다. 이는 작자 신광한의 현실 인식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하생은 혼인 이후 장원 급제를 한다. 그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이 해소되어 하생이 자신이 실력을 펼쳤기 때문이 아니다. 시중인 장인이 덕에 한미한 가문 때문에 낙방했던 상황이 역전되었을 뿐이다.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하지만, 여인과의 혼인으로 인해 현실의 장벽이 더 이상 하생에게 미치지 않을 뿐이다. 하생이 맞선 현실의 부조리함은 혼인의 약속을 했음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일 뿐, 자신을 불우하게 만들었던 현실을 극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하생기우전>의 현실 인식은 불철저하다고 말할 수 있다.¹³⁾

4. 결론

12) 위의 글, 173~177쪽 참조. 이러한 모습을 '정절 지상주의'라고 표현하였다. 정절을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이는 숙영낭자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이유이며, 시부모의 봉양을 거부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13) 엄기영은 <하생기우전>의 행복한 결말을 아니한 현실 인식의 결과가 아니라 천도가 실현될 것임을 기다리는 유자로서의 믿음과 願望이라고 해석한다(엄기영, 『16세기 한문소설 연구』, 월인, 2009, 179쪽).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하생기우전>이 제기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위/하위 주체의 담론을 형성하는 선비의 욕망에 대한 고찰

-홍만종의 『蕙葉志諧』를 중심으로-

강지연(충북대학교)

1. 머리말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는 인격 수양과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는 모범적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현실에서는 이들을 선비(士)라고 부른다. 이들은 지배층, 권력자, 지식인으로 불리며¹⁾ 이상적인 인간 군상으로 이해된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씩씩한 기상, 굳은 절개의 정신력은 물론 학문적 능력을 겸비한 선비는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책임지는 지주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듯 올곧음의 표상이 되는 선비들은 백성들을 교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선비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문 소화집에서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글은 한문 소화집에서 상위 주체가 되어야 할 선비가 하위의 영역, 또는 하위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하위 영역의 시각에서 상위 주체의 지배 담론이 형성되는 배경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 중기 홍만종(1643~1725)이 편찬한 한문 소화집 『蕙葉志諧』(이하 『명엽』으로 약칭)을 대상으로 선비의 욕망과 욕망의 구현 방식을 살펴려 한다. 홍만종은 촌로들에게서 들은 우스운 이야기를 모아 『명엽』을 편찬했는데, 동양문고본에 실린 76화 중에서 선비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²⁾ 이들의 이야기는 선비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탐욕을 추구하고 여색에 빠져 어이없는 거짓에 속는 등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선비의 욕망은 하층민의 욕망과는 응답 다를 것 같지만, 이야기 세계에서 구현하는 선비의 모습은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한 욕망을 추구한다. 이들은 선비의 체통을 망각하고 지식인의 지위를 실추시키며 갈등의 기폭제로서 욕망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소화집의 주 독자층이 사대부 양반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야기의 교훈을 담당하는 논평부의 내용에서 유교로 무장한 조선의 지식인이 바라보는 선비에 대한 행동 규범 및 선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욕망의 생성과 작동의 메커니즘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빛는 모방 욕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욕망의 속성이 모방성에 있다’는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 이론과 프랑스의 심리학자 장 미셸 우구를리앙의 미분화개체 간 심리학³⁾의 관점에서 출발한

1) “선비의 삶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정치 행위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었다. 유교 이념이 곧 정치 이념이고, 모든 정치 행위가 유교 이념의 가치 기준에 의해 검증되어야 권위를 부여받던 조선에서 정치와 유교는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런 유교를 공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수신과 치국(治國)의 꿈을 키운 선비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역사를 보아도, 중국의 사대부와는 달리 조선의 사대부는 학자이자 동시에 권력자였던 것이다.” 계승범,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 역사의 아침, 2011, 51면.
2) 『명엽』의 총 화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양문고본』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76화 중 선비가 중심인 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모두 17화이다. 정용수, 『고금소총·명엽지해』, 국학자료원, 1998, 17~18면.
3) 장 미셸 우구를리앙, 김진식 역, 『욕망의 탄생: 모방이론을 통해 보는 사랑의 심리학』, 문학과 지성사, 2007.65~84면.

다. 그는 ‘욕망이 자아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실상 자아를 창조한다’고 설명한다. 이야기 세계에서 선비의 어리석은 행실과 풍자성 짙은 결말은 유교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선비의 정체성과 다름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선비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욕망이 실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선비들이 조롱과 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 즉 하위 주체로 강등하는 과정의 일면을 조명해 볼 수 있겠다.

문헌 소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소화의 명칭과 장르, 서사 방식 및 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⁴⁾ 『명엽』에 대해 전반적인 특징과 작품 분석을 시도한 황인덕의 연구는 초기의 소화 집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명엽』에 대한 특징적인 면모를 제시하였다.⁵⁾ 황인덕은 흥만종이 생존했던 17~18세기의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소화의 전승 배경부터 설화 문학과의 상관성을 지적하였다. 『명엽』이 ‘소화의 현지 口傳性에 대한 관심 및 소화에 대한 이해가 이전의 소화 집들에 비해 한층 진전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후 소화의 개별 작품집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체로 풍자와 골계에 주목하여 소화 장르의 이야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주력했다. 15세기 문헌 소화를 연구한 강성숙은 웃음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일반 백성이나 하급 관리를 문제 삼고, 하위 주체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계층 의식을 논하기도 하였다.⁶⁾ 정원이는 『명엽』의 골계적 성격에 담긴 작가의 비판적 현실인식을 논의하며 ‘명분론의 병폐를 지적하고 실리를 강조’하며 ‘유교의 근본 이념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역설했다.⁷⁾ 또한 웃음의 유발이 이야기와 논평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류정월의 논의는 이야기 소통의 과정에서 웃음이 유발하게 되는 가상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유희적 공간’이라 하고 이곳에서 바로 이야기의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다.⁸⁾

이상의 논의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서사 장치와 웃음이 함의하는 바를 검토함으로써 서술자의 태도 및 편찬자의 의식 지향을 살펴보는 것이다.⁹⁾ 이때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는 하위 주체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여, 이들이 풍자와 해학, 그리고 교훈적 의미를 담당한다고 보았다. 『명엽』에서도 권력을 갖지 못한 다양한 하위 주체들이 오락적 흥미를 담당하고 있다. 가령, 기생, 노비, 며느리, 스님, 관인, 광대 등 다양한 인물들의 군상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황 판단에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일삼는다는 점에서 ‘無知’의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야기 끝에 달린 서술자의 논평에서는 하위 주체의 어리석은 행실을 글로 적어 경계(警戒)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¹⁰⁾ 그리고 서술자는 어리석은 선비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어리석은 선비 역시 하위의 영역에서 비판과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주체의 영역에서 밀려나 주변부에 머물면서 정작 자신은 상위 주체라 여기

4) 황인덕, 「*萇葉志諧*」研究 : 文獻笑話의 溯源的 考察을 檢하여,.

5) 황인덕, 「*萇葉志諧*」研究 : 文獻笑話의 溯源的 考察을 檢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6) 강성숙, 「15세기 문헌 소화 연구: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용재총화(慵齋叢話)』의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집, 2003.

7) 정원이, 「<*萇葉志諧*>의 골계적 성격과 의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109~126면.

8) 류정월, 「문헌 소화의 구성과 의미 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명엽지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류정월, 「『*萇葉志諧*』 論評에 대한 고찰: 笑話에서 시대 읽기」, 「웃음 유발자로서의 기생의 역할과 그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집, 2005.

9) 남은경, 「<*萇葉志諧*>소재 諷刺的 笑話를 통해본 洪萬宗의 현실인식 양상」, 『이화어문논집』, 13집, 1994.331~354면.

10) 류정월은 『명엽지해』가 오락성과 교훈성의 문제를 살피기에 적합한 텍스트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논평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다. 류정월, 『명엽지해 평가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180~203면.

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하위의 경계를 중재하는 인물이다. 하위 주체가 ‘권력을 갖지 못한’ 하층민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명엽』에 등장하는 선비는 권력을 갖지 못하면서 선비의 지위를 행사하고자 즉, 권력 지향적 가치를 욕망하는 하위 주체의 면모를 보여준다. 안으로는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밖으로는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자의식과 타인의 시선은 언제나 충돌한다. 2장에서는 모방 욕망의 관점에서 욕망의 양상을 살피고 이로부터 상/하를 구분 짓는 지배 담론의 형성 배경을 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명엽』에 수록된 선비 관련 일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순번	제목	중심사건
1	士負前約 15화	선비가 권문세도가에게 뇌물을 바치다.
2	拒責致嘲 19화	시골 선비가 서울 선비를 나무라다.
3	命奴推齒 35화	최생이 기생에게 이빨을 뽑아준다.
4	握帽疑夢 36화	기생에게 속아 음납과 모자를 바꾸어 쓰고 꿈이라 착각하다.
5	子慶馬嘶 37화	아비를 속이고 형제가 기생을 만나다.
6	掛瀑認布 39화	어떤 사람이 그림을 모르며 아는 척을 하다.
7	請吏寫祝 42화	글 모르는 서생이 아전에게 제문을 써달라 한다.
8	添字誤下 43화	스승이 아이 재주를 자랑하고자 시를 짓게 하다.
9	墮水赴衙 44화	신씨가 추포 황신과 친분을 자랑하다.
10	詩人字癖 46화	시인 윤결이 병이나서 시에 병자를 쓰다.
11	蒙學強教 50화	어리석은 선비가 스승 노릇하다.
12	換題參科 51화	유생 윤민이 제목을 바꿔쓰고 과거에 합격하다.
13	士奴癡癖 63화	선비의 괴벽을 듣고 선비의 종이 고민스러워하다.
14	橋榜不出 64화	선비가 다리 아래 과거 시험지를 버리다.
15	廁間謔語 66화	나그네가 주인집 작도를 훔치다가 걸리다.
16	輪行時令 67화	선비가 여인을 마음에 두다.
17	告主納幣 75화	선비가 나무 신주를 전대에 놓고 축문을 읽다.
18	右丈都都 76화	선비가 고문진보를 우장직보라고 읽다.

2. 욕망의 모델과 모방의 양상

전술했다시피, 『명엽』에 등장하는 선비들은 온전히 하층민의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류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적 인물이다. 그 경계를 횡단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선비의 존재론적 위상을 대변해 준다. 선비를 지칭하는 한자어 ‘士’에 대해서 반고(班固)는 ‘학문을 익혀서 位(벼슬)에 있는 자(學以居位曰士)’라 하였다.¹²⁾ 조선 중기의 문신 신흙(申欽)은

11) 황인덕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명엽』의 이본은 모두 6종이다. ① 東京大 東洋文庫本 (『古今笑叢』附錄:筆寫本) ② 孫晉泰校正本 (日文 活版本) ③ 서울대 奎藏閣 가람 文庫本 (筆寫本) ④ 成均館大本(筆寫本) ⑤ 民俗學資料刊行會本 (油印本) ⑥ 趙靈巖譯本 (國譯 活版本) 황인덕, 「『葉志譜』研究: 文獻笑話의 溯源的 考察을 檢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8면. 황인덕은 ‘동양문고본’이 원본에 가장 충실하게 필사했다고 보아 가장 선본(先本)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고금소총>의 부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동양문고본’을 중심으로 번역한 정용수, 『고금소총·명엽지해』, (국학자료원, 1998)의 자료를 따른다.

12) 班固, <漢書> 卷 24上 食貨志 第 4上

“몸에 기량을 간직하고 나라에서 기용하기를 기다리는 자’를 선비(士)로 보았다¹³⁾는 점에서 벼슬을 얻지 못해도 과거 응시를 준비하는 자 역시 선비가 될 수 있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비가 학문하는 이유는 출세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고, 이후 관직에 나가 입신양명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야기 세계에서 선비들은 학문과 벼슬을 구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대상을 향해 욕망하고 있다. 더욱이 아직 벼슬을 얻지 못한 선비들이 그들의 아둔하고 무지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 지식인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어 입신양명과는 무관한 삶을 보여준다.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라는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모방 욕망 이론은 욕망의 근간이 모방성에 있다고 설명한다.¹⁴⁾ 지라르에게 욕망은 매개자(모델, 또는 중재자)를 통해 암시되는데, 이것이 주체와 욕망 그리고 매개자로 구성되는 욕망의 삼각형(désir triangulaire) 모델이다. 이때 주체와 매개자의 거리에 따라 욕망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먼저 주체와 매개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를 내적 중재라 하며, 주체와 매개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주체가 대상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의 과열이 일어나면서 폭력이 수반되기도 한다. 반면 주체와 매개자의 거리가 멀수록 이를 외적 중재라 하는데,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주체는 매개자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도 없고,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체의 욕망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매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모방적 욕망은 『명엽』에서 선비의 욕망이 작동하는 욕망의 매커니즘을 살피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모방 욕망의 양상을 ‘사회적 모방’과 ‘존재의 모방’ ‘이념적 모방’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¹⁵⁾

2.1 사회적 모방

사회적 모방은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신분이나 지위, 또는 사회적 제도를 매개자로 삼아 이를 모방하는 것이다. 사회적 모방을 하는 선비 이야기는 벼슬을 구하거나 명예를 얻는 과정에서 빛나는 갈등을 다룬다. 말하자면 선비는 사회적 모방을 통해서 더 높은 사회적 신분과 권력을 욕망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꿈꾸는 입신양명의 목표는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선비들의 욕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방 욕망이라 하겠다.

<사부전약(士負前約)>(15화)에서는 갑과 을이라는 무명의 선비가 등장한다. 이들은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마땅히 학업에 힘써 세도가의 무리와 영합하지 말 것을 약속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이 먼저 권문세도가에게 뇌물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을을 만난다. 두 선비가 나눈 약속의 내용에서 선비 욕망의 실체가 확인된다.

‘우리들은 마땅히 학업을 힘써 갈고닦는 노력으로 입신양명의 기반을 닦을 뿐이지, 지조를 버리면서까

13) 藏器於身 待用於國者士也, 신흠, 상춘집, 권40

14) 르제 지라르, 김치수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그레이트북스, 2001.41면.

15) 장 미셸 우구를리앙은 지라르의 모방이론을 심리학과 정신과학에 적용한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이다. 그는 주체가 모델을 모방하는 네 가지 양상을 분류하였는데, 이것이 외관의 모방, 소유의 모방, 존재의 모방, 동일화 모방이다. 본고에서는 우구를리앙의 모방 욕망 이론을 원용하되, 욕망을 구현하는 서사의 특징에 따라 모방의 양상을 새롭게 유형화하였다. 장 미셸 우구를리앙, 김진식 역(2007), 같은 책, 63면.

지 권문세도가의 문객질은 하지 말자'

그리하여 두 선비는 자주 과거에 응시해 보았지만 합격은 하지 못하고 세월만 자꾸 흘러 가고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이름 한자도 얻지 못하고 있으니 **밖에서 큰 소리나 치며 지내려면, 권문세도 가에게 가만히 부탁하여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 낫겠다.**'¹⁶⁾

위의 인용문에서 두 선비가 나누는 약속의 내용은 곧은 정신을 잃지 말고 강직한 태도로 입신양명을 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력(學業勤勉)이라는 정당한 대가가 따를 것을 전제로 한다. 지조를 버리고 권문세도에게 실리를 취하는 다른 무리들을 의식하여 자기들은 그런 세력과 다름을 보여준다. 이후로 선비가 학업에 힘써 노력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 자주 응시하고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과 권문세도가의 집에 뇌물을 갖고 기다리는 자가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에서 정당한 노력으로는 과거에 합격하기 어려운 선비의 사정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곧 현실 사회의 부당한 사회 모순을 고발하기도 한다. 여기서 선비가 욕망하는 입신양명에의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선비의 실력이 부족해서 인지는 알 수 없다. 대신에 아첨하는 다른 선비들과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선비의 욕망이 실현 가능한 사회로 문제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권세가와 영합하여 아첨하는 자들이 상위 주체로 존재하여, 하위 주체의 욕망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그리하여 선비는 정당한 노력으로 입신양명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아첨하는 선비 집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욕망의 대상이 변형된다. 이제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나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밖에서 큰 소리나 치며 지내는 것'을 바라던 선비의 말에서 이전에는 경계하고 기피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권문세도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세도가는 선비의 욕망을 부추기는 욕망의 모델이다. 아첨하는 부류들을 선비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세도가가 될 수 있는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현실의 결핍을 채우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선비의 체면과 지조를 버릴지언정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은 선비로서 응당 하지 말아야 할 금기를 자연스럽게 어길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기에 선비는 지키기 어려운 금기를 서로에게 약속하여 자신을 단속하고자 한 것이다. 권문세가와 영합하지 말자는 다짐은 아첨을 해서라도 벼슬을 얻고자 하는 더 큰 욕망의 불씨로 작용한다.

<타수부아(墮水赴衙)>(44화)는 벼슬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낭패를 보게 된 선비 이야기이다. 주인공 신씨 성을 가진 자의 무지몽매함을 드러내는 두 가지 일화가 전해진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신씨에게 묘패두(貓牌頭)라 하는 거짓 벼슬을 임명한다. 묘패두는 응패두(鷹牌頭)와 같은 품계라고 하니, 신씨가 맡게 될 지위가 호조판서 다음 벼슬이라는 설명이다. 응패는 매 사냥을 허가받은 자들이 갖는 신패(信牌)인데, 부마, 왕자, 공신, 무관 대신으로 제한된 상위 주체들만 이 패를 가질 수 있었다. 응패두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묘패두는 고양이를 사냥할 수 있는 신패를 가진 자들의 우두머리쯤 되겠다. 신씨가 어떤 사람의 속임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의 욕망에서 찾을 수 있다.

신이 음사(蔭仕)로 벼슬을 하고 싶어서 이만저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소 안면있던 어떤

16) 『명엽』, 15화; 吾輩當以學業效勉, 益加切磋之功, 以爲立揚之地, 慎勿移易此操, 而染迹權門 遂相約誓, 兩儒屢舉不第, 歲月荏苒, 甲者忽然自思曰, 年齡日頽, 未得一名, 不如外爲大言, 暗托權門而, 收其實利之爲愈也.

사람이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당신 재주로 보면 벼슬길에 벌써 올랐어야 할터인데, 아직까지 관명 하나 얻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되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애써보리다. 다만 번쩍거리는 벼슬이 아니라도 괜찮겠소? …(중략)… 그 날이 되었다. 신이 의관을 바로 하고 일찍부터 제사터에 나갔다. 서생이 고양이를 데리고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하루 종일 눈만 시릴뿐 아무도 오는 자가 없었다. 신이 화가 나서 욕을 해대며 말했다. “과거시험 부정죄에 붙이고야 말 계다.”¹⁷⁾

벼슬자리를 욕망하는 것은 선비에게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욕망을 욕망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벼슬이라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벼슬을 구하는 과정에 있다. 신씨가 음사(蔭仕)로 벼슬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과거를 보지 않고 조상의 공덕에 의해 일종의 특권을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논평부의 말을 빌리자면 신씨는 한마디로 ‘재주는 없으면서 벼슬 욕심만 있는 자(又有無才而欲仕者)’라 하겠다. 입신할 수 있는 출세의 등용문인 과거를 보지 않고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을 속인자에게 ‘과거시험 부정죄(當付過科罪)’로 고발하겠다는 말에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선비의 욕망을 보여준다.

신씨에게 벼슬자리는 욕망의 허상에 불과하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구하는 개인의 욕망이야 차치하더라도 과거와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신씨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잘못된 사회에 편승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신씨의 태도에서 그가 사회적 모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신씨는 사적인 인맥을 활용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만이 최대의 관심사일 뿐, 관직명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모순이 만연한 현실 사회는 주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눈과 귀를 막는 가림막으로 존재한다. 선비들은 부패한 사회와 제도를 모델로 삼아 그것이 비리와 부정의 행위를 추동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므로, 주체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릇된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모방이 주체에게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환제참과(換題參科)>(51화)는 과거시험에서 무능한 시험관 때문에 선비가 욕망의 대상(과거 합격)을 성취한 사례를 보여준다. 시험관들이 사사로이 과거시험의 제목을 바꾸는 행위는 부정한 과거제의 실태와 부패한 관리들의 온상을 보여준다. 주인공 윤민은 과거시험을 보는 도중 제목이 바뀐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터라 내용은 고치지 않고 제목만 바꾸어 냈다. 글 내용과 제목이 맞지 않으므로 낙제 받을 것이 뻔하지만 결과는 합격이었다.

“당신은 내용하고 제목이 다르다고 근심할거 없소. 모름지기 합격만 기다려 보시오.”

“무슨 말이오?”

“시관이 셋이잖소. 한 사람은 사사로이 봐준 일로 여러 선비들에게 내침을 당하여 의기소침하여 풀이 죽어 있고, 또 한 사람은 겨우 실학으로 요행히 등과는 했으나 나이가 이미 노쇠했고, 또 한 사람은 본시부터 글자를 알지 못하여 비록 답이란 글자만 죄다 써놓아도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줄 사람인데, 하물며 용을 썼는지 까마귀를 썼는지 그가 어찌 분간하겠소. 당신이 제목을 바꿔 썼다 해서 신경 쓸 것 없소. 괜찮소”¹⁸⁾

17) 『명엽』, 44화: 幸欲得蔭仕, 不勝熱中, 有相識之人, 謂之曰: “君之才局, 可以筮仕, 而尙不得一官命, 良可惜也. 吾欲爲君圖之. 但官號, 不煥, 君不爲嫌否?” (중략) 當日, 辛正冠帶, 早往于祭壇, 苦待書員, 領猫而來, 終日眼寒, 竟無來者故, 辛憤罵而歸曰: “當付過科罪.”

18) 『명엽』, 51화: 子無患文與題之各異.” 須要待榜, 敏曰: “何謂也?” 曰: “試官, 三也而一則用私, 見眩於多士, 奪氣縮頭, 一則僅以實學, 俛俸登科, 年紀, 已耗, 一則素不解文字, 雖畫雞, 尙可參, 況龍與鳥, 渠安得分耶? 子之換書其題, 得矣得矣.” 及其榜出, 尹敏果參

위의 인용문에서 윤민이 과거 합격이라는 욕망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한다. 그것은 공정하게 감독하지 않고, 노쇠했으며 그리고 글을 알지 못하는 시관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험관이 무능한 탓에 윤민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었다. 윤민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부패한 과거제 풍조와 시류에 따라 글 내용을 바꾸어 쓰지 않았으니, 그 역시 사회적 모방을 통해 욕망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2.2 존재의 모방

타인의 존재를 모방함으로써 주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체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욕망한다. 이러한 존재의 모방은 선비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지식(또는 지적 우월감)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모델의 존재를 나의 존재로 삼으려는, 르네 지라르가 ‘형이상학적 욕망’이라 부른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다. 형이상학적 욕망은 모델이자 장애물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욕망이다. 병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욕망은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략)… 존재에 대한 두 번째 형태는 모델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평화롭고 건설적인 모방으로 동일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장 미셸 우구를리앙은 주체가 모델의 존재를 모방할 때, 폭력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평화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¹⁹⁾ 이렇듯 존재의 모방은 두 가지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명엽』에서 살펴본 존재의 모방은 대체로 후자의 방식으로 그려진다.

한편 성리학 이념에 대한 앎, 즉 지적능력은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선비의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명엽』에서 웃음의 대상이 되는 선비들은 한결같이 무지하고 어리석다. 기생도 알고 있는 신라의 역사를 명경과에 합격한 벼슬아치가 알지 못하는가 하면<수기부시(羞妓賦詩)>(49화), 우리나라의 절기와 명절도 분간하지 못하고 세배를 언제 하는지를 모르는 아전과 원님도 있다.<한식세배(寒食歲拜)>.(23화) 또한 <고문진보>를 <우장직보>라고 읽고, <논어>의 ‘육육호문재’라는 글귀를 ‘도도장평아’라 읽는 일자무식한 선비도 있다. <우장도도(右丈都都)>(76화) 이렇게 선비들이 무식하여 발생하는 사건과 갈등의 이야기에서 욕망의 대상은 ‘지식’에 있다. 선비가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서 ‘앎’의 자질을 강조하여 아는 것을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선비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첨자오하(添字誤下)>(43화)는 생도들을 가르치는 늙은 서생이 자신의 가르침을 과시하려다 도리어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이다. 선비는 한 아이의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리 아이에게 부탁하여 시 구절을 지을 수 있도록 일러둔다. 하지만 스승의 말을 오해하여 아이는 엉터리로 칠언시를 지었다. 남들에게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자 했다면 직접 시 구절을 지어 선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선비는 자신의 지식보다는 ‘가르치는 아이’의 재주를 뽐내고²⁰⁾ 싶다고 말

19) 존재의 모방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지라르의 삼각형 모방이론에서 주체와 매개자의 거리가 가까운 내적 중재에 해당한다. 반면 평화적인 형태라고 하는 동일화의 원리는 주체가 모델의 존재를 모방하면서 그 모델이 자기 정체성 확립에 기여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장 미셸 우구를리앙(2007), 같은 책, 64면.

20) 『명엽』 43화: 一鄉村, 老書生, 教授生徒. 隣兒有授業者, 文才不敏, 其師每獲其短, 適致兒父之初度, 親知咸集. 其師欲誇張兒才, 豫囑曰: “今日賓客盛會, 必命汝試製矣. 然爾難應卒矣, 依家樞上白馬, 以此寫進可也.” 卽口呼五言絕句曰: “汝可隨意添補, 以成七言.” 兒唯唯而對後, 皆以家君二字, 添之, 遂

한다. 아이의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대상에서 바로 그가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의 실체를 찾을 수 있다. 선비는 아이를 내세워서 퇴계 이황처럼 걸출한 학자를 양성하는 스승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스승다움의 모습은 그가 모방하려는 욕망의 모델이 된다.

비슷한 이야기로 <몽학강교(蒙學強教)>(50화)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선비는 경전의 구절을 잘 못 풀이하면서 생도들을 가르친다. ‘자왈’의 <왈>자를 <일>로 착각하고, ‘중유’와 ‘급유’의 <유>자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침에는 게으르지 않았다(誨人不倦)’고 전한다. 스승이라면 마땅히 지식을 구하거나 학문에 힘쓰는 것을 욕망해야 하지만, 이들은 타인에게 보이는 스승의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다. 참된 스승이 되기를 욕망하기보다 스승의 지위나 스승의 역할을 모방하는 자세라 하겠다.

존재의 모방은 선비의 지적 수준을 과시하거나 유식함의 자질을 직접 제시하는 것 외에도 명성있는 선비와 친분을 과시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하고자 욕망하는 이야기도 있다. <타수부아(墮水赴衙)>(44화)에서 추포 황신을 만난 선비 신씨의 이야기가 그러하다. 신씨는 일면 식도 없는 추포 황신을 앞에 두고 황신과 자기가 매우 두터운 사이라며 그와의 친분을 자랑한다. 황신은 자신이 황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신씨에게 그와 어찌 아는 사이냐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 친구하고는 어릴 때부터 함께 배웠으니, 친한 걸로 말한다면야 두말할 필요나 있겠소. 사숙은 시에만 능한게 아니라, 사륙문에도 능하지요, 일찍이 ‘위야사명화유거표’라는 글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 글귀에 “푸른 대 푸른 소나무는 산길 주위에서 똑같도다”라고 했지요. 한참동안 대구를 찾지 못해 고심하길래, “푸른 산 푸른 물은 초가집 아래위에서 한결같도다”라며 “대가 정확하지 않소?” 했더니, 사숙이 기뻐하며 그 구절을 그대로 써더군요. 드디어 온 세상에 회자되고 있으나, 실은 내가 지은 것이라오.²¹⁾

황신은 조선 중기의 이름난 문신으로 호조판서를 지낸 사대부이다. 신씨는 자신의 신분과 학식을 내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황신과의 관계를 활용한다. 먼저 자신과 황신이 죽마고우처럼 지낸 사이라는 점, 그리고 황신에게 시를 가르쳐 주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글 짓는 실력이 황신보다 더 우월함을 강조한다. 신씨는 황신의 글재주를 욕망의 모델로 삼고 상상 속에서 황신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황신이 생각하지 못한 대구를 자신이 일러 주었다는 거짓 진술은 자신을 경쟁의 승리자로 이끈다.

신씨의 욕망이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주체는 경쟁자와의 차이로부터 결핍과 결핍의 충족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신씨는 자신과 황신과의 차이, 가령 신분의 차이나 글재주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고, 그 차이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확인한다. 신씨가 황신에게 시를 가르쳐주었다는 거짓 진술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모방의 심리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신씨가 이름난 선비와 교우하여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자 했다면, 반대로 함부로 남을 헐뜯어 타인의 명성을 실추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있다. <망비취신(妄非取哂)>(47

成七言曰：“家君白馬，白於雪，家君四足，如踏鍊。家君臀上，着一鞭，家君萬里風颳疾。”一座，見之大駭，其師，顏色如土。野史氏曰：“此兒，空手中而一徒老師之教，欲掩其短，及其倉卒添字，手脚，敗露，良可笑也。人之盜名欺世者，莫非此兒之類，是以，君子貴乎積中而發外也。”

21) 『명엽』 44화: 曰: “吾與此友, 自少同榻, 其親莫言, 思叔非獨能詩, 又善於四六, 曾製魏野謝命畫幽居表, 得句曰: ‘翠竹蒼松, 逕東西之彷彿.’ 良久沉吟, 未得未偶, 余即應之曰: ‘青山綠水, 屋上下之依稀. 非的對也.’ 思叔喜而用之, 此句, 遂膾炙一世, 而實賴吾而成也.”

화)²²⁾에서 선비는 임제의 글을 논평하여 그와 비슷한 지위나 재주를 가진 자로 보이게 하려 한다. 선비가 말하길 ‘백호 임제의 글이 문리(文理)가 잘 이어지지 않아 칭찬할 것이 못 된다.’ (林悌之文, 文理不續故, 不足稱也)고 평가한다. 논평부의 서술자는 이러한 자들을 ‘왕개미가 큰 나무를 흔드는 격(眞可謂蚍蜉, 撼大樹也)’이라는 말로 비난했다. 선비는 임제의 글재주를 토대로 스스로 임제와 동급의 신분과 학식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작 자신의 글은 살펴 보지 않고 ‘남의 글을 논하기 좋아한다’(嘗有一書生 善妄論古人所作)는 선비의 평소 태도는 다른 선비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을 이기고 헐뜯으려는 모방 욕망을 보여준다. 이때 경쟁 상대가 되는 선비는 주체에게 선망이자 멸시의 대상으로, 중개자인 동시에 욕망의 대상이 된다. 황신과 친분을 보여주려는 자나, 임제를 비난하는 자 모두 모방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중국에는 자신에게 더 높은 가치를 투사한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의 부류라 하겠다.

이처럼 모델의 존재에 대한 모방은 선비의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지식’에 중점 하여 유식함 또는 유능함의 자질을 모방하고자 한다. 사회적 모방이 모델의 외적 자질(벼슬과 권세)을 모방한다면, 존재의 모방은 모델의 내적 자질(학식과 재주)을 모방하는 것이라 하겠다.

2.3 이념적 모방

사대부 남성을 대상으로 향유되었던 문헌 소화에서 여성 인물은 주로 욕망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류정월은 소화에서 여성 인물이 ‘남성 응시의 대상으로서 분만 아니라 남성 웃음의 대상’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²³⁾ 대체로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이야기의 결말은 남성 주체의 성적 욕망이 공개되어 당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로부터 양반은 여색을 멀리해야 하며, 여성의 비도덕적인 행실을 경계할 것을 교훈 삼는다. 그런데 여인과 사랑에 빠진 남성 주체의 욕망은 과연 성적 욕망만이 다였을까? 사대부 남성이 기생과 사랑에 빠질 때 그가 욕망하는 대상은 여성의 성(性)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으로 여성의 수절을 요구하는 정절 이념에 있다고 보았다.

<명노추치(命奴推齒)>(35화)²⁴⁾에서 최생은 기생과 정을 나누고 이별할 때 자신의 이빨까지 뽑아 주는 진정한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느 날 기생과 이별 후에 최생이 그리움에 사무쳐 울고 있는데, 옆에서 눈물을 닦는 두 명의 다른 남성을 만난다. 두 남성 모두 여인과 이별하고 우는 것이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다른 남성과 이별한 여인은 최생이 좋아하던 그 기생과 같은 인물이었다. 최생은 이빨을 뽑아 준 사실을 후회하고 종을 시켜 이빨을 찾아오도록 한다. 종이 가서 이빨을 찾으려고 보니 이빨이 포대 안에 가득하여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22) 『명엽』 47화: 白湖·林悌, 文才捷絶, 鰲城·李相公, 深服之, 嘗有一書生, 喜妄論古人之所作, 一日, 詣鰲城曰: “林悌之文, 文理不續故, 不足稱也.” 時, 林悌纔死矣, 鰲城笑其妄疵, 仰屋徐應曰: “死林悌則未知何如, 生林悌則固難矣.” 聞者捧腹. 野史氏曰: “文章自有定價, 必能知以後, 知之, 不造其境而能知者, 未之有也. 若白湖者, 可謂才冠一世, 而此書生, 妄可訛毀, 眞可謂蚍蜉, 撼大樹也. 豈不妄也, 己短而責人長者爲戒也.”

23) 특별히 기생은 대표적인 ‘여성 웃음 유발자’로 기생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양반들을 웃음의 대상으로 만든다. 류정월, 「웃음 유발자로서 기생의 역할과 그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209면.

24) “발치설화(拔齒說話)”라고 알려진 이야기로 유사한 문헌 소화로는 『태평한화골계전』44화, 『파수록』 <切齒情表> 등이 있다. 양반들은 기생에게 미혹되어 이빨을 빼주었다가 기생이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했음을 알고 종을 통해 이빨을 찾으려 한다. 종은 결국 기생에게 자신의 상전이 속았음을 알게 되고 웃는다. …중략… 기생은, 신체란 부모에게서 받은 대로 지켜야 한다는 양반들의 가치에 균열을 일으키는 인물로 나타난다.” 류정월, 「웃음 유발자로서 기생의 역할과 그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5면.

최생은 자신과 동시에 다른 남성을 상대한 기생에게 크게 실망한다. 포대 안에 가득한 이빨은 최생을 비롯하여 기생에게 흘린 다른 남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빨이 담긴 포대 자루가 너댓 말은 되어 보였다’(齒滿篋中，可三四斗許)²⁵⁾는 말에서 비판의 대상은 최생이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남성 집단을 겨냥한다. 그렇다면 최생이 여인에게 품은 성적 욕망은 보편적인 남성의 욕망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최생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기생과 자신의 변함없는 관계를 욕망한다. 말하자면 자신만이 기생과의 관계를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타인과 그 관계를 공유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로부터 다른 남성은 최생에게 경쟁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최생이 울고 있는 다른 남성의 사연을 듣고 경쟁자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자신이 욕망하는 독점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최생은 경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좌절감에 깊은 탄식을 하며 기생에게 마음 쓴 것을 후회한다.(痛哉痛哉 賤物不足關念)

최생과 반대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확신했을 때 기뻐하는 선비도 있다. <악모의몽(握帽疑夢)>(36화)에서 선비는 기생이 자신에게 절의를 지켰다는 거짓에 속아 기뻐한다. 어느 날 선비가 사는 고을에 사신이 오자 자신과 정을 나눈 기생이 사신을 상대할 것이란 생각에 울면서 말한다.

“오늘 밤에는 내가 필시 면치 못하리니 어떡해야 좋겠느냐?” “나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곧바로 음납(음납은 월경을 닮는 배자이다)을 차고 가거늘, 선비는 매우 기뻐하면서 뒤따라 가 보았다. 기생이 객사에 다다르자, 납을 풀어 담장 밑 기왓장에 감춰두더니 상방(객아에는 동서 상방이 있다)으로 깡충거리며 뛰어들어갔다.²⁶⁾

기생은 음납을 차고 사신과 성관계를 피하려는 계책을 세우지만, 정작 사신의 방에 들어갈 때는 음납을 버리고 들어간다. 선비는 음납을 풀어 사신을 맞이하는 기생을 보고 화가 났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선비는 자기보다 더 힘 있는 경쟁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와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날 기생은 선비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자신의 음납과 바꿔놓고 선비에게 임기응변으로 꾸며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겼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지? 꿈이었던가?’ 그러더니 기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뻐하면서 말했다. “네가 진실로 나를 저버리지 않았구나!”²⁷⁾

기생이 다른 남성을 상대하는 것을 두고 선비는 자신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한다. 선비는 다른 남성 인물을 모두 경쟁의 상대로 여기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때면 욕망의 대상, 즉 여성 인물을 마음에서 지워 버린다. 선비의 욕망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인물에 있기보다 상대 여성의 굳은 마음, 즉 변하지 않는 절개를 욕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욕구(besion)와 욕망(desir)의 개념을 구분하자면, 선비가 여인을 상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욕구는 수많은 다른 대상으로도 채워질 수 있고 그 대상이 바뀌어도 괜찮지만 욕망의 대상은 교체가 불가능하다.²⁸⁾ 앞서 최생과 선비는 여성(기생)에게 마음

25) 『명엽』 35화: 遂出擲一布帑於庭曰: “爾主之齒, 吾何能辨知乎, 汝可擇去.” 蒼頭就而視之, 則齒滿篋中, 可三四斗許.

26) 『명엽』 36화: “今夜, 爾必不免矣, 奈何.” 妓曰: “吾有善策, 勿憂, 即繫陰衲(陰衲, 即溷襠也)而去, 生喜疑, 尾而覘之, 則妓及至官舍, 解其陰衲, 舉墻瓦藏之後, 因躍入上房, (客舍, 有東西上房) 生大怒, 即取衲而歸

27) 生心怪之曰: “何爲其然? 莫是夢也.” 因撫妓背而喜曰: “汝信不負我也.”

을 내주었다고 하지만 다른 경쟁자의 존재를 확인할 때면 쉽게 그 대상을 버릴 수 있었다. 이는 애정의 대상이 선비에게 욕구의 대상이었음을 말해 준다. <운행시령(輪行時令)>(67화)에 나오는 선비는 여인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지닌 인물로 선비의 애정 욕구가 특별한 욕망이 아님을 보여준다.

어떤 선비가 시골 농부의 집에 투숙한 적이 있었다. 이웃집 여자가 마침 볼 일을 보러 주인집에 왔다가 두어 마디 말을 나누더니 되돌아갔다.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종을 돌아보고 말했다. “저 예쁜 여자가 내 마음을 가만 두지를 앓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만 두세요. 소인놈이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주인님께서 가만있지 못하시는 이유는 틀림없이 철 따라 있는 일일거예요.”²⁹⁾

선비는 처음 보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종에게 하소연한다. 이 말을 들은 종은 선비의 그런 마음이 ‘철 따라 있는 일’(定是輪行時令也)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대할 때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不平)은 신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남성의 보편적인 성적 욕구임을 말해 준다.

하지만 욕망의 대상으로써 여인의 정절 이념을 욕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선비의 마음은 설령 상대 여인이 바뀌더라도 ‘열(烈)’에 대한 이념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 여인은 성적 욕망이라는 허울에 불과할 뿐 그 알맹이는 여성이 수절하기를 바라는 욕망, 즉 정절의 이념을 지향한다. 열(烈)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념’³⁰⁾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력을 대변한다. 선비는 정절 이념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여성의 절의(節義)를 다짐받아 가부장적 절대 권력자가 되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3. 상/하 영역의 담론 형성 논리

역사학자 고병익은 “유교적인 의리와 원칙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라야 선비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선비는 사회 계층이나 직업 분류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철학이요, 생활신조라 할 수 있다³¹⁾”고 하여 선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벼슬을 얻지 못한 자도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자라면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유교와 분리하여 선비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선비라는 말에는 특정 계층과 직업을 가리키는 의미 외에도 ‘생활철학’과 ‘생활신조’를 뜻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선비 이야기는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다.³²⁾

『명엽』에 등장하는 선비는 조선 사회가 추구한 선비 덕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다. 그릇된 방식으로 벼슬자리를 구하거나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밝히며 헛되이 지식을 과시하는 등 그야말로 유교적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방탕한 행위를 일삼는 자로 하위 주체의 이미지

28) 욕구는 일단 만족되면 진정이 되고 그 만족감은 기쁨이 된다. 욕망은 그러나 만족도 모르고 평온도 모른다. 그것은 결코 쉬는 법 없이 타인의 욕망에 자극받아 끊임없이 탐색을 계속한다. 욕망은 끊임 없이 마력을 행사하는 모방을 벗어날 수가 없다. 장 미셸 우구를리앙(2018), 같은 책, 56면.

29) 『명엽』 67화 : 一士, 投宿村舍, 有隣家女, 暫來主家, 數語而返, 容色, 顏妍, 士不覺神傾意注, 顧謂其奴曰: “彼姝者子, 令我心不平, 何也?” 奴曰: “無傷也, 小的見其人, 心中亦不平, 主之所以不平, 定是輪行時令也.”

30) 고은임, 「국문장편소설 여성인물의 정절 이념 轉用 양상 - <유씨삼대록>, <명주기봉>, <부장양문록>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한국고소설학회, 2015, 177면.

31) 고병익, 『선비와 지식인』, 문음사, 1987, 58면.

32) 이를테면, 선비 이야기에서 ‘특정 인물군’에 대한 해석 외에도 현실 세계에 대한 생활 인식, 태도, 세계관, 인생관 등 다양한 읽기의 시도가 가능하다.

로 형성되었다. 이로부터 선비의 정체성을 의심받아 현실 세계의 선비들에게서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 세계의 선비들은 유교적 가치를 거스르는 하위 주체의 욕망을 모방해야한다. 선비 이야기를 현실 세계의 진짜 선비가 읽는다면, 상위와 하위의 균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앞서 살펴보았던 모방 욕망의 양상으로부터 선비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지점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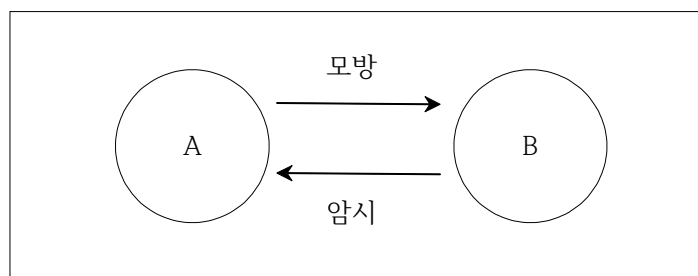
세 가지 양상의 모방 욕망은 모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수렴된다. 먼저 사회적 모방을 추구하는 선비들은 벼슬(관직)이라는 욕망을 얻기 위해 아첨과 비리와 같은 반 유교적인 가치를 모델로 삼아 욕망하는 인물이다. 선비가 모방하는 사회적 가치는 그들의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 선비는 타인에게 존중받는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모방을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존재의 모방 욕망에서 선비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지식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높은 지적 수준을 자랑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름난 선비의 글재주를 평가하거나 인맥을 자랑하여 지식을 모방함으로써 모델의 존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는 타인을 자신의 경쟁자로 의식하고 주체의 내부에서 내적 갈등을 빚으며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출된다. 존재의 모방 욕망은 경쟁자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 자기도 그와 같이 존경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 허세로 지식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는 행위로부터 주체의 욕망은 잠시나마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국에는 지적 수준의 실체가 탄로 나서 선비의 존재 가치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념적 모방 욕망을 하는 선비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 거짓에 속거나 망신을 당하는 인물이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인물과의 애정 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남성이라는 경쟁자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한다. 애정 관계를 원하는 여성에게서 정절 이념을 욕망하며, 남성 권력 및 우월함의 지위를 얻고자 한다.

모방 욕망의 관점에서 주체는 현재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추구하는데, 선비에게는 이것이 바로 벼슬과 지식 그리고 여성의 정절 이념로 대변하는 상위 주체의 욕망이다. 주체가 이를 욕망할수록 이야기는 더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여 욕망의 성취가 거의 불가능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독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비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야기 속에서 선비 행색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을 눈치채지만, 결과적으로 욕망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현실에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마련한다. 그리하여 이야기 세계의 선비는 하위 영역에서, 현실 세계의 선비는 상위 영역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구분 짓는다.

두 주체 사이에서 관계하는 욕망의 상호 작용은 ‘모방과 암시’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야기 세계에서 선비(A)의 욕망은 현실 세계의 선비(B)가 욕망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위의 도식은 ‘미분화개체 간 심리학’을 설명하는 장 미셸 우구를리앙의 이론으로 모방과 암시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미분화개체 간 관계란 “내가 어떤 사람의 욕망을 모방한다면, 그것은 그가 나에게 자신의 욕망을 암시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겨난 나의 욕망을 보고서 이번에는 그가 내 욕망을 모방하게 된다”³⁴⁾는 것이다. 모방과 암시의 작용은 현실 세계의 선비와 이야기 세계의 선비가 욕망하는 모방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다.

여기서 B는 타인으로부터 우월한 지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A에게 암시하고, A는 B의 욕망을 모방하여 자신이 그러한 존재 가치를 지닌 자라고 여기게 된다. A가 B를 더 많이 모방할수록 현실 세계의 선비의 욕망과 닮아가는데 역설적이게도 선비의 위상은 더 실추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실제 독자는 자신의 욕망을 모방하는 이야기 세계의 선비를 통해서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선비의 덕목’을 규정하고, 선비의 행동 규범 및 금기의 의미가 생겨난다. 이를테면 선비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수련하고 사사로운 욕망은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벼슬하지 못하는 선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만한 지적 수준을 갖지 못하는 선비들은 선비라는 명분만 내세울 뿐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관직에 나가 타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지배 계층에 속하지 못해 상위에서 밀려나 하위 주체가 된다. 이상적인 선비의 덕목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자가 드물었을 만큼 오히려 현실에서는 상위에서 밀려나 하위에 존재하는 선비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럼 에도 현실 세계의 선비들은 그러한 하위 주체의 선비와 자신을 차별하고, 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한다.

4. 맺음말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상위와 하위의 영역을 구분 짓는 지배 담론의 논리에서 하위 주체는 유교적 가치와 동화되지 않는 존재로 간주 된다. 그리하여 선비의 이야기는 현실 주체인 선비와 연대하지 않고 하위 주체의 영역에서 타자화된다. 상위로부터 밀려난 선비의 존재는 현실 세계의 선비가 만들어 낸 욕망의 실체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욕망을 암시하여, 이를 모방하는 선비의 존재를 하위 영역으로 끌어와 자신은 상위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투사한 것이다.

33) 장 미셸 우구를리앙(2018), 같은 책, 75면.

34) 장 미셸 우구를리앙(2018), 위의 책, 75면.

참고문헌

김향수, 「17세기 한문 일화에 나타난 여성의식「파수록」과 「명엽지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류정월, 「문헌 소화의 구성과 의미 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奠葉志諧』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정원이, 「 <奠葉志諧>의 골계적 성격과 의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행로, 「《奠葉志諧》의 構造 研究」,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현안옥, 「명엽지해」와『청구야담』에 나타난 양반계층의 여성의식 연구 : 反 유교적 여성담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황소령, 「『명엽지해』 연구 :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야담에 나타난 정욕 담론과 성적 주체 인식

- <深深堂閑話>를 중심으로

이승은(한림대학교)

1. 머리말

매화외사 가로되, 내가 열두 살 때에 시골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매일 동접들과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다. 어느 날 선생이 심생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시고, “심생은 나의 소년시 동창이다. 그가 절에서 편지를 받고 통곡할 때에 나도 보았더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잊지 않았구나.”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풍류 소년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일에 당해서 진실로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뜻을 세우면 규중의 처자라도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거늘, 하물며 문장이나 과거야 왜 안 되겠느냐.” 하시었다.

우리들은 그 당시 듣고 매우 새로운 이야기로 느끼었다. 뒤에 정사(情史)를 읽어보니 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많았다. 이에 이를 추기(追記)하여 정사의 보유(補遺)를 삼을까 한다.

이옥의 <심생전>은 사랑 이야기다. 작품을 읽다보면, 알 수 없는 정열에 휩싸여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꺾녀의 문밖에서 앉아 밤을 지새우던 소년 심생과, 벽을 사이에 두고 그의 기척을 고스란히 느끼며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여자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하다. 이는 이옥 특유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필치 덕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작품의 말미에 얽힌 훈장의 저 말은 독자-혹은 당시 그 자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청자-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독해를 요구한다.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문장도 과거도 이룰 수 있다는 교훈, 그것을 미래의 사(士)들에게 남기겠다는 것이다. 훈장의 의도가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사』의 보유로 삼을 만하다는 언급을 보면, 일차적으로 이옥에게 심생의 이야기는 ‘굳은 의지와 성취’보다는 ‘남녀 간 애정’에 관한 것으로 수용되었던 것 같다. “모든 독서는 오독”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해석분을 갖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훈장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남녀의 정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사 다른 일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야담에도 남녀의 사랑과 정욕을 다룬 이야기가 많다. 그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은 저 훈장처럼 짐짓 교훈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남녀지정에 대한 담론을 읽어낼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삽교만록』의 <심심당한화>가 바로 그 예이다.¹⁾ <심심당한화>는 원주 손곡(蓀谷)에 있는 심심당에서 안석경과 황성약, 신사겸이 한담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사대부 이야기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여섯 명의 남성 사대부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수양과

1) 안석경(1718~177)의 『삽교만록』은 인물 일화에서부터 시국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것이다. 그중 <劍女>, <宣川 金進士>, <戀盜>와 같은 작품이 『이조한문단편집』에 소개되면서 주로 그 야담적 성향이 조명되었다. <심심당한화> 역시 『이조한문단편집』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본래 제목이 없었던 것을 편역자가 <심심당한화>라 명명하였으며 본고 역시 그를 따른다. 본고의 인용문은 『이조한문단편집』 1권의 292~307쪽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원문은 『이조한문단편집』 4권의 해당 부분을 따랐다.

처세를 서사화한 옴니버스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각 인물마다 처변(處變)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의 일부는 여성 정욕 표출의 사례로 논의의 장에 여러 차례 호출된 바 있다.²⁾ 그러나 언급되지 않았던 나머지 작품 또한 여성과 관련한 사대부들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분석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남녀 문제라는 하나의 주제 하에서 각기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엮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문곡의 일은 정암의 겪은 바와 같고, 그 처한 바도 대체로 정암과 마찬가지로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는 언급으로 보아 성격이 유사하여 반복되는 이야기는 생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두서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열하는 듯하지만, 실은 안배를 통해 남녀의 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하고자 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심심당한화>의 여섯 이야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남성의 수양과 처세라는 표면적 주제 이면에 놓인 남녀 간 정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성적 주체로서 다양하게 발화하는 여성들의 모습과, 이를 구술/기록하는 남성의 태도를 통해 여성을 하위주체로 바라보는 남성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심당한화> 각편의 이해

심심당의 이야기판에 오른 인물은 문천상(文天祥), 조광조(趙光祖), 권필(權韞), 이 자의(李諮議), 민정중(閔鼎重), 김인후(金麟厚)이다. 이들은 모두 요절하였거나, 정치적 부침이 심하였거나,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 누군가의 궁달(窮達)에는 항상 사후적 해석이 덧붙기 마련이고, <심심당한화>는 일차적으로 이들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서사적으로 풀어낸 인물 일화로 이해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들 여섯 명의 명운을 모두 여색과 관련하여[皆關於女色者也]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는 송말 삼절의 하나로 추앙받는 문천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역병이 돌아 인적은 끊어지고 시체가 가득한 마을이 배경이다. 문천상이 마을을 지나다 어떤 대갓집에서 쉬어가면서 그 집에 있는 처녀에게 숙식을 제공받는다. 밤이 되자 처녀는 집안에 널린 시체의 수습을 부탁하는 동시에, 그에게 일생을 의탁할 뜻을 밝힌다. 그러나 문천상은 시신만 수습하고 날이 밝자마자 여자를 뒤로 한 채 그 집을 떠난다. 여자는 “반드시 응보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결한다.

문천상은 비록 총절로 이름을 후세에 드리웠으나, 결국 남송이 망하고 자신 또한 포로로 잡혀 쿠빌라이 칸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살아생전 득의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원한은 실현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길에 갑자기 여자를 얻어 돌아갈 수 없다는 그의 말 또한 일리가 있으니, 문천상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어지는 평어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애당초 문산에게 두 가지 잘못이 있소. 군자는 한발짝 내딛기에도 신중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늘, 저물녘에 이르러 잘 곳을 정하는데 어찌 처소를 살펴보지 않으리오? 처음에 자세히 알아보지

2)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 『국제어문』26, 국제어문학회, 2002;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18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10, 한국여성문학학회; 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이주영,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여성 정욕의 표출과 그 대응의 몇 국면」, 『한국고전연구』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않고 남자가 없는 사족의 집에 숙소를 잡은 것이 그 하나의 잘못이요, 처자가 등불을 들고 엿볼 적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점을 생각하여 미리 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그 두 번째 잘못이라. 이는 문산이 바른 도리를 잃은 셈입니다.

두 가지 잘못은 결국 기미를 살피 거처할 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시신만 가득하고 사족은 한 명도 없는 집, 오직 유약한 처녀 하나가 남아서 지키고 있는 집은 망국의 상징에 다름 아니다. 이미 남송이 원나라에 항복한 뒤에 망명황실에 의해 승상에 봉해지고, 이를 수락한 문천상의 실제 행적³⁾과 작품 속 행동은 평어를 통해 겹쳐진다. 즉 문천상의 이야기는 위급한 시기에 진퇴의 기미를 살피지 않고 위태로운 자리에 올라 바른 도리를 잃었으며(失於經者也), 결과적으로 국망(國亡)과 신망(身亡)에 이른 것에 대한 우의로 읽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웃집에 사는 아전의 딸이 조광조를 사모해 상사병이 들었는데, 그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끝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조광조의 단엄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각 집안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전이 차마 조광조에게 딸의 병을 말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사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첩으로 거두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조광조는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었다.

“여자가 부모의 명과 중매의 말에 의하지 않고 사사로이 남자를 엿보아 음심이 발동했으니, 그 허물이야말로 죽어도 족히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예의로 가르치심이 마땅하거늘 어찌 소자로 하여금 음녀를 취하라 하시옵니까?”

조광조의 말은 남녀의 관계함에 있어서 원칙이 되는 것이다. 『예기』 내칙의 “예는 부부를 삼가는 데서 시작되니, 궁실을 짓되 안과 밖을 구분하여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하여, 집을 깊숙하게 하고 문을 굳게 닫아 문지기가 지켜서, 남자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오지 않는다.”⁴⁾는 구절은 『소학』의 보급에 따라 더욱 널리 퍼져 나갔으며, 조선 전기 이후 남녀의 사회적 지위, 역할의 구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이격과 그 실천을 강제하기에 이르렀다.⁵⁾ 문제는 조광조가 내세우는 원칙과 “의에 저촉될 것이 없다”는 아버지의 명령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다. 평어 또한 이를 지적한다.

정암이 화를 당한 것은 이 여자의 원한 때문이라고 세상에서 말한다. 여기서 그 여자의 잘못은 남자를 사사로이 엿본 데 있을 뿐이다. 정암은 두 가지 잘못이 있다. 부친의 명이 불의가 아니거늘 따르지 않은 것이 하나요, 어린 여자를 지나치게 책하고 가엾이 여겨 동정을 베풀지 않았음이 그 둘이라 할 것이다.

조광조의 잘못은 지나친 원칙주의와 부명(父命)을 따르지 않은 데에 있다. 아버지는 곧 군주

3) 胡廣, 「승상전」, 『문산선생집』 권19.

4) 성백효 역주, 소학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3, 133쪽. “內則曰：‘禮始於謹夫婦。為宮室辨外內，男子居外，女子居內，深宮固門，闔寺守之。男不入，女不出。’”

5) 강명관은 선초부터 『소학』이 여성주체의 박탈(三從之道), 남성과 여성의 철저한 분리, 남성에게 성적으로 종속된 존재로서의 여성(一夫從事, 一醮不改), 여성 노동(織造, 祭祀 등의 노동), 활동 영역의 제한(閨門을 나서지 않는다) 등 사족체제의 상식이 된 유교의 여성관을 한꺼번에 제공하였으며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천을 규율하는 매뉴얼로 작동했다고 하였다. 강명관, 「조선 사족 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26권3호, 2016, 103쪽.

와 견주어지는 존재이므로, 평어를 통해 조광조의 행동은 원칙을 내세워 군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실제로 조광조 일파의 급진적 개혁 추진에 지친 중종과의 사이에서 갈등 기류가 포착되었던 정황⁶⁾, 기묘사화를 주도하고 조광조를 사사하는 데 중종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리라는 추정⁷⁾과 겹쳐진다.

셋째 권필의 이야기 또한 조광조와 마찬가지로 신망(身亡)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다르다. 여기에는 노부인, 자부, 손부 삼대의 과부가 등장하며, 노부인이 권필에게 청상과부인 손부와 하룻밤을 보내줄 것을 청한다. 권필이 끝내 이를 거절하자 손부는 자결한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시화(詩禍)로 죽은 이유⁸⁾가 바로 그 여자의 양값음에 있다고 하였다. 평어는 권필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방으로 안내하자 들어가고 주안상과 식사가 나오자 모두 받아먹으니, 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한번 칭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법했다.

조광조가 지나친 엄숙주의로 거절했던 것이 문제였다면, 권필의 경우는 아무 것도 사양하지 않고 무람없이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후세 사람들이 그에 대해 남긴 평가-술을 몹시 좋아하였다거나 사소한 의절에 구애받지 않았다⁹⁾는 것과도 상통한다.

넷째 이 자의의 경우는 곤궁하게 일생을 망친 사례이다. 그가 객점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정념을 이기지 못한 토관의 딸이 밤에 방안으로 난입한다. 이 자의는 그녀를 거절하고 꾸짖었으나 끝내 물러가지 않자, 그 여자의 아버지를 그 자리에 불러오게 하였다. 아버지가 여자를 끌어내며 서로 격렬하게 다투다가, 마침내 여자는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며 여귀가 되겠다 다짐하였고, 그 뒤로 이 자의의 꿈에 늘 여자의 시신이 나타나고 집안에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차라리 죽는 꼴을 보겠다”던 아버지의 말이었다. 그러나 토관을 불러오게 하여 그 딸과 다툼의 장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 자의였다.

한편 『어우야담』에는 이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정인지의 일화로 실려 있다. 다만 결말은 다르다. 정인지는 날이 밝으면 부모를 뵈고 아된 후에 결연하자는 말로 여자를 달랜 후 다음 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비록 거짓말이지만 이것이 권도일 수 있음을 정인지의 사례는 보여주는 것이다. 평어에서 이 자의를 “처신에 지혜가 없었고 정도만 고수하며 권도가 부족했으니, 인과 지를 모두 잃었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민정중의 이야기는 화가 많고 복이 적었던 사례이다. 그는 숙종 때 남인이 집권하면서 장흥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 경신환국으로 조정에 돌아와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6) 김범, 「조광조, 성공적 소통과 급격한 단절의 명암」, 『역사비평』89, 역사비평사, 2009.
 7) 이정철, 「기묘사화 전개과정과 중종의 역할」, 『국학연구』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8) 권필은 광해군의 처남인 유희분 등이 외척으로 권세를 부리는 폐단을 기롱하는 궁류시(宮柳詩)를 지었는데, 이 시로 무옥(誣獄)에 걸려들어 혹독한 신문 끝에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귀양길에 동대문 밖에서 사람들이 전별의 뜻으로 주는 술을 받아 폭음하고 이튿날 죽었다고 한다.
 9) 권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한다. “사람됨 역시 소탈하고 무슨 일이든 겁없이 해치우는 성미였으며 사소한 의절(儀節)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과거 공부도 포기한 채 세상을 도외시키고 떠돌아다니면서 시와 술로 스스로 즐겼다.” 『상촌선생집』제60권, 「청창연담」 하; “그 모습을 보면 넓은 이마에 입이 크고 미목(眉目)이 흰칠하였으며 용모가 기위(奇偉)하고 기상이 호탕하였다. 언론 또한 활달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이따금씩 농담을 섞어 가며 익살을 부리기도 하였는데, 술을 몹시 좋아하는 성격에 한 번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말이 더욱 호방해지기만 하였다.” 『계곡집』제6권, 「石洲集序」.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남인이 집권하면서 벽동에 유배되어 결국 그곳에서 죽었으니, 정치적으로 부침이 컸으며 말로가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응보로 설명한 것이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민정중이 산골 마을 아무개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중에 그 누이동생을 꾸며서 들여보내라 명했다. 아무개는 명대로 누이를 단장시켜 대령하였으나 민정중은 이미 곱아떨어진 후였다. 아침에 술에서 깬 민정중이 여자를 발견하였으나 자신의 취중 발언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개가 누이를 빌미로 이득을 보려한다고 꾸짖었다. 그 여자가 끝내 출가하지 않고 한이 맺혀 죽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이를 믿지 않았다.

평어는 민정중의 잘못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교외에서 방심하고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 것이다. 이는 자기 수양과 절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여자의 수절하는 마음을 믿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았을 뿐더러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니 이로 인한 응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김인후는 주색에 빠져 지내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인종이 죽고 곧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낙향하여 다시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던 김인후의 실제 행적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색을 은거의 상황과 연결하여 세상을 저버린 자의 존재 방식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런데 김인후 이야기의 핵심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슬프다, 송강같이 현명한 사람으로서 주색을 멀리했다면 학문의 진전과 공적의 수립이 마땅히 어땠겠는가? 돌아보건대 하서가 그르친바 된 것이라, 애석하도다! 대개 하서는 스스로 세상을 버린 분이다. 주색을 가까이하기를 꺼리지 않은 것이지만, 어찌 그 해가 멀리 미칠 줄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인가.

평어는 정철이 김인후를 흠모하여 주색을 가까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학문과 공업이 기대만 못하게 되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즉 김인후는 그 자신이 주색으로 인해 불우해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상 여섯 편의 이야기는 남성의 처세와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 국망(國亡), 신망(身亡), 곤궁과 불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이르기까지 사대부 남성이 맞이할 수 있는 부정적 말로를 모두 나열함으로써 궁리수신(窮理修身), 처사접물(處事接物)의 경계로 삼을 만한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심심당한화>가 사대부 남성의 처세를 논하는 과정에서 그 대타자로 여성의 욕망, 조금 더 확장하자면 남녀지정의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남녀지정의 담론과 여성의 목소리

잠시 서두에서 언급했던 <심생전>과 훈장을 떠올려보자. 훈장은 분명 심생을 통해 학동들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훈장이 인용한 사례가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훈장은 왜 하필 오독의 소지가 다분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끌어다가, 아무래도 건강부회로만 여겨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이 시기 남녀지정에 대한 인식의 확장 및 심화의 분위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심심당한화>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의 처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기실 이야기의 바탕에는 남성과 여성의 정욕 및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달리 말하면 남녀지정을 가지고 처세의 문제로 이야기를 전유(專有)한 것이다.

먼저 각편의 서사적 변용을 통해 그 양상을 확인해보자. <심심당한화>의 각편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어우야담』, 『남계집』 등 전시대 필기 및 문집류와 『동패락송』 등 동시대 야담집에서 찾을 수 있다. 문천상 이야기는 『어우야담』에 시신을 수습해주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은 박엽(143화)과 무사(145화)의 이야기로부터 그 서사적 원형이 보인다.¹⁰⁾ 그러나 이들 이야기는 박엽과 무사가 관계를 맺는 여성이 귀신이라는 점에서 남녀지정보다는 죽은 자의 해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하다. 보다 유사한 이야기는 『동패락송』에 있다. 가화로 인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홀로 남은 처녀가 우연히 그 집에 머물게 된 선비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신을 수습한다. 이 처녀 역시 선비를 따르기를 희망하는데, 별다른 갈등 없이 결연을 맺고 영달을 누렸다는 결말이 다르다.

권필 이야기는 『동패락송』의 <차태>와 유사하다. <차태>에서는 노부인 대신 결연을 매개하는 사람이 남편으로 설정되는데, 노화로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의 첩들은 비록 과부는 아니지만 과부와 다른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선비로 하여금 여러 첩들과 관계를 맺게 하고, 자식을 보려고 한다. 결국 선비는 이를 승낙하고, 노인이 죽은 후 그 재산과 자식, 부인을 모두 취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로 끝맺는다. 『동패락송』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남녀의 관계를 남성이 허락하고 그로부터 부귀와 여색을 모두 얻게 된다. 이는 『동패락송』의 편찬자가 통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서사의 지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 자의 이야기는 앞서 『어우야담』에 실린 정인지 이야기가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언급하였다. 이들 이야기 역시 하나의 유형을 이루는데, 여성이 정념을 이기지 못해 남성의 처소로 뛰어들거나, 사람을 보내 자신의 방으로 남성을 부른다. 정인지 이야기가 여성의 정욕 그 자체를 표출하는 이야기라면, 『남계집』에는 김안국이 자신을 찾아온 사족 여자를 매질하여 개심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는 여성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기획이다. 한편 『동패』에는 이 매질의 주체가 조광조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편의 변화는 <심심당한화>의 성립 과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즉 본래 위와 같은 남녀 간의 일을 기록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작품의 편찬자가 각자의 지향에 따라 이를 개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는 남녀의 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이를 활용해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의 방향을 틀기도 한다. 마치 <심생전>을 학동과 훈장이 각자의 입맛대로 읽어내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심심당한화>는 남녀지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성의 처세와 수양의 이야기로 바꾸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이야기의 존재는 남녀지정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로 보인다. 사실 남녀의 관계의 중요성은 성리학의 사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남녀는 인륜의 근본이고 만세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역경』에서는 건곤을 첫머리에 실었고, 『서경』에서는 이강을 기록했으며, 『시경』에서는 관저를 기술했고 『예기』에서는 대혼에 대해 공경스럽게 다루었으니 성인이 남녀를 중히 여김이 이와 같았다. 나라의 흥망은 가정의 성쇠에서 연유하는 것이다.¹¹⁾

인용문은 조선 최초의 법전 구상인 『조선경국전』의 일부분이다. 정도전은 남녀의 혼인을 인

10) <심심당한화>에서 황성약은 문천상의 일을 잡서에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11) 『삼봉집』13, 『조선경국전』상, 「예전」, 「혼인」.

륜의 근본이자 만세의 시작이라고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남녀를 그 자체로 남겨두기보다 가족 속의 부부에 의미를 둔 것”¹²⁾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대학의 조목에 근거하여 국가의 흥망은 가정의 성쇠, 가정의 성쇠는 혼인이 그 시작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옥의 <심생전>, 안석경의 『삽교만록』과 같은 작품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르면, 이제 남녀지간은 부부의 문제뿐 아니라 남녀 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정(情)’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남녀의 정을 통해 세상만사와 인간을 탐구할 수 있다는 인식도 이 시기 들어 발견된다.

무릇 천지만물을 관찰함에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사람을 보는 데에는 정(情)보다 묘(妙)한 것이 없고, 정을 보는 데는 남녀의 정을 보는 것보다 진실된 것이 없다. ... 그런 때문에 이를 보면 그 마음의 사악함과 올바름을 알 수 있고, 사람의 어짊과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일의 득과 실을 알 수 있고, 그 풍속의 사치스러움과 검소함을 알 수 있고, 그 풍토의 후함과 척박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집안의 흥함과 쇠함을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평화로움과 어지러움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타락함과 융성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그렇지만 오직 남녀 간의 일은 인생의 본래적인 것이며, 하늘의 도리와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례 때 푸른 술잔에 붉은 화촉으로 혼인하여 서로 인사하고 맞절하는 것도 또한 진실된 정이요, 향기로운 규방에서 상자에 수를 놓는 것이나 이리 마냥 싸우고 다투며 성내는 것도 또한 진실된 정이다. 비단 주름과 옥난간에 기대어 눈물 흘리며 자나 깨나 사모하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요, 황금에 웃고 옥구슬에 노래하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다. 원앙금침의 아름다운 무늬에 기대어 있는 것도 진실된 정이며, 서리 내린 다듬잇돌과 빗속의 등잔을 벗하여 한을 품고 원망을 가슴에 묻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며, 달 밝은 밤 꽃뿔기 아래서 옥패를 주고 향을 훔치는 것 또한 진실된 정이다.

오직 이 한 종류의 참된 정이야말로 어느 한 구석도 진실되지 아니한 곳이 없다. 가령 단정하고 정일(貞一)하여 다행히 그 정도(正道)를 얻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참된 정이요, 방자하고 편벽되며 나태 오만하여 불행히도 그 올바름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또한 참된 정이다. 오직 그것들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정도를 얻었을 때는 본받을 만하고, 그 정도를 잃었을 때에는 또한 경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참된 것이어야 본받을 수 있고, 참된 것이어야 경계가 된다. 그러므로 그 마음, 그 사람, 그 풍속, 그 풍토, 그 집안, 그 국가, 그 시대의 정을 또한 이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니,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도 이 남녀에서 살피는 것보다 더 진실된 것이 없다.

이옥은 『이언인』의 <이난>에서 자신의 정론을 펼친다. 이는 <정사>를 지은 풍몽룡의 “무정한 사람이자니 차라리 정이 있는 귀신이 되련다”는 말과도 통한다. 이는 <심심당한화>에서 ‘남녀의 정이 어떻게 처세의 문제를 다루는 데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 천지만물은 남녀의 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옥의 『이언인』과 <심생전>, 『삽교만록』의 <심심당한화>는 전혀 다른 지향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또 이옥은 『이언인』에서 정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면모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이후 이언을 탕조, 염조, 비조, 아조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심심당한화> 또한 마찬가지다. 남성의 대타자로 등장하는 여성들 또한 모두 다른 층위의 정욕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첫 번째 여자는 대갓집의 처녀로 문천상의 사람됨을 먼저 살핀 후에 그에게 의탁하고자 한다. 치상(治喪)을 부탁하였으니 그에 대한 의리를 갚고자 하는 뜻도 있을 법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천상의 첫 번째 거절에 인사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소매를 붙잡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내기를 소원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 마지막 부탁마저 거절하자, 여자는 문천상

12) 이숙인, 「조선 초기 유학의 여성인식」, 『정신문화연구』31권 2호, 2008, 200쪽.

이 문밖을 나서기도 전에 자결한다. 자존심과 절망감 등이 뒤섞인 것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여자는 이와 정반대로, 다정하면서도 유약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매번 조광조를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틈었으나 직접 말하지 못할뿐더러, 그녀에게는 일이 되리라는 기대조차 없다. 그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죽어갈 뿐이다. 이는 그녀가 아전의 딸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첩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말에서 성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수동적인 존재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의 상여가 조광조의 집앞에 멈춰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죽어서도 그 정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그 깊이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여자는 <심심당한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과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청상으로 과부가 된 어린 손부가 인도를 모름이 불쌍하고, 또 후사를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같은 권씨를 찾아 하룻밤을 의탁하려는 것이다. 사실 후사의 문제는 이미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면죄부로 활용된 듯하다. 손부 또한 권필의 거절에 바로 자결하는 자존심 강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네 번째 여자는 토관의 딸로, 자신의 정념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두 번째 여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여자의 경우 그날 밤 바로 객점의 숙소를 찾아온다는 점에서 훨씬 적극적이다.

“예의를 모르는 바 아니으나 여자의 정이 승하니 어찌합니까? 오늘밤 죽어도 못 물러가겠습니다.” 이자의가 심한 언사로 기어이 거부하며 크게 꾸짖는 소리가 났으나, 처녀는 끝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오늘밤에 있습니다. 제발 예의는 덮어주세요. 저도 그쯤은 모르지 않습니다.” 이자의는 그녀가 막무가내임을 깨닫고 객점 주인을 불러 그 아버지를 데려오게 했다. 그 아버지가 달려와 보고 깜짝 놀라서 딸을 꾸짖으며 끌고 가려 했다.

“여자의 몸으로 밤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미 절개를 잃었습니다. 어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진정하시고 잠깐 손님과 조용히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고 말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분노로 결국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문턱에 피를 낭자하게 흘뿌리고 자결한다. 이와 반대로 다섯 번째 여자는 중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아는 인물로 그려진다. 비록 민정중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절의를 지켰던 것이다.

이처럼 <심심당한화> 역시 다양한 여성의 형상과 그들의 정욕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보는 기본적 인식의 틀은 하위주체에 가깝다. 김인후의 이야기에는 특정한 여성이 등장하지 않지만, ‘주색’으로 술과 함께 묶여 남성을 어지럽히는 대상으로 인식됨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여자는 정념과 인욕에 휩싸이기 쉬운 존재이며, 여자로 인하여 국망, 신망, 곤경과 불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여자의 정이 천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4. 맺음말

19세기에 분출된 욕망의 수렴과 애욕의 세대서사

신상필(부산대학교)

1. 조선이라는 시대와 공간에서의 욕망의 층위

사람이 태어나서 마음이 정(靜)을 지닌 것은 천성인데 희(喜)·노(怒)·애(哀)·락(樂)의 이(理)가 갖추어져 있고, 사물에 감동하여 동(動)하는 것은 성(性)의 욕망인데 희·노·애·락이 여기서 발하는 것이니 이것은 ‘성(性)이 기(氣)를 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선한 데서 나오면 달도(達道)가 행하여지게 되고, 바르지 않은 데서 나오면 인욕(人欲)이 천성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¹⁾

인간은 생래적으로 부여받은 본성이 주변의 사물, 혹은 사건에 반응함으로써 희노애락이 발현된다고 한다. 기쁨, 노함, 슬픔, 즐거움이라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사유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추론이라 하겠다. 다만 이를 “성(性)이 기(氣)를 탄다”는 논리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고는 하였다. 흔히 ‘기발(氣發)’, ‘이발(理發)’, 혹은 ‘이기호발(理氣互發)’이라 말하는 이기론(理氣論)의 시발점에 언급되는 내용인데, 인용은 백호(白湖) 윤휴(尹鑣, 1617~1680)가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인심(人心), 도심(道心)에 대한 의견을 무인년(1638)인 20대 초반의 논설이다. 본성에 갖추어진 희노애락의 이치가 주변의 상황에 반응하며 드러나는 과정에 선(善)과 부정(不正)의 출발점을 달리함으로써 “달도”와 “인욕”으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삼은 조선 왕조가 하층 민인에 이르는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관리와 운영을 꾀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리학의 시대인 조선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실제적 상황은 이와는 달랐지만, 인간 욕망(人慾)에 대한 부정과 역제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은 문인지식층인 사대부들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학의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었다. 제자인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천 년에 한 번 나올 인물[千載一人金佔畢]’로 꼽았던 사림(士林)의 종주(宗主)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경우 『청구풍아(靑丘風雅)』와 『동문수(東文粹)』를 편찬하면서 역대의 문장을 통해 시(詩)와 문(文)의 전범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그러하다. 그는 16세 때 응시했던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오던 한강의 제천정(濟川亭)에 “눈 속의 찬 매화와 비 온 뒤의 산 경치는, 구경하긴 쉬우나 그림 그리기 어렵다오. 시인의 눈에 들지 않을 줄 일찍이 알았으나, 어찌 연지 가져다 모란을 그리리오.”²⁾라며 자신의 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문학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

1) 尹鑣, 「四端七情人心道心說」, 『白湖全書』 권25 <雜著>, “人生而靜, 天之性也, 喜怒哀樂之理具焉;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喜怒哀樂於是乎發焉, 此之謂‘性之乘氣’者然也. 以是而發之乎善, 則達道之所以行也; 以是而出之不以正, 則人欲之所以悖乎性也.”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인용은 한국고전번역원을 따른다.

2) 金宗直, 「年譜」, 『佔畢齋集』 문집 부록, “雪裏寒梅雨後山, 看時容易畫時難. 早知不入時人眼, 寧把臙脂寫牡丹.”

을 일찍부터 천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리학적 문학관 안에서도 “대저 시문은 화려한 것은 화려함을 취하고 청담(淸淡)한 것은 청담함을 취하며, 간고(簡古)한 것은 간고함을 취하고 웅방(雄放)한 것은 웅방한 것을 취하여, 각기 하나의 문체를 이루어 절로 법이 되는 것이다.”³⁾이라는 동아시아 한문학의 일반적 전범을 인정하면서도 문학의 독자성과 개성을 강조한 언급이 지속적인 사회 현실의 일상성 속에 실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층 문인지식층인 사대부들의 상황이 이렇다면 하층 인민 대중의 일상적 현실에서 교화를 통한 성리학적 인육의 조절을 기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

아! 진복(珍福)은 한낱 하간(河間)의 음부다. 마음이 한번 무너짐에 일생을 마칠 때까지 치욕을 면치 못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간의 심보로 남을 시기하고 돌려 먹는 것이 이처럼 사람을 해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니, 참으로 두렵지 않은가?⁴⁾

인용문은 서울 어느 재상가 소실의 딸인 진복이 어려서 수양딸로 삼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쟁이의 말로 인해 자식이 없는 부유한 노파의 수양딸이 되었다가 양심을 품은 노파의 친척들의 농간에 몸을 망치고는 결국 창녀의 신세가 되었던 이야기에 대해 논평한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언급이다. 기본적으로 유몽인은 ‘마음가짐[立心]’에서 진복 일개인이 행동을 단속하지 못했던 사건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진복의 치욕을 마땅한 것으로 판정한다. 당시 상층지식인이자 국정을 담당했던 사대부로서 지극히 타당한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시기와 사기[猜詐]’를 감행한 인심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임진왜란을 전후로 17세기의 조선 중기적 사회상의 일단을 진단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면 사건은 몇 가지 욕망의 분출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권세를 쫓아 재상가의 자식을 흔쾌히 거뒀던 노파, 부유한 노파에게 후사를 넣고자 했던 일가친척,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의 젊은 문관이라는 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진복의 욕망들이 그것이다. 이들의 욕망이자 욕심은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니 인정하지 못해 거짓 구변으로 횡방 놓으려 진복을 유혹한 노파의 일가친척과 문관의 소실로 부귀 호강하던 친모를 부러워하는 진복의 계기들로 연결되어 파국을 맞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조선후기의 초입에서 권문세가, 친척의 유산, 문관의 부실(副室)이라는 조선중기 사회에 펼쳐진 욕망의 대상들이 유몽인이라는 성리학적 사고를 지닌 문인에 의해 발견되어 진단되고 호출됨으로써 하취주체의 면모가 말해지는 한 면모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어떠한가.

방자 놔 돌아서며, “도련님, 말씀 들으시오. 기생집 가는 길에 우리 둘 다 땀머리 총각인즉, 방자라고 마시고 이름이나 불러주오.” (중략) 이도령 마음은 급하나, 가만히 생각하여 성명을 붙여 보니 부르기가 난감하고, 부르지 않으려니 갈 길을 못 가겠다. “이 애 방자야. 오늘 밤만 성명을 고쳐 부르면 어떠한가?” “되지 못할 말을 마오. 아무리 상놈인들 성과 이름을 바꾼다니 될

3) 成倪, 「文變」, 『虛白堂集』 권13, “大抵詩文華麗則取華麗, 淸淡則取淸淡, 簡古則取簡古, 雄放則取雄放, 各成一體而自底於法.”
 4) 柳夢寅, 『於野談』, “吁! 珍福一河間淫婦也. 立心一敗, 終身羞辱, 宜哉! 而但人心之猜詐, 能陷人不測如此, 可不懼哉?”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1』, 태학사, 2012, 209면(원문 469~470면).

말이오? 갈 테거든 혼자 가오. 내일 아침에 책방에서 만납시다.”⁵⁾

이 도령이 방자와 함께 남원 구경을 하며 보았던 춘향을 만나고자 기생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랑이의 한 장면이다. 방자는 이미 광한루에서 나이를 따져 형님 자리를 꿰차더니 이제는 이름을 불러달라며 도령을 놀리는데 변성명하여 성은 ‘아’가요 이름은 ‘버지’라는 것이다. 방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다른 이름으로 하자는 이 도령의 청에 상놈인들 성과 이름을 바꾸느냐며 내일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숨어버린다. 춘향의 집이 지척인데 길잡이가 사라졌으니 이 도령은 결국 ‘아버지’하고 부르려야 춘향의 집을 찾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층의 발랄한 면모가 일순의 장면을 통해 해학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하층에서 일궈진 『춘향전』의 계층적 역동성과 문학적 성취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이는 반면 주종(主從)의 상하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나이로 따져 우위를 점한 방자가 신분까지도 넘보려는 시도를 감행이라는 점에서 당대 사회의 금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신분의 위계를 범한 하층에 대한 징치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고자 기생집으로 가려는 욕망이 더욱 앞서기 때문이다. 어쩌면 탐춘(探春)의 욕망 앞에 반상(班常)의 윤리가 잠시 뒷전으로 자리를 내주는 정황적 논리가 『춘향전』의 한 장면에 오롯이 담겨 조선후기의 사회적 정황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이처럼 조선전기로부터 꾸준히 분출하며 대두되던 인정 욕구의 다양한 층위와 그 확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을까. 더구나 근대의 목전에 처해 특이점을 만난 19세기라는 시기적 상황의 동향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학운동, 갑오경장, 임오군란 등으로 전개된 19세기라는 조선 말기의 상황은 격동 그 자체로 느껴진다. 이들 사건은 농민과 군인이 구시대의 틀에서 벗어나는 대목이자, 한문에서 국문으로의 전환에 걸친 사회경제적 변모가 모두 신시대를 마주하며 빚어낸 하나의 사태기에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 시기 세태서사로 불리는 『절화기담(折花奇談)』, 『포의교집(布衣交集)』, 『북상기(北床記)』, 『백상루기(百祥樓記)』의 애정에 펼쳐진 서사는 이들 욕망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시대 분출되던 인정 욕구들이 점차 축적되어 애욕이라는 남녀의 관계로 그려진 욕망으로 수렴되는 서사전개가 당시까지의 사회적 통념에서는 한참 벗어난 듯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서사작품의 등장은 놀라기는 해도 문학적으로는 충분히 용인될만한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들 19세기 세태서사의 애욕이 발산되는 근거와 분출된 애욕이 수렴되는 자리를 이들 서사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 하층의 존재와 이들 주체의 면모로 확인하기로 한다.

2. 19세기 글쓰기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시좌(視座)

19세기 한문서사문학은 그리 적은 편이 아니다. 조선후기가 야담(野談)의 시대라는 점에서 이미 풍부한 데다, 「일석화」, 「이화실전」, 「한조충효록」, 「편옥기우기」, 「낙동야언」, 「오로봉기」, 「삼해지」, 「종생전」, 「오후강전」, 「유생전」 등과 같은 중단편 소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⁶⁾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상현(鄭尙玄)의 『백상루기』(1792년 이후), 석천주인(石

5) 성현경 풀고 옮김, 『이고본 춘향전』, 보고사, 2011, 28~29면.

泉主人)과 편차자 남화산인(南華散人)의 『절화기담』(1809년), 동고어초(東臯漁樵)의 『복상기』(1840년 추정), 정공보(鄭公輔)의 『포의교집』(1866년)은 공히 남녀의 애정관계를 지극히 현실적 국면으로 다룬 세태서사이자 19세기의 작품으로서 상당히 문제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이 점에서 19세기 하위주체들의 욕망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다시 호출해 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19세기의 문제를 가늠하기에는 일정 정도 나름의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기한 네 작품의 경우 애정전기와 희곡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남녀 애정 관계의 진행에 상당한 파격을 설정하였기에 자칫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

여기서는 19세기를 예비했을 인물로서 이옥(李錡, 1760~1813)의 언급을 먼저 확인함으로써 상호 비교를 통한 저울질의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그는 「이언(俚諺)」의 「아조(雅調)」를 통해서는 애경근검(愛敬勤儉)을, 「염조(艷調)」에서는 교사(驕奢)·부박(浮薄)·과식(誇飾)을, 「탕조(宕調)」로는 창기(娼妓)를, 「비조(悱調)」를 통해 원망(怨望)에 관련된 여성의 행사(行事)와 정조(情調)를 그려내었다고 하였다. 이때 그려진 여성들은 「아조」의 사대부가 새댁, 「염조」의 기생집 드나드는 남편에게 아이 갖길 바라는 부인, 「탕조」의 창기, 「비조」의 자식 없는 난봉꾼 아내이다. 왕가(王家)와 그 주변의 여인들을 제외한다면 조선조 여성 일반의 일상적 생활 면모와 정감을 대략적으로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는 한문학사에서 여성에 주목한 상당히 특별한 사례이다. 물론 향염체(香艷體)와 같은 양식이 존재하지만 작가 의식에서 결을 달리한다. 이는 오히려 당대 여성들의 일반적 현실이지만 드러나거나 드러내기 힘들었던 생활 감정을 작가 자신의 문학적 관점 속에서 그려낸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옥의 사례를 통해 19세기 문학의 한 기준을 잡아보려는 것이다. 다음은 「이언」의 독특한 면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가상의 객(客)을 설정해 이옥 자신의 문학적 입장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다.

“그대는 어쩌서 국풍(國風)이나 악부(樂府) 또는 사곡(詞曲)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필 이 이언을 지었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재자(主宰者)가 있어 시킨 것이다. (중략) 이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천지만물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총괄하여 살펴보면 천지만물은 하나의 천지만물이고, 나누어 말하면 천지만물은 각각의 천지만물이다. (중략) 그러므로 작자라는 것은 천지만물의 한 상서(象胥·역관)이며, 또한 천지만물의 한 용면(龍眠·화가)이라 할 수 있다. (중략) 한 나라도 다른 한 나라와 같지 않아서 각각 한 나라의 시가 있었다. 삼십 년이 지나면 세대가 변하고 백 리를 가면 풍속이 같지 않다. (중략) 부끄러워함직한 것은 천지만물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고 활동됨이 옛 사람에게서 표현되고 활동되는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나의 죄이다.”⁸⁾

6) 한의승, 『19세기 한문중단편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 예컨대 『복상기』의 경우 성행위에 대한 농밀한 묘사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작가, 독자는 물론 작품 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욕망의 구도와 그 실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는 성애 묘사의 파격적 측면에만 주목할 경우 본질과는 다른 논의로 낙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8) 李錡, 「俚諺一難」, 『이옥전집』, 소명출판, 2001. 번역 권2 289~293면, 원문 권3 225~227면. “子何不爲國風爲樂府爲詞曲, 而必爲是俚諺也歟? 余對曰: ‘是非我也, 有主而使之者. (중략) 作之矣, 是誰也? (중략) 總而察之, 天地萬物, 一天地萬物也; 分而言之, 天地萬物, 各天地萬物也. (중략) 是故, 作之者, 天地萬物之一象胥也, 亦天地萬物之一龍眠也. (중략) 一國不如一國, 另自有一國之詩焉. 三十年而世變矣, 百里而風不同矣. (중략) 所可慙者, 天地萬物之所於我乎徘徊者, 大不及古人之所以徘徊天地萬物者, 則此則我之罪也.’”

요약하자면 자신은 지역과 시대, 풍속이 다른 천지만물에 처한 작가로서 자신만의 목소리로 천지만물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가는 천지만물에 대한 역관(譯官)이자 화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학의 전학의 전범이 되는 중국 역대 문인들의 작품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묘출(描出)하면 된다는 것이 이옥의 문학적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이옥은 자신이 처한 이곳의 현실을 그려 내게끔 가렵게 만드는 옥구(蝨)에 대해 “오장육부를 다 기울여 이 이[蝨]들을 쏟아내 놓은 뒤에야 그만둘 수밖에”⁹⁾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드러나 「이언」의 특색은 앞서 이옥이 당대 여성들의 생활 속 감정을 대략적으로 그려냈다고 하였으나, 사실 작품은 조선조 여성의 개별적 국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로써 당대 조선후기 여인들의 전형적 삶에 다가설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당시의 문학적 시야에서 보자면 「이언」은 여전히 여성들의 생활 정감을 소소하게 그려낸 향림체 정도에 불과하여 관심은 물론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옥은 오히려 이 대목에서 자신의 문학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나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찌하여 그대의 이언은 다만 분바르고 연지 찍고 치마 입고 비녀 꽂은 여자의 일만을 언급했는가?” (중략) “대저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에게 대한 관찰은 정(情)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묘한 것이 없고 정에 대한 관찰은 남녀의 정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된 것이 없다. (중략) 오직 이러한 종류의 진정은 어느 경우에도 진실된 것이 아님이 없다. (중략) 그러므로 그 마음, 그 사람, 그 일, 그 풍속, 그 땅, 그 집안, 그 나라, 그 시대의 정을 또한 이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다.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도 이 남녀의 정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더 진실된 것이 없다. (중략) 사람 중에 시경(詩境)에 부합하는 것은 여자보다 더 묘한 것이 없다. (중략) 사람 중에 시료(詩料)에 갖추어진 것은 부인처럼 풍부한 것이 없다.”¹⁰⁾

천지만물을 다루는 문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남녀의 정” 만큼 진실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남녀의 애정 관계에 얽힌 진정만이 “진실(眞)”되기에 이를 문학에서 다루었을 때 사람들의 인사, 즉 삶에 대한 진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그는 ‘인심[心]·인물[人]·행사[事]·풍속[俗]·지역[土]·가정[家]·국사[國]·시대[世]’에 걸친 천지만물의 진정을 남녀의 정에서 드러내었고, 남녀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시경과 시료에 여자와 부인만한 묘함과 풍부함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이옥은 『시경(詩經)』을 끌어와 남녀의 일이 실려 있고, 공부자(孔夫子)가 취택하자 “모씨(毛氏)·정현(鄭玄)·자양(紫陽-주자)과 같은 “순유(純儒)”들이 주석을 달아 ‘사무사(思無邪)’의 ‘선(善)’에 이르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이옥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면죄부를 위해 『시경』 전승의 논리에서 끌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언」을 경서(經書)의 반열에까지 비견하고 있음

9) 이옥, 「俚諺·二難」, 같은 책, 번역 299면, 원문 230면, “吾亦不得不傾倒腸胃, 出此蝨而後已矣.”

10) 이옥, 「俚諺·二難」, 같은 책, 번역 294~299면, 원문 228~230면, “‘何子之俚諺, 只及於粉脂裙釵之事耶?’ (중략) ‘夫天地萬物之觀, 莫大於觀於人; 人之觀, 莫妙乎觀於情; 情之觀, 莫眞乎觀乎男女之情. (중략) 惟此一種眞情, 無處不眞. (중략) 故其心其人, 其事其俗, 其土其家, 其國其世之情, 亦從此可觀, 而天地萬物之觀, 於是乎, 莫眞於觀男女之情矣. (중략) 人之合乎詩境者, 莫女子妙矣. (중략) 人之具乎詩料者, 莫婦人繁矣.’”

을 알 수 있다. 단지 그 결과가 고인(古人)의 솜씨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다.

阿孃送門戒,	친정 어머니 문 앞에서 이르시길
見舅拜勿遽.	“시어른 뵈올 때 조심하여라.”
(중략)	
舅姑見書喜,	시부모 글씨 보고 기뻐하시며
諺文女提學.	언문 여제학이라 하시네.
(중략)	
誓將歸家後,	장차 친정에 돌아가선
不食眠日午.	먹지 않고 한낮까지 잠만 자리.
(중략)	
思家如不禁,	“친정 생각 금할 수 없으면
明日送驪子.	내일 가마 보내겠다 하더이다.” ¹¹⁾

이옥의 아조에는 사대부가 일반에서 맞아들인 며느리의 일상과 마음 씩씩이가 곳곳에 배어있다. 시집보내며 으레 당부하였을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재주에 기뻐하는 시부모며,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시집살이 속의 피로감에 소비(小婢)를 통한 친정 소식 등이 그러하다. 이는 단순히 당시 사대부 가문에서 들인 며느리의 입장에서 사실만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이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친정과 시부모를 비롯한 며느리 자신의 각자의 입장에서 원망(願望)하고 욕구(慾求)하는 대목들이 소담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정에서의 안쓰러움이 소비의 목소리에서 그대로 전해진다. 작품에는 양가 부모의 입장과 며느리 자신의 처지는 물론 남편과의 관계에 이르는 사대부 혼사의 인정물태(人情物態)가 천지만물의 보편성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하겠다.

「염조」에서는 시집 온 지 몇 해 되었을 법한 아녀자의 가지각색 꾸밈새가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어, 이를 자세히 당대 경제사와 비교해 보면 하나의 의복사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작품은 주인공 아녀자의 생활 정감을 묘파해 내고 있다. 아녀자는 남편의 한삼(汗衫)에 찍힌 꽃모양 연지에서 술집이 아닌 창가(倡家)에 다녀 온 낚새를 눈치 채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해준 버선이 기생들로부터 구식이라 조롱받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이웃 노파와 함께 제석신을 찾아가 올해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점치며 자식들과의 단란한 가정을 기원하는 속정이 가득하다.¹²⁾ 아마도 아이가 생겨 제비새끼처럼 키울 모정과 함께 남편이 가정으로 마음을 돌리길 기원하는 아녀자로서의 심정이 아닌가 한다.

歡來莫纏農,	임은 와서 날 사려하지 말아요
農方自憂貧.	난 지금 가난 걱정하고 있어요
(중략)	

11) 이옥, 「雅調」, 같은 책, 306~307면.

12) 이옥, 「艷調」, 같은 책, 309~312면. “歡言自酒家, 農言自倡家. 如何汗衫上, 臙脂染作花. (중략) 白襪菴子樣, 休踏碧粧洞. 時體針線婢, 能不見嘲弄. (중략) 且約束鄰嫗, 明朝涉露梁. 今年生子未, 親問帝釋房. (중략) 郎愛燕雙飛, 農愛燕兒多. 一齊生得妙, 那個是哥哥.”

小俠寶重金,	작은 한량은 금을 중히 여기고
大俠靑綉皮.	큰 한량은 푸른 수 갖옷이라네.
近年花房牌,	요즘 화류계 패두(牌頭) 가운데
通淸更有誰.	통청하는 이 다시 뉘 있는고.
(중략)	
幾處貧士妻,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선비 아내들
鑊飯不入口.	누룽지 밥조차 입에 넣지 못하는데. ¹³⁾

아마도 한창 때의 젊은 빛이 삭으라들기 시작해 생활을 걱정해야하는 초반의 노기(老妓)가 아난가 싶다. 아직도 사람들은 기생의 춤과 노래에 묘하다는 탄성을 연발[妙妙妙]하고, 스님들마저 그녀의 사당가(社堂歌) 소리에 “나무아미타불(那無我愛美-‘내 어찌 미인을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이중의 의미)을 외울 정도지만 작은 한량, 큰 한량에 청환(淸宦)의 자격을 지닌 화류계의 패두를 남아채길 소원하는 것이 본마음이자 현실이다. 더구나 가난한 선비들이 기방을 찾아 나설 때 그 아내들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염조」의 아내를 다시 상기시키며 「비조」의 여인을 만나게 된다.

「비조」의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를 비취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개해 나간다. 가난한 집 여종이 될지언정 이서(吏胥)의 아내는 되지 말고, 이서의 아내가 될지언정 군인의 아내가 되지 말며, 군인의 아내가 될지라도 역관의 아내는 되지 말고, 역관의 아내 될지라도 장사꾼 아내는 되지 말아야 하고, 장사꾼의 아내가 될라면 난봉꾼의 아내는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난봉꾼의 아내였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밤마다 나갔다 돌아와서는 아침부터 술타령에 구박까지 하는데다 아내의 옥비녀까지 훔쳐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인물이다. 이뿐이 아니다.

亂持羹與飯,	국과 밥그릇 사납게 집어다가
照我面前擲.	내 면전에 대고 던지네.
(중략)	
先睡必生怒,	먼저 잠들면 반드시 화내고
不寐亦有疑.	안 자고 있어도 또한 의심 두네.
(중략)	
紅頰生靑後,	붉은 뺨에 푸른 멍 생긴 뒤
何辭答尊公.	무슨 말로 시어른께 답할까?
(중략)	
一身雖可樂,	헤어져 혼자 살면 내 한 몸 편하지만
堂上有公姥.	당상에 아직 시부모님 계시네. ¹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새벽에 들어와서는 자도 깨도 불만에 발길질에 손찌검까지 도리 없는 탕자(蕩子) 그 자체다. 생략한 부분에도 여인의 녀두리는 계속 이어져 지아비 닳을까 무자식을 희사(喜事)로 되돌리고, 수의(壽衣)로 삼으려던 시집 올 때 입은 다홍 치마는 남편의 투전 빛을 갚느라 팔아 버린다. 그럼에도 여인은 ‘혼자 살면 편하련만’이라

13) 이옥, 「宕調」, 같은 책, 313~316면.

14) 이옥, 「悱調」, 같은 책, 317~319면.

는 당시로선 흔치 않았을 이혼의 구상도 감행해 본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당상의 시부모님’에 미친 생각이 그녀의 감행을 저지하고 나선다. 지금의 현실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처지를 보호해 대변해 줄 사회적 장치는 당시에 마땅치 않았다. 이 점에서 「비조」의 여인은 다산(茶山)의 「애절양(哀絶陽)」에 등장하는 부인네만큼이나 서글픈 목소리로 독자 들의 가슴에 애절한 절규가 되어 다가온다. 다산이 『목민심서(牧民心書)』 등의 저술을 통해 심혈을 기울였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남편의 잘린 양근(陽根)을 들고 관아 앞에서 울부짖는 아녀자의 목소리를 비록 유배의 처지지만 치자(治者)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면, 이옥은 자신의 문학적 관점에 따라 작가로서 생활하는 시정의 남녀를 객관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전형을 창조할 수 있었다.

이옥의 말처럼 가탁한 웃음과 울음으로 본심을 숨길 수 있는 그 누구의 상황에 비해, ‘진정’에서 비롯된 여성과 부인들의 감정 유출과 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당대 조선의 그곳 지역에 형성된 인정(人情)의 고하(高下)와 세속(世俗)의 물태(物態)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조선의 일반적 가치 기준이었던 충효와 열절 등의 문제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특별히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천지만물의 ‘진정’을 드러내는 대상을 여성과 부인에서 발견해 묘파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전형성과 부조리를 객관적으로 부조해 낼 수 있었다고 하겠다.¹⁵⁾ 그리고 이는 여성과 부인들의 진솔한 바람, 다시 말해 순수한 ‘욕구(慾求)’의 발로에 그 초점이 놓여있다. 갓 시집은 새댁, 아이를 낳아야 하는 부녀, 뒷자리로 물러나야 할 처지의 기생, 그리고 난봉꾼 아내들의 바람과 욕구가 그것이다. 바로 이들의 욕구와 바람이 하나의 욕망의 목소리로 불거져, 작가 이옥의 객관적 기술 속에 그려짐으로써, 조선 후기라는 동시대 여성들의 저마다의 처지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옥의 문학과 문학관은 1800년 전후로의 종래의 문학적 관습과 함께 하나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여기서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 즉 이옥이 몸담고 살아가던 19세기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가늠의 기준을 여성들의 목소리에서 객관적으로 형상화했던 「이언」과 비교함으로써 세태서사에 그려진 욕망과 애욕의 분출과 수렴을 진단해 보자는 것이다.

3. 19세기 세태서사 등장의 시대적 기반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한문소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 희곡 『백상루기』와 『복상기』는 공교롭게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의 조선에 사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매우 사실성을 갖추고 있어 특색으로 꼽힌다. 한문소설 두 편은 한양을, 희곡 두 편은 각각 평안도 안주와 강원도 홍천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 공간의 사실성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조선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까지도 작품에 등장인물들의 사건에 부합하는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현상은 우연의 결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그간 이옥의 「동상기

15) 이지양은 「이옥의 문학에서 남녀진정과 열절의 문제」(『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457면)에서 이옥 문학의 개성적 특징과 가치에 대해 작가의 급진적 세계관보다는 그 문학적 형상성에 있다고 해야 한다면서 “정(情)을 강조함으로써 이룩해낸 그의 문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 묘사, 절묘한 비유, 독립적 가치판단 등으로 ‘진실’을 형상화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의 형상화 솜씨가 문제의 진실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감동”을 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16) 『포의교집』의 경우 1865년 경복궁 중건과 이듬해 고종과 민비의 가례에 이은 이양선(異樣船)의 출현

(東廂記)』(1791)가 유일하다고 여겨지던 우리 문단의 현장에 성애와 관련된 독특한 성격을 지닌 작품이 출현했으며,¹⁷⁾ 전기(傳奇) 계열에 속하면서도 재자가인(才子佳人)의 출장입상(出將入相)과 관계된 비극적 구도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지닌 한문소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사문학의 현상은 18세기를 거치며 온축된 사회문화적 양상에 대한 표현 욕구들이 이들 작품에 분출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대표적으로 『절화기담』에 남화산인(南華散人)의 서문과 추서에서 언급되기도 한 『금병매(金瓶梅)』와 『서상기(西廂記)』의 존재가 그러하다. 『절화기담』은 물론 『포의교집』도 이들 두 중국 작품과 영향 관계에 있으며, 『서상기』의 경우 희곡이라는 점에서 『북상기』에 연계되고 있다. 또한 『북상기』에는 실제 『금병매』의 상당한 시문 구절들이 작품에 원용되고 있어 직접적 연관 관계를 갖는다. 더구나 『금병매』의 경우 김성탄(金聖嘆, 1610~1661)의 평비본이 읽혔던 사실에서 『절화기담』의 형식이 마련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앞서 언급하였던 이옥의 「이언」에서 이미 『금병매』와 『육포단(肉蒲團)』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류(類)도 모두 음사(淫史)라고만 할 수는 없다”¹⁸⁾고 주장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18세기에는 당대인들의 독서 목록을 비롯해 다양한 언급에서 이들 음사(淫詞) 소설에 대한 탐독 장면이 목격되며, 이덕무의 이들 서적의 폐해를 지적하는 전언에 의하면 “『금병매』가 한 번 나오자 음란을 조장함이 컸는데 소년들은 이 책을 보지 못하면 큰 수치”¹⁹⁾로 여길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그만큼 성애를 다룬 작품을 금기시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감상하는 차원의 독서층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²⁰⁾

마침 서장관이 와서 문을 닫고서 그것을 보았다. 그가 맨 마지막에 또 하나의 그림을 내어 놓자 서장관이 집어서 펴 보니, 첫머리에는 한 소년과 미인이 마주 앉은 그림이었고, 그 밑은 소년과 미인이 사랑의 유희를 하는 모습이였다. 서장관이 그 다음을 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웃으면서, 춘화도 같다고 하였더니, 서장관 역시 웃으면서 그만두었다.²¹⁾

인용문을 통해 볼 때 음사소설을 통한 독서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일본으로의 사행과 통신사행의 과정에서 양국의 향락적 분위기와 관련 문화를 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춘화도 같다고 말하자 웃으며 보기를 그만두는 서장관의 모습에서 이들 역시 춘화에 관한 정보를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 『금병매』와 『육포단』을

이 대표적이며, 『절화기담』에서는 1794년 정조의 화성행궁이 그러하고, 『백상루기』는 1791년 전국적으로 창궐한 전염병을, 『북상기』는 현종 즉위 후의 수렴청정을 추정케 하는 언급 등이 그러하다.

17) 그렇다고 조선조에 희곡 양식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언급한 세 작품이 중국 희곡의 형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창작된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그리고 진작에 중국 구준(丘濬)의 작품이기는 하나 『오륜전비기(伍倫全備記)』를 중국어 역관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청(教誨廳)을 통해 언해의 과정까지 거쳤던 『오륜전비언해(伍倫全備諺解)』가 1721년 간행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홍은희, 「세덕당본 《오륜전비기(伍倫全備記)》 내용 및 형식 연구」, 『중국희곡』 8, 한국중국희곡학회, 2000.

18) 이옥, 「二難」, 같은 책, 298면. “世之所稱淫史, 若『金瓶梅』『肉蒲團』之流, 亦皆非淫史也.”

19) 李德懋, 「耳目口心書」, 『靑莊館全書』 권53, “金瓶一出, 助淫者多, 少年不看此書爲大恥, 害亦至矣.”

20) 이와 관련해서는 김경미, 「淫詞小說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금병매〉를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참조.

21)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권3, 임진(1712) 12월 23일 조. “書狀適至, 遂閉門見之. 最後, 其人又出一畫軸, 書狀展之則初頭畫一少年與美人對坐之狀, 其下又畫少年美女, 而頗有昵狎之態. 書狀欲見其下, 余笑曰: ‘似是春圖也.’ 書狀亦笑而止.” 인용문은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으며, 춘화를 비롯한 조선 후기 성문화에 대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진재교, 「조선조 후기 문예공간에서 성적 욕망의 빛과 그늘-예교, 금기와 위반의 길항과 그 변증법」,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학회, 2008, 100면.

비롯한 음사소설의 유입과 독서에 따른 일련의 기록은 춘화도의 성행과 함께 18세기 조선의 문화적 배경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소설에 대한 사고도 일정한 변화가 있기 마련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원굉도(袁宏道, 1568~1610)와 같은 공안파(公安派)의 『금병매』에 대한 호의적 영향과 함께 조선에 정착하기 시작한 소품문의 유행이 주요하였음이 물론이다.²²⁾ 대표적으로 『금병매』에 대해서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금병매』는 인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재물과 여색, 이해득실에 대해 잘 연의하였다.²³⁾

무엇보다 『금병매』를 불순한 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유만주는 세상의 인정세태[炎涼]를 잘 그려낸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인정세태의 변화로 판단한 근거의 중심에 재물과 여색에 얽힌 인물들의 서사[演義]가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18세기의 유만주에게 있어 『금병매』는 흔히 알려진 음사소설이 아닌 재물과 여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간들의 세태서사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인용문의 언급과는 달리 『금병매』가 인심을 타락으로 이끄는 서적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전하였다. 다산의 경우 모기령(毛奇齡)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의 작품인 「만수전(曼殊傳)」에 대해 “풍정(風情)의 묘(妙)를 극도로 서술하고 섬농(熾濃)한 자태를 다 갖추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넋을 잃고 간장이 녹게 하여 도저히 똑바로 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 하고, 「연상사(連廂詞)」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서상기』의 체법에 『금병매』의 부류로 판정하고 있다.²⁴⁾ 또한 정조(正祖) 21년(1797)에는 역관이 『금병매』와 『수호지』를 구입해 온 것과 관련해 엄히 다스린 사실도 확인된다. 문제는 이 사안이 당상 역관이었던 윤득임(尹得任)이 청나라 말로 번역한 『금병매』와 『수호지』를 구입해 사역원(司譯院)에 바쳤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은전을 입지 못했다고 그 아들 윤홍도(尹弘道)가 상언하자 그에 따른 조처였다는데 있다. 정조는 이들 책이 통역과 관계될지라도 금서(禁書)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상언한 역관의 입장은 달랐다.²⁵⁾

이 대목에서 유만주와 역관들은 물론 다산을 비롯한 정조 역시도 이들 책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관의 경우에는 해당 책에 대해 통역 교재로 인식하였을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는 내용과 관련해 특별한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책을 구입해 바친 것에 대한 포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다산은 비록 비판적 어조로 풍정과 섬농을 갖춰 쳐다보기도 힘들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반대로 풍정과 섬농함을 갖추으로써 독자의 넋과 간장을 녹일만한 작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유만주의 경우 『금병매』를 세태서사로 인정하였고, 이때 이해(利害)의 문제가 주요한 관건인 것

22) 김영진, 「조선후기 명청소품의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장 <조선후기에 영향을 준 명청소품과 그 수용 양상>에 자세하다.

23) 유만주, 『欽英』 丙申(1776) 11월 15일조, 서울대학교 규장각, 260면. “金瓶乃一部炎涼書也. 故首演財色利害.”

24) 丁若鏞, 「跋曼殊傳」, 『茶山詩文集』 권14, “毛奇齡談經說禮, 自命以儒者, 而作「曼殊傳」, 窮極風情之妙, 備盡熾濃之態, 消魂斷腸, 不堪正視. 又作「連廂詞」, 其體則『西廂記』也, 其文則『金瓶梅』者流耳, 安有儒者而爲此作者? 妄攻朱子, 不免爲蚍蜉之撼樹.”

25) 『정조실록』 21년 2월 3일조. <각 해당 관사에 상언(上言) 39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으로 지목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재물과 여색의 추구를 이익으로 그 반대를 손해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의 경과가 염량(炎涼)에 따른 취산(聚散)의 자연스런 추이로 그려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요컨대 재물과 여색에 대한 욕구, 나아가 보다 지나친 형태로서의 욕망에 대한 추이(推移)를 다른 세태서사에의 긍정적 태도이다. 이옥의 경우 여성과 부인들의 애정과 정감에 대해 한 시대의 진정성이 드러남을 주목하였고, 실제 「이언」으로 그려냄으로써 당대 현실의 남녀 문제가 자연스럽게 반추될 수 있게 하였다.

18세기의 사정이 이렇다면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마련된 남녀 애정에 대한 서사는 아마도 『절화기담』, 『포의교집』, 『백상루기』, 『복상기』와 같은 형태로 드러남이 일견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4. 조선후기 세태서사에 수렴된 애욕과 욕망

지금 주목하는 작품들은 19세기 조선의 시정과 면밀하게 조응하며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 세태서사라고 부를 만하다.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애정서사는 재자가인의 운명적 만남에서 비극적 결말을 통한 세상과의 격절을 드러내는 전기 양식이거나, 출장입상을 통한 복선화음(福善禍陰)의 행복한 결말을 갖는 규방소설이 주류였다. 이에 비해 애정 세태서사는 재자가인의 만남이기는 하나 무언가 미흡한 관계로 설정되거나, 결말 역시 시원치 않게 마무리되고는 한다.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이 유부남과 유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식이 끊기는 결말이고, 『복상기』가 흥천에 사는 여러 차례 진사시에 낙방하다 과거를 포기한 61세 선비와 18세 기생의 만남이며, 『백상루기』 역시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한 유부남 양반이 평안도 안주(安州)의 16세 기생을 만났다 헤어진 후 꿈에서 허망한 해후를 한다는 내용이다. 전대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이나 『구운몽(九雲夢)』·『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비교 대상의 문제로 세태서사를 천출 취급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태서사는 당대 시정의 구체적 공간을 배경으로 동선이 실감나게 그려지며,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건과도 조응하며 현실 감각을 한껏 고조하는 때문이다. 무엇보다 앞서 이옥의 경우에서 살폈듯 이들 서사는 19세기의 세태 속에서 남녀 주인공들의 정감에 집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절화기담』의 이생(李生)은 준수하고 고상한데다 풍채가 좋고 시문까지 잘하는 한 시대의 재자[一代之才子]로 순매(舜梅)는 절세가인[絶世之秀色]이다. 하지만 이들의 인물로서의 설정과는 달리 만남은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아 이생이 거쳐하던 집 앞 돌우물에서 물 길던 순매의 모습에 “한 번 그 얼굴을 본 뒤로 뉘이 나가고 마음이 흔들려 가라앉힐 수가 없었”²⁶⁾던 것으로 시작된다. 뉘이 나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던 이생은 한참이 지나 이런 감행을 한다.

이생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 하고 말했다.

26)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2003, 41면. “李生一見其容。魂飛意蕩，不能定情。” 이하 해당 페이지만 제시한다.

“뜻밖에 노리개 하나로 이미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인생은 물거품 같고 풀 위의 이슬과 같은 것! 청춘은 다시 오기 어렵고 좋은 일도 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 하룻밤의 기약을 아끼지 말고 삼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어떠하냐?”

그녀는 미소만 머금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물을 길더니 바람처럼 가벼웠다.(42면)

서로가 결혼한 처지임을 알면서도 인생과 청춘이 유한하다며 서로 소원이나 이뤄보자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당돌한 도발인데, 순매의 반응이 묘하다. 무슨 뜻인지 모를 미소만 머금었으니 말이다. 두 번째 우물에서의 만남에서도 “은근히 그 뜻을 떠보았다. 그러나 순매는 한 번 웃어 보이고는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43면) 자리를 떠난다. 이처럼 『절화기담』은 재자가인들의 만남이지만 곧바로 결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작품은 영리하게도 이들이 만남을 순매가 전당으로 맡긴 “대나무 그려진 은 노리개[畫竹銀佩]”의 행방을 하나의 신물(信物)로 삼아 천천히 지속시킨다. 그리고 신물인 은 노리개의 행방을 창두(蒼頭)에서 이생으로 다시 창두로 옮겨가며 주인공들의 만남에 애간장을 녹인다. 여기에 남녀의 애정을 중매하는 술집 노파(老婆)를 더함으로써 두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맡겨 은 노리개를 통한 만남의 서사를 이어간다. 독자들은 이생의 한 차례의 당돌한 도발과 또 한 차례의 은근한 떠보기에, 그리고 다시 순매의 은 노리개가 손안에 들어왔다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 애간장이 어떠하였을지 숨죽이게 된다.

이제 중매장이 노파가 등장하여 순조로운 만남의 서사로 이어질 듯싶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난관이 등장한다. 노파가 제시하는 세 가지 어려움[三難]인데 첫째는 순매 자신이고, 둘째는 나쁜 점만 많은 이모 간난인데 꼬시기가 어렵고, 셋째는 남의 동정을 잘 엿보고 말을 믿기 힘든 여종 복련이라는 것이다.(44면) 이들은 여기저기로 오가며 집밖의 순매에 대해 호시탐탐 간섭이라면, 이에 더해 순매의 사나운 남편은 집안에서 조그만 틈도 내기 힘들게 만든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노파는 어렵사리 두 사람이 마주할 기회를 마련한다.

“낭군께서 저를 그리워하고 잊지 않으심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목석 같은 마음이라 해도 어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낭군께서는 이미 아내가 있고 저에게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처럼 깨끗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건 한스럽지만, 탁문군이 스스로 사마 상여를 찾아갔던 일과 같은 것은 정말이지 저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생각이야 이렇게 간절했지만 낭군을 미처 뵈기 전엔 오히려 욕하고 꾸짖으며 멀리 하실 것만 같았으니 어찌 감히 얼굴을 들고 상공께 어여쁘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49~50면)

그 만남에 드디어 순매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놀랍기 그지없다. 자신도 이생의 마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문군처럼 이생을 따라 나서고 싶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아내와 남편을 둔 처지였고, 자신의 행동에 이생이 멀리할까 싶었다는 것이다. 여자인 순매의 처지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염려이자 걱정 때문에 만남이 늦어진 것이다. 앞서 순매의 웃음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다. 이렇게 어렵사리 성사된 만남에 어깃장을 놓는 건 역시나 간난이었다. 두 사람의 그믐날 저녁에 만남을 들킬 뻔한 위태로운 순간을 노파가 떡을 찌준다는 기지로 모면한 것이다. 그런 다음의 이생의 모습이다.

만나기 전에는 그리움만이 더욱 절실했으나, 막상 만나고 나서는 기쁨이 극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기 헤어졌으니 걱정 근심 외에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통행금지까지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자 도리어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54면)

만남에의 그리움과 기쁨은 오간데 없이 걱정과 근심의 두려운 마음에 소름까지 끼칠 정도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순매와의 만남을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여긴다. 작품의 전체적 서사를 보자면 이생과 순매의 여수룩해 보이는 만남은 엇갈림, 간난, 복련, 남편, 주인댁 일, 화재, 노파와 순매의 와병, 통행금지 등등의 사소하고도 우연한 일들로 자꾸 어긋나고 미끄러져 마치 독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려는 의도적 설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남화산인도 “첫 번째 기다리다, 두 번째 약속하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났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는 서사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3장으로 구성된 장면 전환에서는 “아름다운 기약이 어찌 될지 참으로 알 수 없다. 다음 회를 보면 알 수 있다.”(51면)거나, “불이 무슨 연고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면, 다음 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마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애정 세태소설로서의 『절화기담』의 미덕을 발견해야 한다. 『절화기담』의 세태서사는 누구도 몰래 두 사람만의 밀회를 성사시키려 상대방에만 집중하며 순수할 것만 같았던 애욕의 서사에, 간난이라는 불순물이 등장함으로써, 일순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성하도록 만드는 엄연한 현실의 존재를 각성시키기 때문이다. 이생은 절세가인을 얻으려는, 순매는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노파는 술집과 중매를 겸업하는, 간난과 복련은 인간 기질에서 비롯된 기회주의로, 창두는 전당 소일로 저마다의 욕구와 욕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녀주인공의 애정 서사를 현실 속 다양한 인간관계와 어긋남의 세태로 운영해 내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순매는 이런 발언을 꺼내는 데 이른다.

“제 팔자가 기구하고 험해서 남편이란 자가 착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부부지, 사실 원수지요 말만 하면 어긋나고, 움직일라 치면 헐뜯기만 합니다. 부부라면 신의를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도타워야 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런 때 낭군께서 또 틈을 타서 이런 만남을 도모하시니, 한 가닥 살아 보려는 마음조차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군요. 비록 훌쩍 달아나 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중략) 지금이라도 부부로서의 의리를 끊고 정을 베어 내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염탐하고 막는 자들이 있고 담장에는 엿듣는 귀가 있으니, 진정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형국이에요.”(82면)

순매는 평소 자신의 운명을 탄식만 했었지만 우물가에서 이생이 건넨 한 마디에 자신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 개인의 마음 속 구석에 자리했던 일종의 욕망이 한 남자의 다른 욕망 섞인 말 한마디에서 짝을 틔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순매는 이생에 대한 마음 뿐 남편에 대한 애정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19세기 조선 사회의 결혼 생활에 속박되었던 여성의 불합리한 현실과 각성을 애정 세태서사의 구성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순매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갇힌 현실을 각성했으면서도, 다시 자신들의 만남을 “이생의 경박한 즐거움”으로 인정하며 현실의 자신으로 돌아와 내세를 기약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기존의 서사 양식들이 비극과 행복한 결말의 닫힌 구도 속에서 일정한 주제를 구현하였다면, 19세기의 애정 세태서사는 등장하는 개인의 욕구와 욕망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각성되어 꿈틀대지만, 이는 다시 어찌해 볼 도리 없는 현실의 닫

힌 사회의 제도 속에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사실 이들이 새벽녘을 기약하며 만남을 추구하던 동안에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눈치를 챘거든요 이제 날이 이미 밝았으니 누군가가 엿들을까 두렵군요. 내일 첫닭이 울 때 몰래 이리로 올 테니 낭군께서도 꼭 먼저 와서 기다려 주십시오.”라며 누군가에게 들킬지 몰라 하면서도 순매 집안 주변의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거의 눈치 채고 있는 상황에서도 만남을 감행한다. 이는 『포의교집』의 양파를 연상케 한다. 오히려 양파는 주변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아는 상황에서 대놓고 만나거나 떠벌리기까지 한다. 순매의 선택과 행동에 비해 보다 극단적인 모습이 『포의교집』의 양파이며, 이는 욕망의 시작점이 남자가 아닌 양파 여성에서 시작되었음에서 오는 차이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양파는 결국 남편의 당연하면서도 극악한 난리에 이런 행동을 감행한다.

이때 양파가 천천히 일어나 칼을 들어 목을 찢러 죽으려 했는데 헛손질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찢으려 할 때 양노인이 놀라 칼을 빼앗겼습니다. 양파가 또 옆에 있던 작은 칼을 집어들자 양노인이 또 빼앗겼지요. 오후 2시쯤이나 됐을까? 양파가 방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시령에 목을 매어 죽으려 하다가, (중략) 그 날 초저녁에 양파가 밖으로 나가 우물에 몸을 던졌지요. (중략) 몸이 미처 빠지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되었답니다. (중략) 그 날 새벽 또다시 우물에 몸을 던져서 물 길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구출해 냈더니 (중략) 이 날 저녁 또 목을 맸으나 시아버지에 의해서 구출되었지요. 오늘 새벽에 또 목을 매었는데 다른 사람이 구해 줘서 살아났어요. 그 뜻을 보니, 반드시 죽기로 작정한 것 같았지요.(184~185면)

사실 조선시대의 결혼 제도가 아무리 여성들에게 불합리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의 여주인공들이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성을 발견해 그들만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은 존재하거나 마련되어있지 않았다.²⁷⁾ 이를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을 지극히 실현하기에는 인용문과 같은 양파의 극단적 행동만이 남은 선택지였기 마련이다. 하지만 작품의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은 그 죽음마저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19세기 조선의 현실에 되돌려진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다시 가슴 속한 구석에 갈무리한 채 이생에 대한 씩씩이 어긋난 간난이의 지독한 감시 속에 만남을 갖지 못하거나,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해 뒤숭숭해진 한양의 피난길에 오르며 주인공들의 만남도 서양풍(西洋風)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5. 세태서사로서의 희곡 양식과 그 갈라짐

한문소설의 세태서사와는 달리 희곡은 양식 자체로 우리 문학사에 상당히 특이한 존재들이다. 기본적으로 연극으로 공연하는 전통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복상기』와 『백상루기』는 독서를 위해 창작되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그렇기에 두 작품의 성애 묘사는 사실 희곡 대본으로서의 특이정보다는 서사 표현 자체의 특수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문소설과는 달리 두 작품은 선비와 기생의 만남이라는 유형을 공유

27) 정환국, 「초옥과 옹녀-19세기 비극적 자아의 초상」,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논문은 초옥 행동이 당대의 시선에서 자유로움으로써 정절관을 뿌리째 흔든 것이지만, 이들의 정당성을 받아 줄 사회는 없었다고 없었던 것으로 진단한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사의 기본 골격은 각각 강원도 홍천과 평안도 안주에서의 사실에 근거한 세태서사라는 점은 동일하다. 『북상기』의 경우 그 대략의 서사는 선비와 기생의 만남과 결연, 상의원 침선비로 뽑혀가는 순옥 속신(贖身), 담배 5백 근 내기 바둑과 순옥의 처신의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순옥을 속신하는 대목은 『포의교집』의 양파가 고종과 민비의 가례에 여령(女伶)으로 뽑혀가자 마침 민궁(閔宮)에 머물던 이생이 위세를 빌려 속신하는 대목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남주인공의 다른 양식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성을 지니지만 희곡의 여주인공은 한문소설의 그들과는 성향이 사뭇 다르다.

본고가 주목하는 대목은 만남과 결연 과정에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욕망이다. 남주인공인 61세의 김낙안(金樂安)은 친구인 본관사또가 자신의 환갑잔치를 마련해 준 자리에서 18세의 순옥을 보고 욕정이 발동한 일반적 모습이다. 다만 “제일 증오하는 것이 ‘골수를 녹이는 호색(好色)’이란 글자였고, 가장 사모했던 말은 ‘마음속에는 기생이 없다’는 정부자(程夫子)의 말씀”²⁸⁾이었던 인물의 변모가 성리학적 인간의 궤절로도 이해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젊음과 미모에 대한 유혹에서 비롯된 욕망이다. 그는 순옥을 얻기 위해 “점잖은 방법으로 안 되면 무력”(49면)도 불사할 심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첫 번째 서사의 문제는 “내(김낙안-인용자)가 저에게 은근히 관심을 둔 낚새를 눈치 채고서 내게 마음이 없음”(39면)을 표방했다는 데 있다. 말없는 미소느커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주인공을 기생 신분 일반으로 볼 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리 나이가 많다하더라도 본관사또 친구의 소실(小室)을 마다한 것이다. 수양어머니인 봉래선(蓬萊仙)도 “네가 한결같이 늙은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불 속에서 그 물건이 벌이는 멋진 풍류를 탐하는 것뿐이다.”(56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순옥의 욕망의 발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녀의 욕망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 “부모님께서 나를 팔아 돈을 갚았기에 할 수 없이 기방에 갇힌 몸이 되었지. 몸을 깨끗이 하고 붉은 점을 지켜서 한 가지 숙원을 이루려고 애썼”(44면)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북상기』의 서사는 “먼저 그로부터 맹세를 받아두고 네 몸을 허락하자.”(57면)는 이 한 마디에 중점이 놓여 전개 된다. 이는 순옥에게 있어 지상명령과도 같아 다음과 같은 발언에 이른다.

만약에 뜻한 바와 어긋난다면 모가지에 칼을 씌운다고 해도 칠보(七寶) 금비녀로 볼 것이고, 십 년 동안 옥에 갇혀도 열 겹의 향기로운 규방으로 삼을 것이며, 때때로 고문을 가해도 맛있는 팔진미(八珍味)처럼 달게 여길 것입니다.(68~69면)

자신의 욕망이자 의지를 꺾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모진 고문이라도 달게 여기겠다는 말이다. 어쩌면 “칠보 금비녀”로 치장을 하고 “향기로운 규방”에 자리를 잡고 “맛좋은 팔진미”를 먹을 수 있는 정실(正室)만이 기녀 순옥의 최대 관심처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아름답고 편하며 배부른 물질적인 것만을 구한 것은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순옥은 “육례(六禮)를 갖추지는 못해도 삼종의 예를 따르기로 이미 맹세”를 해서야 자신을 허락할 심산이다. 수양모가 “열여덟 해 동안 기방에서 붉은 점 하나를 고이 지켜온 지고한 행실을 남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지적하였듯, 순옥의 욕망은 기생으로선 가당치도 않을 망상

28) 동고어초 지음, 안대회·이창숙 역주, 『北廂記』, 김영사, 2011, 40면. 이하 면수만 밝힘.

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순옥의 결심을 헛된 희망으로 취급하기에는, 이 역시 그녀를 기생의 제도 아래 가두는 판단이 되고 말 것이다. 사실 순옥의 허황되어 보이는 욕망의 발로는 조선조 기생 제도의 혼한 현실에서 싹튼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진작부터 맹세코 폐부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그가 만약 저를 기생으로 대접하여 한두 번 욕정을 풀고 난 다음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신세를 크게 망치는 꼴이 아니겠어요?(56면)

그녀의 폐부 속 깊이 다짐해 둔 그것. 자신의 신세를 망치는 꼴을 그녀는 기생들 일반에게서 자주 봐왔을 것이다. 바로 ‘기생 대접’, 아니 김순옥을 김순옥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닌 ‘기생 취급’하는 일상적 현실이 조선 전반에 실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금옥은 자신을 침선비에서 빼내어준 은혜에 보답코자, 바둑 내기였던 “담배 5백 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의 몸이 되기로 한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것이 있었다.

다만 저는 몸이 팔려 남의 종이 될지언정 남의 첩이 되지는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선생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몸을 팔아 내기를 해결해야지요. 그런 후에 귀천이고 원근이고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광주리를 잡든 부엌대기가 되든 맡겨야지요.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오로지 희첩(姬妾) 두 글자가 귀에 들어오면 바로 우물바닥에서 가라앉은 진주를 찾고, 시렁 앞에서 낙엽을 쓸어야 할 것입니다.(183면)

자신을 인정해 준 낙안 선생에 대해 보답하는 일이니 종이 되더라도 원망하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남의 첩, 희첩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런 처지에 떨어진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복상기』의 전편에 걸친 이와 같은 순옥의 한결같은 발언이야말로 작품의 종지가 아닌가 한다. 이 점에서 한문소설이 여성들의 원망(願望)을 끝까지 추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도달한 결론과 달리, 『복상기』의 기녀 순옥은 자신의 욕망을 관철한데다, 삼종지도의 맹세를 얻고 자비를 들여서라도 침선비에서 속신케 해주었던 낙안 선생이 있었기에 내기 문서를 파기함과 동시에 일정 정도의 낭만적인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²⁹⁾

이 점에서 『백상루기』는 “남주인공의 소심하고 고뇌하는 내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와 과장의 수법을 적절하게 운용”하며, “과장된 묘사를 통해 남주인공을 일정 정도 희극적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에 비해 영혜는 그의 내면 감정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못”한데다 “기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감정을 일부 읽을 수 있지만, 작품 후반부에 갈수록 그 같은 감정과 심리에 대한 묘사는 찾기 힘들”³⁰⁾다는 점에서 남녀주인공의 재회가 입장춘몽의 결말로 낙착되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요컨대 주인공들의 욕구가 순수한 애정의 국면에서 ‘진정(眞情)’으로 묘출될 때 자신의 욕망으로 구체화된 세태서사는 현실 논리에 합당한 결말을 구성할

29) 이와 같은 『복상기』의 서사적 진행과 결말은 어쩌면, 조선에는 공연 문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공연이 불가능한 음사(淫事)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에 대한 상정을 깊이 염두에 두었을 태생적 요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한다.

30) 정우봉, 「미발굴 한문희곡 「백상루기」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322-327면.

수 있었던 것이다.

6. 욕망의 논리와 남은 문제들 -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조선조 전반에 펼쳐진 욕구와 욕마에 대한 층위로부터, 19세기를 예비한 문인 이옥의 문학관을 펼친 「이언」을 통해, 『금병매』와 같은 음사소설에 대한 조선의 반응으로 형성된 19세기 애욕의 세태서사를 진단해 보았다. 이로써 조선후기 여성들의 '진정'을 그려낸 농밀한 세태와 그에 게재된 욕망의 서사는 조선조 사회의 생활 현실 속에 만남과 어긋남 속에 표출된 『절화기담』과 자신이 정한 욕망에의 멈추지 않을 듯한 선택을 보여준 『포의교집』으로 한문 세태서사의 기념비적 작품이 완성되었다. 한편 희곡이라는 양식적 특성의 한계 속에서도 『백상루기』에 비해 현실성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욕망을 꿈꾸고 실천한 『복상기』는 기녀들의 현실을 낭만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이는 이전의 문학 양식에서 벗어난 서사형식을 창출함으로써 조선후기 일상의 현실에서 움직이는 인물에 유의하여 그 실상을 세밀하게 그려낸 19세기 세태소설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욕망을 드러내는 새로운 한문 세태서사의 등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 인물들의 욕망은 순연한 주인공들의 욕망과 욕구인지는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세태서사에는 원작자와 함께 평비자, 서문을 쓴 인물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절화기담』의 석천주인과 남화산인, 『포의교집』의 정공보, 『복상기』의 동고어초와 봉곡(鳳谷)의 친구, 『백상루기』의 정상현이 그들이다. 이들이 그려낸 등장 인물들의 욕망은, 혹은 그들의 욕망을 이들은 어떻게 주시하였던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그 일단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절화기담』의 남화산인은 “술과 여자와 재물과 호기는 선비나 군자라도 절제하기 어려운 것”(31면)이라면서도 “이는 모두 그들이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이 있어 싹튼 것”이라 한다.(32면) 기본적으로 석천주인의 경험이라며 언급한 것이기에 남화산인은 이들의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인 욕망의 존재를 인식한 듯하다. 그러면서도 “기이한 이야기와 불거리는 예로부터 끝이 없을 정도로 많지만 만약 써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라져 전하지 않으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32면)고 하여 작가의 존재를 중요시하였다. 마치 이옥이 주재자인 천지만물이 자신에게 글을 짓도록 만들었다는 언급에 오버랩 되며, 이는 이 시기 세태서사의 새로운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해도 될 법하다.

그리고 남화산인은 자신의 논지를 펼치며 “옛말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된다.’”(34면)고 하였는데, 석천주인은 하나의 욕망론에 해당할 언급을 남기는 데 이에 대한 분석을 풀지 못한 숙제로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람의 정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알 수 없으니 잊을 수도 그만 둘 수도 없는 것이 있고, 예측할 수 없으니 곰곰 생각할 수록 그 일을 다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은 인연에서 시작되고, 일은 작은 기미에서 시작된다. 인연이 없다면 정이 어디에서 생겨나며, 기미가 없다면 일이 무엇에서 비롯되겠는가? 기미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일이 일어나고, 인연이 조금이라도 싹터야 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미가 있어 움직이고 인연이 있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또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싫고 좋음과 울

고 그림도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음이 없고, 이해와 고락도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음이 없다.(35면)

어짚과 지혜와 용맹과 지략이 당대에 우뚝한 자라 해도 수레를 돌려 길을 되돌아가지 못한 채 끝내 앞에서 이야기한 바 '점점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뒤에야 그만두니, 두렵지 아니한가!(36면)

의적 혹은 도적설화를 통해 본 하위주체의 욕망과 재현의 의미

서유석(경상대학교)

1.

하위주체는 욕망할 수 있을까? 하위주체가 서발턴(Subaltern)과 같은 개념이라면, 하위주체는 욕망할 수는 있어도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널리 알려진 스피박의 논의대로라면 서발턴(하위주체)에게는 자신들의 경험과 입장이 대변될 수 있는 사회 주류적인 언어 혹은 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수용될 수 없다. 하지만 하위주체가 욕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뿐더러, 곳곳에서 재현(representation)되는 그들의 모습을 간과할 수도 없다.

욕망할 수는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의 모습이 포착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사실 다른 존재들에 의해 재현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처음 서발턴이란 개념이 그람시에 의해 정립될 때부터, 서발턴은 지배계층의 헤게모니(Hegemony)에 종속되어 있는 하층계급을 의미했기에 그 범주는 생각보다 넓다.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계층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두 '서발턴(하위주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헤게모니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은 모두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에 의해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현(representation)은 권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존 베벌리는 하위주체연구는 권력을 다루며,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획득해 가는 이와 잃어 가는 이들을 연구하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헤게모니 혹은 권력은 재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재현은 인식론적 권위를 가진 혹은 헤게모니를 강화할 수 있는 것과 권위나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것으로 구분 가능하다.¹⁾ 다시 말해서, 하위주체의 욕망이 재현되는 데에는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것과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것의 뚜렷한 차이를 예상해볼 수 있을지 모른다. 똑같은 대상을 재현한다 할지라도, 그 재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같은 대상 재현의 의미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전승되고 있는 도둑/도적이야기가 한편 있다고 하자. 같은 도둑/도적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전승 주체의 계급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도둑/도적 이야기는 의적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이나 윤리를 강화하는 이야기로 변화하기도 한다. 실록 속 문가학은 명칭한 이인이며, 사기꾼인 동시에 역적이지만, 지역 내 사찬 지리지에서는 의적에 가까운 신기한 도둑이고, 구비설화 속에서는 지역을 대표할만한 뛰어난 이인이다.²⁾

1) 존 베벌리, 박정원 역,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43쪽. 사실 베벌리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논의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스피박의 논의를 통해 더 정확히 공식화될 수 있다. 만약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하위주체(서발턴)들은 더 이상 하위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서유석, 「문가학 이야기의 허구화 양상과 그 의미: 가능세계 의미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계서야담 속 김진사는 逸士에 가까운 형상을 보이고 있다가 도적떼의 우두머리가 되고, 의적 활동을 펼치지만, 결국에는 도적떼를 모두 양인으로 돌리는 당대 사회의 이념을 쫓는 결말을 보여준다.³⁾ 하지만 전승주체가 바뀌어도, 이야기의 변개 없이 그대로 전승되는 경우도 있다. 소위 ‘김진사이야기’로 불리는 이 야담은 구비문학대계에도 전한다.⁴⁾ 이 화자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20년전 들은 이야기를 구술하는데, 실제 야담 기록과의 편차도 분명하지만, 이야기의 결론이나 똑같다. 전승주체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즉 조선후기 양반이라는 지배계층에 의한 전승이나 1980년대 향촌의 촌로의 전승이나 그 재현 내용은 동일하기도 하다.

그러나 재현된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전승주체가 다른 두 이야기를 같은 층위에서 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 앞서 살핀 것처럼 어떤 ‘재현’을 헤게모니를 강화할 수 있는 것과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조선후기 형조판서, 대사헌 등을 역임한 이희준이 보여주는 ‘재현’과 촌로의 ‘재현’의 의미망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진사는 소위 도적질 혹은 의적질로 이름을 얻어갈 수 있었으나, 그 재현 대상인 도적/의적들은 그저 투명해질 뿐이다. 그들이 가진 욕망은 이야기의 결말이 보여주는 당대 사회의 유교적 도덕과 윤리 하에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주인공 김진사도 투명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이인의 풍모를 살짝 엿보이던 김진사는 이상한 상황에서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고, 소위 의적활동을 통해 사회 모순을 직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교적 도덕과 윤리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김진사와 도적 혹은 의적떼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욕망은 투명해진다. 더 나아가 이를 재현한 재현 주체들도 당대 사회의 도덕과 윤리 하에서 자신들의 정확한 욕망을 말할 수 없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⁵⁾

이에 본고는 ‘재현’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의적 혹은 도적설화에 등장하는 하위주체, 즉 재현의 대상인 의적 혹은 도적이라는 하위주체의 욕망이 정말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를 조심스레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스피박이 주장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란 논의는 사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바탕으로 기존의 서발턴 연구 그룹에 제기한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우리 현실, 특히 고전문학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편차가 분명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서발턴, 즉 하위주체의 ‘재현’에 관한 문제는 다르다고 본다.

스피박은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 나오는 vertreten(대리하다, 대표하다)과 darstellen(표현, 재현, 묘사, 서술)의 유희에 주목한다. 맑스는 위의 논의에서 소자작농들은 “스스로를 재현(대표)할 수 없다. 그들은 재현(대표)되어야만 한다. 그들의 재현자(대표자)는 그들의 주인이자 그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 그들을 다른 계급들에게서 보호하며 비와 햇빛을 보내는 무제한적인 정부 권력 모두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소자작농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 최후의 표현을 사회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집행력에서 발견한다.”라고 설명했다.

3) 이희준 편찬, 유화수·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도적의 무리를 이끈 선비」, 국학자료원, 2003.

4) 김선풍 외, 「산적 두목이 된 김진사의 양심」, 『한국구비문학대계』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765~774쪽.

5) 스피박은 이 투명함이 하위주체를 재현하는 지식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로절린드 C. 모리서 엮음, 가야트리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410쪽.

이는 결국 소자작농들(소위 서발턴 혹은 하위주체들)과 재현자(루이 나폴레옹) 사이의 간극을 인지하는 모델이다. 스피박은 이 소자작농들이 이해관계의 동일성이 하나의 공동체 감정, 즉 국민적 연계들이나 정치적 조직을 생산하는 데 실패한다고 본다. 거친 이해일지 모르나 루이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재현자는 소자작농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는 셈이다.

물론 한국고전문학을, 그것도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발표문에 맑스가 논의하는 계급의 문제, 계급 분리의 이질성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맞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하위 주체의 재현과 그 재현의 의미를 “정치에서처럼 누군가를 대변(speaking for)한다는 재현(vertreten)”과 “예술이나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시-제시(re-presentation)으로, 즉 재현(darstellen)”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스피박의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하위주체라는 존재가 욕망을 드러내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언어나 제도를 갖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주목하고,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예술적 의미의 구분에 주목한다면, 고전문학 속 하위주체들의 목소리가 대표되는 것인지, 혹은 재현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을 통해 하위주체의 욕망을 정말 제대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혹은 들을 수 없는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앞서 지적한 『계서야담』의 도적/의적담을 살펴본다.

- ① 김진사는 지략이 있었으나 집이 빈곤하고, 기상이 큰데도 뜻을 얻지 못해 항상 우울하다.
- ② 친구와 함께 상가에 가기로 했고, 어떤 사람이 말을 보내 타고 가게 된다.
- ③ 말을 달려 성을 나서지만, 행차는 상가로 향하지 않고, 김진사는 의문을 제기한다.
- ④ 주야로 말을 달려, 멀리까지 나갔더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인가가 있는 동네에 이른다.
- ⑤ 도적의 괴수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자기의 자리를 물려받기를 권한다.
- ⑥ 도적의 괴수는 그간 탐관오리의 재물과 인색하여 베풀지 않는 부자의 재물만을 탈취함을 강조한다.
- ⑦ 김진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도적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영흥 주진사 집을 털기로 결정한다.
- ⑧ 김진사는 감사의 비장처럼 꾸며 주진사를 속여 함께 자다 그를 인질로 잡아 재물을 털다.
- ⑨ 함흥의 중군으로 꾸며 석왕사를 털다 관군이 진입하자, 몇몇의 도적을 승려로 위장시켜 탈출에 성공한다.
- ⑩ 몇 년간 도적질에 크게 성공하나 도적들을 설득하여 그간 모은 재물을 나누어 주고 양민으로 귀향시키고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간다.

계서야담의 편찬자는 이희준 혹은 이희평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목해야할 지점은 이희준이 형조판서, 예조판서, 대제학을 지낸 최상위층 양반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동생이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그의 형 이희평 역시 최상위 지배계층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소위 권력과 헤게모니를 손에 쥔 지배계층이며, 그를 통해 혹은 그가 편찬한 『계서야담』 속 김진사 이야기, 더 나아가 의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도적 이야기를 ‘대변(speaking for)’의 의미를 가지는 재현으로 본다면, 당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야기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당대의 지배계층이며,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이희준에게 이 이야기는 자신의 권위와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재현이다. 당연히 이 재현 안에서 도적의 괴수, 도적떼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재현 대상인 김진사 역시 자신의 욕망과 목소리를 드러낼 수 없다. 그 역시 편찬자의 대변 안에서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지략은 있었으나 가난했고, 기상이 큰데도 뜻을

언지 못한 불우한 처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야기를 ‘다시-제시(re-presentation)’라는 ‘재현’의 의미로 읽어도 비슷한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군도가 넘쳐나는 당대 사회의 모습, 능력은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불우한 선비와의 조합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적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예상 외다. 당대 사회의 도덕과 윤리에 철저히 함몰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진사는 의적 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성공한 도적질과 도둑 괴수의 자리를 스스로 내놓는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도적을 양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직 유교적 도덕과 윤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라면 당대 사회의 모순은 무화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결말을 ‘대변(speaking for)’로 봐도 마찬가지다. 이희준이라는 편찬자는 하위주체(김진사와 도적들)의 대변자가 아니다. 만약 양민이 되고 싶다는 하위주체들(김진사와 도적들)의 뜻을 양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말로 대변하고 있다면, 이는 위정자인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는(스피박식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투명해지는) 결과만을 낳기 때문이다. 결국 하위주체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계몽모니를 쥐고 있는 최상위 양반의 ‘재현’에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담을 곳은 당연히 없기 때문이다.⁶⁾

3.

같은 도적/의적담이라도 재현 주체가 소위 하위주체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찾아볼 수도 있다.

활빈당(活貧黨)이라. 가난한 사람을 살린다고 그 당이. 그래 활빈당이라 쿠지, 그기. [조사자 :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그 때 그 활빈당 대장이저어 맹개목이라 이러 쿠대. [강조하여] 맹개목 맹간데 [조사자 : 맹개목?개목 벼슬이제. [조사자: 개목이라고 우찌 씩니까?] 몰라. 맹개목이라고 키가 조그맹더라 쿠대. 조그맹은데, 그 때 우리는 나도 안 할 때고. [조사자: 나도 안 할 때 거짓말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그래가지고 거어 와서 부자집에 와서 모도 얻어가지고 말이지, 부자집에 와서 돈 내 놓으라고 받아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 집에 가져 가서 뭐 얻어 묵는 사람이든지 어데가 늬가 어럽은 사람 많이 그래 마 나뉘가 주고 모도 그래 안 했나? 그래 했다 쿠제. 그래 뭐 사방 신반뿐 아니라 사방 땡기임서 (다니면서) 모도 그래. [조사자: 그렇는데, 털어묵은 이야기 곁은 거느 없읍니까?] 털어묵은 거는 그땡기임서 그래 인자 안 주문 그 집에 뭐 살림살이를 절단을 내거든. [조사자 : 절단낸 이야기 곁은 거느 없읍니까?] 다른 거는 모르고. 그래서 그 집에서 오몬, 부자집에서, 부자집에 들어오몬 말이지, 들어오몬 돼지도 잡아주고 술도 주고 모도 많이 이래 대접 잘 하고 잘 하고, 또 갈 때 돈도 또 쥐어서 내주고 모도 이래 했어. 그래 저거는 받아가지고 저거 다 땡기임서 씩는 기 아이라 저거는 땡기임서 거저 또 얻어묵고 씩는 기 아이라, 모도 없는 사람을 그 때 구환을 안 했나?⁷⁾

6) 도적/의적의 재현을 재현 대상을 지시하고 의미화하고 가치 판단하는 개념을 조작하고 확정하는 권력의 시선과 관련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아래의 지적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에 이른다. 재현을 권력과 제도의 문제에서 접근해도, 하위주체의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스피박의 논의처럼 사실 하위주체가 목소리를 가지게 되면, 그때는 이미 하위주체가 아니다. 이영배, 「도둑 표상의 문화적 의미와 민중의 감성적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08, 104쪽.

7) 정상박, 유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80~81쪽.

경남의 의적이라 불리는 맹개목에 대한 위의 구술에 서사는 없다. 그냥 맹개목이 의적이었다는 설명뿐이다. 사실 의적이란 표현도 등장하지 않는다. 활빈당이라 불리는 존재. 구술자가 재현하는 맹개목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아무런 서사 없이 그저 활빈당이었던 저 발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구술자는 맹개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시-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서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구술자가 구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맹개목 이야기를 꺼냈는지도 불분명하다.⁸⁾ 하지만 맹개목 이야기는 한 편을 더 찾을 수 있다.⁹⁾

- ① 의령에는 남씨(의령 남씨)들이 많이 살지만, 지금은 많이 찾을 수 없는데, 남향수와 맹개목 때문이다.
- ② 향수를 맡고 있는 남씨가 하나 있었다. 도적떼가 들끓었는데, 서울까지 세금을 가져다 바치라는 명령이 남향수에게 떨어졌다.
- ③ 남향수가 세금을 안전하게 서울에 전하지 못하면, 같은 의령 남씨들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남향수는 스스로 죽을 결심을 하다.
- ④ 그 당시 맹가목(맹개목)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남향수는 자신을 풀어달라는 맹가목의 요청을 들어준다.
- ⑤ 맹가목을 위해 관문에 불을 지르고, 탈출구를 열어준다. 맹가목은 남향수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말한다.
- ⑥ 남향수는 죽을 결심을 하고 식음을 전폐한다. 그때 맹가목이 찾아온다.
- ⑦ 맹가목은 자신을 믿고 서울로 세금을 운송하라 전한다. 이에 남향수가 맹가목을 믿고 단식을 끊자, 많은 의령 남씨들이 화를 피하기 위해 의령을 떠난다.
- ⑧ 남향수가 세금을 잔뜩 싣고 길을 떠나고, 곳곳에서 도적떼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맹가목이 나타나서 도적질을 못하게 막는다.
- ⑨ 남향수는 무사히 서울까지 세금을 운송하고, 귀한 중국 비단을 상으로 받아온다.
- ⑩ 의령에 남씨가 많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분명 도적담에 속하지만, 동시에 은혜담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트릭스터담으로 읽을 수 있는 요소도 충분하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 것인가? 설화를 재현하는 주체는 ‘남씨의 본향인 의령에서 남씨들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재현 주체가 맹개목을 소위 ‘의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동시에 도적떼가 들끓었다는 상황, 즉 재현되는 대상인 맹개목과 남향수의 고난과 모순에 대해 구술자인 재현 주체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는 분명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변(speaking for)’이라기 보다는 ‘다시-제시(re-presentation)’에 가깝다. 앞선 맹개목의 이야기가 아무런 서사 없이 무조건 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1980년대에 재현된 의적의 이야기에서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이렇게 도적담 안에 은혜담과 트릭스터담이 함께 있는 구조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재현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도적떼가 들끓었다는 사회모순 속에서 은혜를 갚아야한다는 윤리와 도덕에 투명해진다. 결국 맹개목으로 대표되는 의적 혹은 도적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긴다. 왜 이들에게 ‘의적’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구비설화 속 도적/의적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한다. 역시 이 이야기에도 도둑 이야기에 ‘의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에서는 구술자가 스스로 재현 대상

8) 『구비문학대계』의 서술 상황에는 의적에 관해서 물었더니 맹개목이란 의적이 있었다는 것만 구술했다고 적어놓았다.

9) 정상박, 유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05~110쪽.

을 의적(활빈당)이라고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¹⁰⁾

- ① 옛날에 도둑질 잘하는 이칠성이란 사람이 있다.
- ② 포도대장이 이칠성을 도저히 잡을 수 없어, 이칠성을 데려다 자기 부부가 깔고 자는 요를 훔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③ 이칠성은 언제든지 훔칠 수 있다 자신하고, 포도대장 내외는 매일밤을 뜯는으로 지새며 자신들의 요를 지킨다.
- ④ 사흘 밤낮동안 잠을 못잔 포도대장 부부가 굶아 떨어지자, 이칠성은 몰래 두 사람이 깔고 자는 요를 훔쳐온다.
- ⑤ 포도대장은 이칠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인은 하지말고 마음껏 도둑질을 하도록 허락한다.
- ⑥ 이칠성은 사실 활빈당(의적)이다. 도둑질을 해서 없는 사람을 돕고, 항상 부잣집만 텃다.
- ⑦ 이칠성이 유일하게 못 텃 집은 해남 옥천의 윤진사집이다. 이 집을 텃기 위해 이복의 도적인 이팔구월이와 힘을 합친다.
- ⑧ 윤진사 집의 수채구멍을 넓게 뚫어 이칠성이 들어가 물건을 텃어 밖에 있는 이팔구월이에게 넘겼다.
- ⑨ 이칠성이 탈출하려 할 때, 의심이 들어 이불을 돌돌 말아 수채구멍에 넣었더니 이팔구월이가 독으로 그 이불을 찼다. 죽이려 한 것이다.
- ⑩ 이칠성은 탈출을 포기하고, 집안을 살피다가 윤진사의 딸을 발견하고 정을 통한다.
- ⑪ 윤진사의 딸은 이칠성이 앞으로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보고, 그와의 연분을 허락하고, 이칠성을 서울로 보낸다.
- ⑫ 서울로 도둑질을 하러 간 이칠성은 가난한 집에서 굶어죽기를 기다리는 노부부를 발견하고, 떡을 훔쳐 배고픔에서 그들을 구한다.
- ⑬ 그래도 그 노부부의 삶이 나아질 수 없음을 깨달은 이칠성은 영의정 집에 가서 금덩어리를 훔쳐 노부부에게 몰래 건넨다.
- ⑭ 노부부가 금덩어리를 팔러 나가자 도둑으로 몰려 잡히고, 이칠성은 자수한다.
- ⑮ 임금이 이칠성을 보고 장군감임을 알아보고, 병조판서를 주고, 이칠성은 윤진사 딸을 불러 혼인한다.
- ⑯ 이칠성은 자신을 죽이려했던 이팔구월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팔구월이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린다.
- ⑰ 이팔구월이는 스스로 자수하고, 이칠성이 결혼하고, 병조판서를 제수 받게 된 것은 모두 자기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 ⑱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긴 이칠성은 이팔구월이를 자기 부하로 삼는다.
- ⑲ 도둑질을 하더라도, 선하게 해야 한다.

이 이야기 역시 도적/의적담의 경계 안에서 지혜담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팔구월이의 계락을 알아챈 이칠성의 모습 때문이다. 또한 당당한 도적의 모습에서 이인의 품모를 찾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이 이야기 역시 당대 사회의 도덕과 윤리에 얽매어 있다. 구술자는 분명 이칠성을 활빈당이라고 주장하고, 이칠성의 행동은 의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구술자가 재현하는 의미는 ‘다시-제시(re-presentation)’이지 이칠성의 이야기가 이칠성을 위해 말하는 정치적 대변행위로 읽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대 사회의 도덕과 윤리(아무리 활빈당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와 같은 훈육적 지식의 대상에 대한 유사 재현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구술자의 재현 행위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위주의 이야기인 민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재현은 권위나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구술자 스스

10) 박순호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79~88쪽.

로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재현 대상에 대한 정치적 대변자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철성이란 도둑이 의적임을 강조하는 대목이 생각보다 길게 재현되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풍운아, 혹은 이인에 가까운 이미지가 강할 뿐, 도둑이라는 하위주체가 드러내고자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제시한 의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도둑이 아닌 의적은 존재하는 것일까? 오히려 본 발표자와 같은 문학연구자들은 의적의 이야기를 찾아서, 아니 의적이야기를 만들고 발굴하여, 도적 혹은 의적이라는 하위주체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스피박의 지적처럼 어차피 하위주체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적한 1세계 지식인 남성들처럼 인식할 수 없는 주변부 타자들에게 자꾸 목소리를 주려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재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문학적 텍스트에서 하위주체의 목소리와 욕망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4.

존 베벌리는 스피박의 하위주체 재현에 대한 윤리학적 비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위주체가 엘리트의 인식 불가능성 유무에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¹⁾ 감히 이러한 지적은 매우 정확한 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전문학텍스트 곳곳에 등장하는 하위주체들은 분명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의 '재현'을 정치적 대변으로 놓고 읽어도, 말 그대로의 재현으로 놓고 해석해도, 하위주체들의 욕망과 목소리의 뚜렷한 구분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가 잠시 연구대상으로 살핀 몇몇의 도적 혹은 의적 설화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동시에 고전문학텍스트 곳곳에 등장하는 하위주체의 형상의 의미는 분명 주목해야한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들은 분명한 도적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의적의 이야기처럼 읽히는가?

일단 앞서 살핀 『계서야담』을 다시 보도록 한다. 재현은 사실 재현 대상의 실제보다 재현하는 주체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재현을 '대변'과 '다시-제시'로 보는 관점이 그러하다. 김진사 이야기의 재현 주체는 일단 『계서야담』의 편찬자라고 볼 수 있다. 당대 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이희준은 위정자로 분명 좋은 사회를 확립하는 자로서 그가 보여주는 기득권, 지배층 양반의 이미지는 분명 김진사와 도적들과 같은 하위주체를 같은 인간으로서 혹은 피지배계급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재현이 권력과 깊은 관계에 놓여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분명 이희준은 김진사라는 존재를 통해 도적떼의 출몰이라는 사회 모순을 지적하면서 윤리와 도덕의 틀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소거하고 단순한 교화의 대상으로 만든다. 동시에 편찬자 자신은 김진사와 도적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준 것처럼 '재현'하지만 그 '재현된' 하위주체들은 정작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드러낼 수 없다. 사회모순의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준 것처럼 꾸며, 그들을 사회모순의 희생자 혹은 주체로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비설화에서도 비슷하다. 맹개목이 활빈당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구체적 서사가 없기에 재현 대상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남향수와 관련된 맹개목 이야기는 은혜를 갚아야한다는 윤리적 덕목을 앞세워 도적떼가 곳곳에서 출몰하는 사회 모순은 소거된다. 맹개목의 욕망과 목소리는 온 데 간 데 없다. 이 재현은 권위나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1) 존 베벌리, 박정원 역, 앞의 책, 2013, 345쪽.

하지만 도적/의적의 존재는 분명하다. 이들의 모습은 소거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분명 '의적'이라는 모호한 기표가 달려 있다. 도대체 이들을 의적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도적 혹은 의적 설화의 재현 대상에게 소위 '의적'이란 정체성은 어떻게 부여되는가? 정체성은 특정 조건과 상황 안에서 만들어지며, 그 조건과 상황은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적이란 정체성은 이야기가 재현되는, 정확히는 의적이야기라고 불리어지는 구조와 그 담론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이야기는 동시에 의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제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의적이라 하지만, 분명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의적이라는 정체성은 사실 의적을 어떻게 보는지, 의적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홉스봄은 고상한 도적의 이미지를 9가지로 설명한다.¹²⁾ 고상한 도적은 범죄를 저질러서 무법자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당국에서는 죄로 규정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 무법자의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의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 및 공동체의 일원으로 고향에 돌아오고, 민중의 존경과 도움, 지원을 받으며, 예외 없이 배반 때문에 죽게된다.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고 신출귀몰한 능력을 지녔으며, 마지막으로 의적은 정의의 원천인 왕이나 황제의 적이 아닌, 지방의 지주, 사제 기타 억압자의 적일 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적의 특징은 모두 의적, 정확히는 도적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홉스봄이 지적한 의적들 중, 처음부터 의적인 경우나 끝까지 의적으로 남은 경우는 없다.

스튜어트 홀은 정체성이 호명(interpellation)¹³⁾과 재현(representation)의 혼합이라고 설명한다.¹⁴⁾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존재는 그 행위 때문에 호명되어 특정 담론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현을 통해 개별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호명된 주체는 말하는 주체의 위치에 서게 되고, 재현된 주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주체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의적이라고 호명된 주체들은 분명 의적과 유사한 행위를 통해 그 행동으로 말하는 주체가 된다. 의적 행위를 하는 하위주체들은 의적 행위를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하위주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내며 그 목소리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적 이야기들은 이렇게 타자에 의해 호명된 것이다. 재현 대상인 의적들이 스스로 의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적 이야기가 '재현'되면 양상은 달라진다. 재현되는 대상은 재현 주체에 의해 목소리를 잃고 의적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적'으로 재현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 재현은 과연 하위주체를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제시'하는 것인가?

의적으로 호명된 주체들은 다른 존재에 의해 이야기로 재현되면서 의적의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도적 이야기를 의적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의적이라는 정체성은 이렇게 확보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많은 도적 이야기가 의적 이야기로 다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낼 때(텍스트의 재정지화가 가능할 때), 비로소 하위주체의 욕망과 목소리는 정확히 드러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하위주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문학은 지식인이

12) 에릭 홉스봄, 이수영 역, 『밴디트(Bandits)』, 민음사, 2004, 80~81쪽.

13) 알튀세르가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에 호명된 주체를 의미한다.

14) 존 스토리, 유영민 역,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1, 130~133쪽.

하위주체를 재현하고 종속시키는 서사양식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이데올로기가 재조직되는 장소¹⁵⁾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의적 설화가 향유되는 행보에 주목할 때, 다시 말해서 텍스트 바깥에서 의적 이야기가 향유되는 맥락(context)를 함께 논의할 때, 의적이라는 하위주체의 욕망과 목소리는 좀 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감히 예상해본다. 하위주체의 정체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계급과 같은 근본보다는 그들의 행보와 움직임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비설화에서 구술자가 한갓 도적으로 의적으로 재현하는 맥락, 그들을 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맥락을 살필 때, 오히려 하위주체의 욕망과 목소리는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15) 존 베벌리, 박정원 역, 앞의 책, 2013, 346쪽.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남성 하위주체의 존재와 욕망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탁원정(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에서 시작되어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향유된 국문장편소설은 상층 가문을 배경으로 상층 가문 구성원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작품군의 향유층 또한 상층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이런 정황 속에서 자연히 이 작품군에서 상층이 아닌 다른 계층이 중심인물로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상층 이외의 계층은 상층의 관심 밖이며 다른 계층의 존재 이유 역시 상층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작품의 연구 경향 역시 상층 가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런 중에도 중심인물을 보조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심과 그 존재 의의를 드러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²⁾ 이들 연구의 대상은 주로 상층 가문에 속해 있는 시비나 유모 등의 하층 여성 인물들이다. 가문 내부,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공간인 규방에서 사건과 갈등이 주로 나타나면서 같은 하층 인물이라도 여성 인물들의 활약이나 존재가 더 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하층 여성들의 경우 첩이나 기생은 물론 시비까지도 남성 주인공과의 애정 서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 갈등에 초점을 맞춘 많은 연구에서 주목되어 왔다.

이에 비해 하층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 인물들에 비해 서사에서나 연구에서 모두 소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선쌍학록>의 보조 인물을 다룬 최수현의 연구³⁾는 주목할 만하다. 최수현은 <유선쌍학록>에서는 상층 가문에 속하는 하층 인물 외에 가문 밖의 다양한 하층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작품들의 보조 인물들이 주로 여성이었던 것에 비해 남성들도 상당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작가의 하층민과 주변부의 삶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보았다.⁴⁾ 이런 진단은 국문장편소설 전반에서 제한된 하층 인물과 여성 인물 중심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층 가문을 배경으로 하는 국문장편소설의 태생적인 한계와 가문 내부의 여성 공간에서 주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공간적 제한 때문에 작품 내외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하층 남성 인물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복원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일차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1)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士大夫家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9, 동양고전학회, 2007.
2)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 인물 연구-〈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석사논문, 1997; 한길연, 「〈도행행〉의 '재치 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2006;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보조 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국어국문학』158, 국어국문학회, 2011; 최수현, 「〈유선쌍학록〉 보조인물의 특징과 그 의미」 『이화어문논집』35, 이화어문학회, 2015; 최수현, 「〈범문정충절연행록〉의 유모(乳母) '열업'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17,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 탁원정, <명주옥연기합록>에 나타난 시비 설매의 욕망과 변신, 『민족문학사연구』 68,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3) 최수현, 앞의 논문.
4) 위의 논문, 26쪽.

본고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180권 180책)⁵⁾을 대상으로 한다. <완월회맹연>의 경우 국문장편소설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18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작품에 비해 주변과 하위 계층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다.⁶⁾ 따라서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먼저 작품 속 하층 남성 인물⁷⁾들이 재현되는 양상을 섬세하게 살핌으로써 하층 남성 인물의 존재를 충실히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욕망이 드러난다면 그 성격과 실체는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완월회맹연> 속 남성 하위주체의 존재 양상

2.1. 중심 가문의 하인-문학, 경용

문학과 경용은 <완월회맹연>의 중심 가문인 정씨 가문의 대표적인 하인이자 심복 하인으로, 일종의 가내사환노비(家內使喚奴婢)⁸⁾라고 할 수 있다. 정씨 가문 내외의 중요한 일들에 주로 투입되는 인물들로, 이들의 대표적 활약은 작품 초반 정부 일가가 선산이 있는 태주로 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씨 가문에 원한이 있는 경태제의 명을 받은 맹추의 군사가 정부 일가를 뒤쫓아 결국 월천강가에서 정부의 아이들인 정인성, 정인광, 정월염 등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때 정삼은 하인들을 풀어 아이들을 찾다가 길을 떠나야 하는 문제로 철수하도록 하는데, 이때 노복들 가운데 문학과 경용만은 공자와 소저의 생사를 알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이들을 찾아 떠난다.⁹⁾

월천강가에서 맹추 일행의 화를 피하다가 표류하게 된 정인광과 정월염은 조주에 이르렀다가 이들이 도와주는 인물들과 함께 태주로 향하기 위해 다시 배를 타지만 풍랑을 만나 어느 해변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강도떼를 만난다. 정인광은 정월염을 피신시킨 후 강도떼에 맞서 싸우다가 발각된 정월염이 낭떠러지에 몸을 던지자 절망한 채 도적들과 싸운다. 이때 갑자기 장사 두 명이 나타나 삽시간에 도적들을 물리치는데 이들이 곧 아이들을 꼭 찾아오겠다고 떠났던 문학과 경용이다.

중적이 슈적의 명을 좇듯 물너갈 의수를 도로혀 시로이 공즈를 에워쓰며 히홀 안음이 착급흔디라. 공지 비록 습적목을 둘러 중적에 창인(槍刃)을 막으나 정코 위티흐를 면치 못홀너니 흘련 영하(嶺下)로 좇츠 두낫 효용(驍勇)흔 장시 손의 디도(大刀)를 번독이며 황황 착급히 올라와 바로 예운 거슬 헛치니 적되(賊徒) 처음은 저의 동눈가 허여 슌이 공즈의 쏜 거슬 터 늦커늘 그 용장(勇將)이 팔을 움작이며 용역을 분발흐는 바의 도적에 머리 검광(劍光)을 쏘차 구르난지라. 그 용망과 니력이 세간의 더부러 굿탄 스람이 업거늘 구척신(九尺身)은 산악을 넘뛰는 낭 허를 다흐엿고 골희 눈의 우레 갓튼

- 5) 대상 텍스트는 장서각왕실아카이브의 한자병기 입력본으로, 이후 인용시 권수만 밝힌다.
- 6) 탁원정, 「<완월회맹연>의 공간: 인간사의 공간적 총체」, 조혜란 외,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도서출판 책과 함께, 2019, 166~172쪽.
- 7) 상층 사대부 가문의 구성원이 주인공이 되는 만큼 상층 사대부가 아닌 계층 전반을 하층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 8) 조선시대 가내사환노비 중 장년층 노비의 주 업무가 편지를 전하거나 상전의 외출을 배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장년층 가내사환노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혜정,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 세계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81~82쪽.
- 9) 사랑이 흐른 행거(行車)의 주변허여 갈 길히 업스물 날너 슈히 도라오라 허니 노복 등이 마지 못허여 슈명허나 그 중 문학 경용이 일침을 두루 도라도 좇지 못허면 쾌히 죽어 설우물 닛고 다시 턱하(宅下)의 도라가지 아닐 바를 주허고 초연이 니드르니(권 6)

쇼리는 삼국 적 장익덕(張翼德)으로 방불(彷彿)하니 공지 태양 상광을 둘러 슬피건디 이 곳 본부 정확 운학 경용이라. 그 황홀이 반가오를 웃지 비할 곳이 잇스리오마는 밋쳐 혼설(閑說)을 시작지 못하고 적세 흥흥을 인하여 운학 경용으로 더부러 혼가지로 급히 치니 인심이 혼번 경동흔 후는 기운이 셔리 마진 비암과 저린 파 갖투여 감히 징전(爭戰)을 못하니 양인의 만부(萬夫) 부당디용(不當之勇)으로써 유스디심(有死之心)하고 무싱디기(無生之氣)하여 공즈를 위티흔 곳디 벗기고즈 하는 바의 엇지 도라보며 헬 거시 잇스리오. 양검(兩劍)을 둘너 제적을 쯤디르며 연하여 머리 썩러지니 피 흘너 짜희 괴이고 죽어미 불 앓히니 적퇴(賊徒) 크게 황황하여 훗터지고즈 하는 초의 녕화(嶺下)의 크게 웨디. “치칙의 불이 이러나 금빅(綿帛)을 아오로 스회(死灰)게 되여시니 밧비와 구호쇼셔.” 호거늘 중적이 청파의 대경하여 공즈를 바리고 썰니 훗터지니(권 15)

위 인용문에서 묘사된 운학과 경용은 9척 장신에 휘두르는 칼마다 적의 머리를 땅에 구르게 하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장비에 비견된다고 서술되고 있다. 주인을 위한 하인 계층의 용맹스러운 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이 경우는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전장에서 무용을 떨치는 상황과 흡사하게 묘사되고 있고, 특히 이들이 삼국 촉한(蜀漢)의 무장인 장비에 비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후 정인광을 배행했던 엄부의 하인과 선부(船夫)가 추위와 배고픔에 꼼짝도 못하자 운학과 경용은 자신들이 여러 벌 겹쳐 입었던 옷을 벗어 입힌다. 이로 인해 정월염을 찾아 낙성촌으로 향하는 길에서 앓은 옷으로 살만 가린 채 강풍과 눈비를 맞고 힘들어하는 운학과 경용의 모습에 대해, 서술자는 “옷슬 버셔 엄부 정확 등을 주고 각각 열은 옷시 각각 살흘 7리올 썩이니 발발흔 악풍의 악악흔 치위를 당하여 널널을 무릅쓰미 혈육지신이 괴구 순간의 참참흔 빙이를 인하여 어이 불을 붓치리오마는”이라고 하여 이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그로 인한 고생을 안타까워한다. 또한 정인광을 위해 조용한 인가를 찾아 객실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인은 운학과 경용의 당당한 위엄을 보고 속으로 두려워하여 내심 방을 주고 싶지는 않으나 마지못하여 방을 빌려준다.¹⁰⁾ 이런 상황들은 운학과 경용이 일반 하층 인물들과는 다른 위인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돈과 관련해 정확한 보상과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두 사람의 위엄에 못 이겨 겨우 객실을 빌려준 주인에게 은냥을 주면서 조반까지 부탁하자 주인이 그제야 기쁜 표정으로 아침밥을 만들어 요기할 수 있도록 한다.¹¹⁾ 이후에도 낙성촌에서 방을 빌릴 때 돈이 다 떨어지자 경용은 머리에 꽂고 있던 할아버지의 유품인 은잠을 뺏아 주인에게 준다.¹²⁾ 이는 돈에 대한 개념 혹은 관심이 없는 상층과는 다른 모습으로, 같은 하층끼리 경제

10) 주인이 운학 등의 당위(壯威)하를 보미 그옥이 무셔이 녀여 비록 정성으로 머무르고즈 아니 하나 마지 못하여 방을 빌여 주거날(권 16)

11) 경농이 허리 아리로조츠 은냥을 니여 주인이 방 빌니를 샐레하고 도반을 구하니 주인이 은즈를 보미는 잠간 모음을 녹여 혼연흔 스식으로 도반을 밧드려 요기하를 응순(應順)하더라(권 16)

12) 운학 등이 감사하여 활불(活佛)이라 일컫고 공즈를 붓드러 방중의 드러가 더운 곳의 언 거슬 녹이며 불을 취하여 저즌 옷슬 말뇌오디 승미(升米)를 진인 거시 업고 푼전을 가진 거시 업스니 주인이 방 빌닌 공을 스레할 길히 업고 절박히 괴아(饑餓)를 면할 조각이 업스미 경농이 공지 곱히 송솔가 초민하여 머리를 어로만져 빅옥 건쥬(巾簪)을 썩혀 주인을 주며 왓. “내 인가 천뇌라 머리에 므스 건쥬를 출힐 도라 이시리오마는 이 은쥬는 내 한아비 쥬군셔 찹정 노야를 뵈셔 운남의 갓더니 맛츰 그 나라 사름이 오조(吾祖)로 더브러 정후(情厚)하여 츄물의 두넛 딘쥬를 다라 주며 만니의 이셔도 셔로 낮지 마즈 혼 거시미 한아비 물니치지 못하고 가져 도라와 즈손의 전하여 내게 밋쳐는 습디의 나리는 거시러니 횡탁(行囊)의 잇는 거시 업셔 저 즈음의 딘쥬를 문져 썩혀 시상에 화미(貨賣)하여 썩고 이제 다만 은잠이 남아시니 비록 미물이나 삼스냥 은즈는 바들 듯흔지라. 쥬인공이 이를 가지고 우리 공즈와 아등의 요기할 거슬 어더 주미 엇더하노.”촌밍이 은잠을 보미 황홀하를 니기지 못하여 텃흔 절뵤(絶寶) 이 밧게 업는 양으로 아라 괴이히 녀어나(권 16)

적인 곤궁함을 공감하는 데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인광 일행은 낙성촌에서 도적으로 몰려 운학과 경용이 먼저 하옥된 이후 정인광 또한 하옥되는데, 이때도 운학과 경용은 정인광을 이런 누지에 몬 것이 자신들의 죄라고 하면서 죽고자 한다.¹³⁾

이처럼 정부의 심복 하인인 운학과 경용은 초반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서사에서 주요한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후 정잠이 영종황제가 억류되어 있는 노영으로 떠날 때 정잠을 따라가는 것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정씨 가문 내외의 중요한 일들에 주로 투입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하층 이상의 대접을 받기도 한다.¹⁴⁾

쳐시 침변(枕邊) 야의(夜衣) 일녕으로써 경농을 님혀 은우(恩遇)를 알게 하며 님광 공지 낭디(囊袋)를 아오로 글너 주고 누슈(淚水)를 썩러 빅부와 형당을 밧드러 무스 환귀(還歸)흐믈 당부흐며 하딕(下直)을 고희미 모다 도히 가믈 님너 님낫치 척연(慼然)흐 밧츨 썩여 노복을 보니난 바 궂디 아니흐니 (권 27)

노영에서 정잠의 편지를 전하러 온 경용이 다시 노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삼은 자신의 옷을 입혀 주고 정인광은 낭대를 글러 주며 가족 모두가 그 떠나는 것을 배웅하여 하인을 보내는 것 같지 않게 했으며, 이후 다시 정잠의 편지를 전하는 과정에서는 옛 충의지사(忠義之士)에 못지않은 것으로 그려지면서 정잠 부자의 후대(厚待)를 받게 된다.¹⁵⁾

이처럼 운학과 경용은 용맹과 힘이 강조되고 같은 하층과는 다른 위인됨을 보여주는 인물이며, 주인 가문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을 보여 하인 이상의 후대를 받는 인물로 그려진다.

2.2. 하리(下吏)-최언선

최언선은 할머니와 숙모 등이 서씨 가문과 정씨 가문의 비자(婢子)를 지냈고 그 역시 본래는 정씨 가문에서 정잠을 모시던 인물이었는데, 후에 기강 안찰사로 간 장헌의 예리(禮吏)가 되어 정인광이 도둑으로 몰려 잡힐 위기에 나타나 정인광을 구출해 주면서 서사의 문면에 등장하게 된다.

정인광 일행이 도둑으로 몰리자 최언선을 비롯한 하리(下吏)들이 이들을 잡으러 오는데, 이때 최언선이 정인광을 알아보고 앞에 와 예를 올리지만 장헌과 엮이기 싫은 정인광은 모른 척한다. 최언선은 서운함에 오열하면서도 다른 하리들의 무례함을 정색하고 꾸짖으면서¹⁶⁾ 정인

13) 처시 운학 경농이 아리 간의 잇서 최군의 와시를 듯고 계오 정신을 슈습하여 칼과 족쇄헨 거슬 벗고 신고히 공즈 있는 곳의 니르러 공즈를 붓드러 실성 뉴체 알, “이를 엇디 흐면 도흘고. 아등이 공즈를 이 누옥 위디의 더디고 디금 살미 명완헌 연괴라. 만일 공지 회소치 못흐실디디 아등이 흘노 투싱흐미 더욱 불통이 아니랴.” 인하여 고디규뎨(叩地叫天)흐며 썩니 죽고즈 흐거늘(권17)

14) 실제 가내사환노비와 같이 주인집에의 종속도가 높은 노비의 경우 주인이 노비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이것이 주-노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공고히 하는 작용을 했다고 한다. 지승중, 『조선전기 노비 신분 연구』, 일조각, 1995, 379쪽.

15) 경농이 고두빅비(叩頭百拜)흐여 하딕흐미 만니(萬里) 히도(海道)의 천신만고(千辛萬苦)를 비블니 고키계오 구스일싱(九死一生)흐여 고국의 니르미 경도(京都)를 디나니 거목촉처(擧目觸處)의 비상(悲傷)흐믈 니긔디 못홀디랴. 눈믈을 썩리며 텃탄산을 츠즈 나아가 셔간을 드린 후 임의 회답을 밧즈오미 상셔의 초조현망(焦燥縣望)흐는 회포를 헤아려 썩니 노영으로 도라오니 이목(耳目)이 초전(焦煎)흐고 만니 이국을 왕반(往返)흐미 슈족이 히여디며 집문을 에워 쳐즈를 보디 아니코 왓는디랴. 그 튼의(忠義)넙넙(曄曄)흐고 정성이 간측(懇側)흐여 고즈(古者) 튼의디스(忠義之士)의 겸연(謙然)흐미 업스니 정공부즈의 과중우디(過重優待)흐믈 썩흐 평싱의 저바리지 아닐 썩이 잇는디랴.(권 29)

16) 언선이 공즈의 발설하기 전의 덩식 칙알 “여등은 가히 금슈 이적(夷狄)에 무디흐미로다 의표를 본들

광을 호위해 관아로 데려간다. 운학과 경용만 옥에 갇히고 혼자 풀려났던 정인광은 맹추의 모략으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역시 최언선은 정인광을 철삭으로 목지 못하게 하고 직접 업어 관아에 이른다. 또한 옥에 갇힌 정인광에게 물 한 모금 주여지지 않자 최언선 역시 식음을 전폐하고 실성발광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한다.¹⁷⁾

최언선은 정인광 일행을 구출한 후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장헌 집의 비자로 있던 사촌 여동생 위정에게 미혼단을 얻어 옥리들을 취하게 한 후 정인광 일행을 탈출시키지만 이 일이 발각되자 운학, 경용에게 정인광을 데리고 빨리 달아나라고 하며 자결을 시도한다.

언필의 다시 공즈고 지비(再拜) 왈, “쇼리(小吏) 죽으미 디원(至願)을 퍼미로디 디뉴 노야 면전의서 죽디 못흐미 한이로소이다.” 설파의 칼흘 썩혀 즈문(自刎)흐니 공지 대경(大驚) 착급(着急)흐나 능히 운동홀 길히 업서 춘파와 위정다려 급히 붓들나 혼디 낭인이 썰니 니다라 칼흘 아스나 받서 목을 범하여 적혈(赤血)이 소스나니 운학 등이 황망이 붓드러 구호홀시 비록 명이 쫓디 아녀시나 십분 경위(傾危)흐디라. 공지 불승초약하여 위정을 가르쳐 약물노빠 구호하여 식경(食頃) 후 언선이 정신이 노연(瞭然)흐니 원니 빗딜녀 상체(傷處) 놀나올디언정 아도 죽든 아니미라. 언선이 눈물을 흘니며 머리를 두다려 저의 단정(眞正) 소회(所懷)를 일일히 고향여 죄를 남의게 년누(連累)치 말고 제 독당(獨當)하여 쾌히 디뉴 압히서 죽으믄 고향니 공지 말노빠 그 뜻을 두로허디 못홀 줄 알고(권 18)

간신히 죽음을 면한 최언선은 다시 장헌에게 가서 정인광을 도주시켜 준 것을 자복한 다음 자결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최언선은 현재 모시는 장헌을 배신하고 정씨 가문을 돕게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결을 시도하거나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씨 가문에 대한 지극한 의리를 보여준다. 이후 최언선은 실제로 관아로 가 맹추와 장헌에게 자신이 정인광을 도주시켰다는 것을 자백하는데, 장헌은 최언선이 정잠 밑에 있었기에 정인광을 도운 것이라 짐작하고, 최언선을 불러 몰래 풀어줄 테니 가족도 못 알아보게끔 병신 행색으로 꾸미고 숨어살라고 한다.¹⁸⁾

장헌에 의해 풀려난 최언선은 운학, 경용과 함께 정인광과 정월염이 살아있음을 정씨 가문에 알리는 서간을 전하러 가면서 다시 정씨 가문에 돌아오게 되고, 이후 거의 정잠이 가는 곳은 어디나 함께 하면서 정잠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영종황제를 구하러 마선의 노영으로 떠나는 길에 동행하여 억류 생활을 고초를 함께 겪고, 이후 안남과 교지의 출정에 함께하여 정잠의 전술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는 등 공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씨 가문 내부의 일과 관련된 사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저 공지 서절(鼠竊) 구투(狗偷)의 줌노릇술 할가 시버 뵈느냐 노야 녕이 계시니 뵈셔 아문에 나아가 결스(結詞)흐시믄 불 썩이어늘날 감히 상부 만금 공즈를 곤욕(困辱) 능만(陵慢)홀 거시냐”(권 16)

17) 옥중(獄中) 기아(饑餓)를 구할 지 업스니 공즈 아오로 혼 술 물을 주지 아니 흐는디라. 최언선이 망극 초황하여 역시 식음을 꺾히고 가슴을 두다려 이를 솔으며 발을 굴너 실성 발광한 사람 꺾치 일시를 덩하여 안갓디 못흐더라(권 17)

18) 당공이 급급히 도라와 심복 노즈로 하여금 옥니 등 보논 디 언선을 잡아드리라 하여 압히 니르미 벽좌우(僻左右)하고 소리를 낮초아 언선다려 왈, “밍츄관이 브디 정으 노쥬를 히코즈 흐미 내 식량(豺狼)의 성을 거우디 못하여 것츠로 좇출 드시 흐엿거니와 내 엇디 정부 은혜를 저브려 정즈를 도로혀 히히리오. 내 뜻을 아디 못하고 네 정즈를 급히 니여 노화 몸의 스화(死禍)를 취코즈 흐니 엇디 망녕되디 아니리오. 밍츄관이 너를 죽시 다스리디 아닛는가 날을 괴이히 녁엿거니와 내 어이 너를 죽이리오. 일이 비록 명대치 못흐나 내 밍츄관을 보아든 너를 박살홀와 홀 거시니 네 낮치 약을 칠하고 혼 눈을 감으며 비각(鼻覺)을 편히 못쓰는 체 하여 변동(變動) 추한(醜漢) 병잔디인(病殘之人)으로 네 처지라도 면모를 쯤서히 아디 못하게 하고 내 서간(書簡)을 가져 태쥬 나아가 정상서 곤계(昆季)의게 올니고 인하여 숨어 슬미 엇더호요?”(권 18)

교지에 출정한 정잠은 양일아의 흥계로 버려진 한난소의 아들 정몽현을 구하게 되는데, 자신이 오랑캐를 소탕하러 떠나면 돌볼 수 없다면서 최언선의 집에 정몽현을 데려다 놓으라고 한다.¹⁹⁾ 집을 나간 탕자 정인중을 찾는 일에도 최언선을 보내는데, 정인중은 최언선에게 화살을 쏘아 위중하게 하는 등 수차례 도망갈 궁리를 하지만 결국 최언선의 흥계²⁰⁾로 정씨 부중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인중이 집을 나가 저지른 온갖 악행은 최언선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잠은 이 일기를 보고 어머니 서태부인 앞에 가 자식 잘못 키운 죄로 황공해한다.²¹⁾ 최언선은 자신의 딸을 정인중의 빈실로 들여 달라는 서흥의 부탁을 받아 이를 정부의 대모인 서태부인 귀에까지 들어가게 해 결국 서태부인의 권유로 혼인이 이루어지게 하기도 한다.²²⁾

이처럼 최언선이 정씨 가문의 다양한 대소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최언선의 가족과 그들의 생활이 문면에 드러나게 된다. 먼저, 최언선의 가족 소개에서는 최언선의 노모에 대한 효나 부인의 덕 그리고 자녀의 자질 등에서 변성한 가문 못지않다는 것이 나타난다.²³⁾ 이는 그의 집에 대한 묘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인중이 주점을 방화한 죄로 붙잡혀 갈 위기에서 최언선의 아들 최창윤에게 구출되어 그 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정인중의 눈에 들어온 최언선의 집은 양반가와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다.

만일 다 성의에 불합호실진디 비록 누추호오나 천가의 적은듯 뉴쳐호시면 삼하(三夏) 복서(伏暑)를 지니여 일기 저기 추량(秋涼)호온 후 서로 풍경을 귀경코져 호옵느니 그 씨의 한가지로 뫼셔 지기를 소창(消暢)호시게 호리이다. 공지 윤의 정성된 말을 듯고 혼연이 웃고 다른 뜻이 업셔 이에 머물기를 명호니 윤이 크게 깃거 후원의 일좌 고루(高樓)를 슈쇄호고 공즈를 인도호여 드리고 쥬과(酒果)로 권

19) 정공이 교지 참정 닐슈(印綬)와 병부를 니참정기 전호고 별관의 이셔 군무를 의논홀시 지기 부지 이 곳을 썸나미 몽현을 이곳의 두지 못홀 비로디 부중의 도라보니문 위티호미 만홀가 넘너호여 최언선을 명호여 공즈를 뫼셔 제 집의 안둔호고 바로 군중으로 도라오물 명호니 언선이 슈명호여 즉일의 공즈를 드려 왕가를 썸나니(권 141)

20) 공지 언선드려 왈, “내 이제 도라가미 엄뇌(嚴怒) 어느 지경의 밋츠실 줄 모르니 스심을 미가분(未可分)이라 월선 등이 비록 천인이나 임의 조식을 두엇고 또 강보의 교교호미 심각히논지라 잠간 드러가 보고져 호느니 내 그 곳을 썸난 지 임의 반년이라 기드리미 엇지 절호지 아니리오?” 언선이 정식 디 왈, “공지 그르스이다 부뫼 브르시미 계시거든 임의 먹은 바를 비왓고 명을 응호라 호여시니 대노애 천니의 글을 보니샤 공즈의 도라오물 지촉호여 계시문 언선의 불민호 말슴이 공즈의 견중호물 엇지 못홀가 호샤 뜻을 빗최시미니 공지 호번 보시미 텃성이 감발호샤 도라가시물 심각호시미어늘 엇지 문득 날이 오라므로 무음을 히타호샤 천출(賤出)을 심각호시느니잇고? 고인이 운호디 ‘내 나흔 거슬 스랑호미 날 나흔 은혜를 심각호디’ 호니 공지 저 천칭 호즈를 년년호시는 뜻으로써 대노야 공즈 위호신 성의를 심각호실지니 엇지 즘시나 지체호실 비리잇고?” 공지 대참호여 낫빋츨 붉히고 말이 업더라.(권 157)

21) 이제 상국이 언선의 일기를 호번 보미 목연이 말이 업셔 스미를 썰쳐 티던의 뫼섯다가 이윅호미 좌를 썸나 스미로조츠 일기를 밋드려 태부인기 혼호고 물너 면관 청죄호여 고포디.....언선의 일기를 보오미 더욱 쇼대의 황축(惶蹙)호미 더은지라(권 157)

22) 초야의 언선과 흥윤이 좌위 종용호물 타 평장공기 셔즈스의 말을 고흐고, 천인지출(賤人之出)이오 남 후 노야의 불예(不豫)호신 비웁고 대노애 엄정호시니 평장노애 쥬션치 아니시면 일이 니지 못호리로 소이다. 평장이 쇼알, 서흥은 남의 셔피라도 현명호거늘 저희 질과 녀를 어디 가(嫁)치 못호여 가쇼의 일이 나노 내 반빅지년에 으배(兒輩)의 작첩(作妾)을 권호리오 여등이 셔즈스의 소청을 드러실진디 남 후기 고흐거나 동형즈 정빅기 여담(豫探)호여 보라. 최언선이 연기언(然其言)호여 틀을 여여 녀청기 고흐엿더니 녀청이 소부인기 밋고호엿더니 후리에 셔즈시 태부기 근걸(懇乞)호고 소부인이 몽스로써 잉희(媵姬) 낭인은 업지 못홀 바로 대화부인기 상의호니 태부인이 상국기 권호여 니섭흥과 셔육화를 일위니 국공이 소부인이 이 일의 간섭호물 미안호나 스식지 아니호고 모로는 닷호더라.(권 176)

23) 언선이 정참정을 조츠 원근을 불계(不計)호고 좌우의 조츠 종스호여 썸나지 아니나 늑십 노뫼 잇는 고로 임의 안남을 평정호고 교지의 진슈호미 언선이 썸로 슈유(受由)호여 도라와 어미를 보고 가는지라 언선의 체 즘 못 어질고 즘네 기기히 출범호니 비록 성문 흑데라도 이에 더을 바는 업더라 (권155)

하니 공지 눈드려 방중을 보미 버린 거시 유아하고 정결하여 사치함이 업솔지언정 극히 정쇄하여 주인 의 어질을 알니러라.....츠야의 월식을 씌여 정중의 산보홀시 그마니 후장을 넘어 니당의 드러가 후창하의 그마니 숨어 방중을 규시하니 년의 녹십여세는 한 노괴 슈좌의 거하고 슬하의 십스오세나 한 규네 뒤편시며 중년의 녀지 쇼년 미부 삼인을 거느려 좌하여시미 창운 삼형데 의디를 정히 하여 뒤편시니 횡실이 빈빈하여 흡연이 스부(士夫) 명가(名家)의 스친경장지되(事親敬長之道) 그죽하니 칠 팔 오쇼들이 좌상의 넘노라 희학(戲謔)이 방지하니 노고와 중년 녀지 귀중 괴이함이 도승지주의 더으니 이 곳 창운의 즈달이를 알니러라.....윤이 미우를 땡겨여 왈, 혜세 마지 못하여 이곳의 머므시게 하나 규녀를 둔 집의 맞춤니 외직이 머므시미 깃브지 아닌지라 그득 녀녀를 품은 바의 오히 녀물이라 한거늘 그 말이 괴이치 아니리었고. 고랑 왈, “네 말도 옳커니와 내 집이 비록 후문(侯門) 갑데(甲第) 아니나 또한 너의 엄격하고 도장(堵牆)이 심수하니 무슨 일 오원한 녀녀를 하리오.”(권155)

최창운은 자기 입으로 ‘천가(賤家)’라고 했지만, 집의 규모는 물론 집안의 가법 역시 양반가에 못지않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최창운이 동생 최월혜를 걱정하며 외간 남자인 정인중이 머무르는 것에 대해 거리끼는 기색을 보이자 그 할머니가 “네 말도 옳다. 하지만 내 집이 비록 명문가의 대갓집은 아니지만 또한 내외 구분이 엄격하고 담이 깊으니 무슨 더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겠느냐?”라고 한 데서 양반가의 내외 구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또한 최언선의 가족이 정씨 부종의 인물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최언선의 아들 최창운의 경우 정인성과 지기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²⁴⁾, 최언선의 모친인 최파 역시 정씨 부종의 초대를 받고 정씨 부종을 드나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이처럼 최언선의 경우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를 좇는 의리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상층 가문이 아니면서도 상층 가문에 못지않은 삶, 생활을 누린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2.3. 도적- 장손탈

장손탈은 대대로 도적질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경향(京鄕) 각지에 출몰하며 지나는 사람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어린 아이를 도적하여 창루에 팔아넘기거나 자식 없는 집에 팔아 돈을 버는 인물이다. 장손탈이 처주와 담양 사이에서 노략질을 하던 중 주성염을 납치하고, 그 처인 비영(궁녀 비계의 언니이자 교한필의 첫째 부인 여씨의 유모)의 주선으로 교한필의 부인 여씨에게 주성염을 팔아넘기면서 서사에 등장하게 된다.

24) 정네뵈 승전 반스(班師)한 후 창운이 나아가 현알하고 공녘을 치하하미 목지공이 창운을 한번 보미 크게 괴특이 허심 친이함을 지기로 하여 주로 오기를 니르미 츠후 정부의 빈빈 왕니하나 공즈 등의 처하는 바는 명광현이오 네부 등의 동뉴를 접다하며 하관을 접화하여 빈직을 슈용하든 청심현이라 목지공이 청심현의 이실 적 창운이 현알한 고로 공지 보지 못하였더라.(권 155)

25) 상국이 흑소를 보니고 다리여 당의 드러오미 태부인이 최언선의 모를 불너 난참의 좌를 주고 혼연이 은우(恩遇)를 두어 언선의 의기를 기리 찬칭(讚稱)하여 네부를 구할한 은혜와 상국을 종스하여 북지(北地) 고초를 감수하고 출정지시와 교지 종스하여 유공함을 표당하고 다시 공즈를 보양한 공을 닐크라 여러 조건을 베퍼 말슴이 곡진하거늘 화부인이 국별 칭은함을 두터이 하고 제부인이 면면이 슈작하니 최피 황공 감은하여 고두 빅비하여 불감승당이러니 상국이 닐니하미 황망이 계하의 노력 고두 복알하니 상국이 혼연이 승당함을 명하여 난두의 좌를 주고 또한 언선의 공녘을 포장하여 조식 잘 나흐를 칭찬하미 식위 십분 화열하여 당대의 군신의게 낫빋 빌니물 효축하니 최피 불승감격하여 빅두를 두드려 불감승당하고, 천한 조식의 인도를 어데 발적하미 다 노야의 하늘 곳튼 은혜라 천첩이 존부 은혜를 지고 덕을 갑스올 도리 업스니 다만 화부인의 말슴을 효축할 썩름이러니 금일 귀부의 알현하와 은상 노야의 이긋조은 은혜를 받조오니 황공 감축하와 알외올 바를 아지 못하리로소이다. 이러트 말슴하다가 석양의 도라갈시 필빅(匹帛)을 샐하며 모든 부인니 다시 오기를 일컫더라.(권 146)

이후 장손탈의 서사는 크게 여씨의 호씨(교한필의 두 번째 부인) 모녀 괴롭히기에 동원되는 전반부와 궁중에 잠입한 후 교한필 일가를 무너뜨리려 하는 중반부, 계획에 실패하고 도주하다가 잡혀 결국 최후를 맞는 후반부로 나뉘볼 수 있다.

여씨의 악행에 가담하게 된 장손탈은 먼저 호씨의 아들이 든 농을 강물에 버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강으로 향하던 중 나타난 혜안법사에게 농을 빼앗기고 그가 외우는 주문으로 인해 양쪽 팔에 자기의 죄상이 날날이 칼로 새겨지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

너시 일종 독약을 유아의게 나리붓고 미쳐 소리를 못하게 휘모라 농의 너허 노녀를 주워 당손탈노 하여금 강슈(江水)의 썩오라 하니 손탈이 즉시 농을 디고 강을 향허더니 흘년 일신이 한축(寒縮)하고 모밭이 솟구러 하여 심신이 전구(前驅)한 등 일위 노승이 당전(當前)하여 흥번 발 구르고 두어번 단 언(眞言)하더니 당손탈이 등의 진 농을 더디고 것구러디니 노승이 드디여 농을 앓고 좃춘 번 소리로 하여곰 갈 쫓츠로 좌우 비상(臂上)의 쓰디, '니 당손탈 흉적이 평심 불이(不義) 악스(惡事)를 숨상하여 인명을 상허오고 지보를 탈취하여 히둥(海中)의 출몰(出沒)하며 심산(深山)의 은복(隱伏)허물 농스르 하니 임의 죄악이 관영(貫盈)허여 불농취(不容取)너날 다시 남의 천륜(天倫)을 난상(亂常)하고 교공조 시신을 강슈의 썩우려 하니 사람이 비록 모로나 텃디 신명이 지상(在上) 지방(在傍)하니 엇디 너의 흉심을 마쳐 디귀(大貴) 능복디인(隆福之人)이 힘힘히 강어복식(江魚腹食)이 되리오. 문저 네팔 우히 굴을 삭여 금일디악(今日之惡)을 표허고 타일(他日) 한번 관형(官刑)의 복(服)하여 신심 이체하물 면치 못하리라.'-----시시의 손탈 흉적이 팔 우히 갈 쫓츠로 글을 쓰나 알프며 놀나오물 모르고 것구 러졌더니 반일 후 겨오 인스를 출허보니 공조 너흔 농은 간 곳디 업고 제 팔 우히 깅서한 샤의(辭意) 만분 경황하니 팔을 썩가 불길한 스의(辭意)를 업시코조 하나 능히 알픈 것살 춤고 썩쓸 길이 업스니 흥한 괴운이 셔리 마진 비암 갖타니 옷슬 쓰져 팔을 썩고 죽을 형상으로 도라오니(권 45)

형벌을 당한 장손탈의 모습은 훗날 비영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손탈은 형벌 이후 스스로 호협 영웅이라며 자신만만하던 모습에서 힘도 전만 못하고 한낱 벌 받는 죄인 형상으로 기가 완전히 꺾인다.²⁶⁾ 그럼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교숙란(주성염)의 처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교숙란(주성염)을 태운 가마를 습격할 자객을 매수하기도 하는 등 여씨의 악행에 가담한다.

그러다가 교한필에게 발각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상궁인 누나 장손씨가 있는 궁궐로 들어간다. 궁궐로 들어간 장손탈은 태감 진섭의 동생 진탐을 죽인 후 개용단을 먹고 태감 진섭의 동생 진탐으로 변신해²⁷⁾ 살아가면서 누나 장손씨와 처제 비계를 동원해 교한필 일가를 망하게 할 계획을 세운다. 장손탈이 진탐으로 변용한 것을 모르는 진섭은 장손탈을 자기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데, 장손탈은 진섭을 이용해 여황후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한필 형제의 흥계인 것처럼 꾸며 이들 형제가 여황후의 노여움을 사게 만든다. 또한 심복 하인인 노진주에게 교한필과 최귀비의 필체를 모사하게 하여 최귀비와 교한필이 사통한 듯한 정황을 만들기도 한다.

원니 어시의 본 복는 단짓 진섭이 아니라. 당손탈이 단티감의 형모을 비러 단섭의 잇다가 천만 괴 악지 아닌 교어시 태감의 집 문을 드디미 밋쳐 저의 흥모을 맞찬지라. 기용단(改容丹)이 지슈(在手)허

26) 겁으로 썩미여 당쥘(藏拙)허나 이후는 효용이 절운허미 전일의 밋디 못허여 흘연이 한낱 누쉬(累囚) 되기를 면치 못허고(권 75)

27) 개용단과 같은 요약을 먹고 변신이라는 기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보통 악인형 여성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것(탁원정, 앞의 논문)인데, 장손탈의 경우 남성 인물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니 못할 일이 업산지라. 제 문득 습의 얼굴이 되어 나갓다 드러오는 모양으로 교어수를 얼핏 보고 어시 도라간 후 황망이 은화와 독약을 봉하고 심복노(心腹奴) 진두로 하여금 교상서의 필체를 모스하여 태감에게 보치는 서간을 일우니 노진두는 노진형의 형이라. 평상 스업이 간혹 교시라. 겸하여 필법이 이상하여 우군(右軍)의 논정(蘭亭)과 니스의 전즈라도 모스하미 드러미 업고 천법(千法) 만체(萬體)을 경직의 모쓰미 그 진짓 님즈로 두어 보라 하여도 능히 분변치 못할지라. 전후 불의 형시 간악 소인을 도와 형인지덕의 의기 현즈을 히하미 슈을 헤지 못하리러니 오위도총스 명슈의 서기로 정슈의 가란(家亂)을 일워 또 죄을 범하미 업디 아녀 정쉬 종적을 추심(推尋)하여 죽이고즈 하미 창황이 변용하고 형용을 밧고와 당손탈의게 곱초녇다가 당손탈이 밧고여 단탐이 되미 또 짬와 식식이 되어 단터감의 집의 잇시디 단습이 그 근파(根派)을 막연 불각하니 기외을 더욱 이르리오. 탈이 진두를 두었는 고로 서스 필법은 아모 용호디문(龍虎之文)과 듀옥디지(珠玉之字)라도 근심치 아니 하논지라.....탈이 행계(行計) 모흉(謀凶)하미 이갓트여 급히 발단하여 어즈러오물 일위지 못하물 민민하다가 교어스의 좁간 광기로 진정하여 가물 암희(暗喜) 초열(且悅)하여 기용단을 먹여 노진두를 교어시 되어 진습이 도라오논 씨의 슈상한 거동과 괴니흔 말노 습을 경동하며 은화 독약과 서간을 가져 옥폐의 두변하논 디경의 밋찬디라.(권 73)

이처럼 치밀한 계교를 꾸며 교한필 4형제를 모두 누명을 씌워 죄인으로 몰고 가지만 결국 계획은 실패하고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다.

장손탈은 여의개용단을 먹고 젊은 남자로 변신해 자신을 쫓는 포졸들을 따돌리고 여자로 변신한 노진주와 함께 주막으로 피신한다. 그곳에서 도사 행세를 하는 교숙란의 시비 열애와 채월에게 접근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 영수암까지 동행하게 된다. 또한 단양일에 부처께 올리는 축문에는 진실만을 담아야 한다는 핏에 속아 자신의 죄를 신백하는 내용을 쓰게 되고, 수승 환청이 주는 차를 마신 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들이닥친 금포교위에게 잡혀 노진주와 함께 포청으로 압송된다.

단양일의 불전의 단향(進香)하고 스승 제승이 머리 깎는 절초와 부처기 고축(告祝)하논 문의를 의논하야 니르며 불법이 부정 귀비흔 거슬 원슈 갖치 여기니 비록 일만 논쳐하미 스람을 들이디 못할 회포 잇셔도 불전의논 고축디 아니치 못하리니 스스로 써 고하고 스스로 쇼화하야 늬을 빙지 아닐디 언정 마음의 도축(禱祝)하논 일이 잇스면 더욱 축문의 아니 쓰디 못하리라 하니 당손탈이 비록 극악하나 일심 아논 거시 불의(不義) 겁약디시(劫掠之事)요. 산문(山門) 불가(佛家)의 도법이 엇더하물 알이요. 하물며 열잉 치월의 늬흔 디락과 능한 말의 감기여 망언이 씨닷디 못하고 이날의야 심혈노써다 거후라고 축스의 성명을 밧논디로 쓰니.....수승(數升) 환청이 유리종의 슈정초 갖튼 초을 부어 이곳 정심 단옥하논 선초라 하니 탈이 합당 비복이스하고 초을 한번 마시미 문득 편직 스이의 낫치 밧고여 노디(老大) 흉영(凶佞)하미 극한디라. 좌우 제승이 불각디경(不覺大驚)하고 노딘쥬 당하의 잇디니 탈의 본형(本形) 드러나물 보미 망극하여 다라나고져 하다가 군졸의 긴긴이 엄박(嚴縛)하미 되고 스중(寺中) 제승(諸僧)으로부터 열잉이 밋쳐 입을 움즈기디 못하여 당박이 단긱석과 제졸노 당손탈을 결박하시 탈이 승천(昇天) 입니(入來)하논 술이 잇셔도 밋쳐 손을 놀이디 못하고 속절업시 미이여 벌의 눈을 모디리 쓰고 비암의 입을 병웃거리디 못하니.....탈이 이 거동을 보며 말을 드르니 양천 디탄 왈, “니 스람을 과히 미더 스스로 망나의 썩디니 슈한(誰恨) 슈원(誰怨)이리요. 연이나 교상세 시역을 아냐시면 니 하더라 니르랴.” (권 75)

이후 황제의 국문 과정에서도 누차 자신의 죄를 부인하던 장손탈은 비앵과의 대질심문 끝에 결국 죄상을 밝히는 실초를 올리고 ‘천참만육(千斬萬戮)’의 극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도적 장손탈은 돈을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면서 복수를 위해서는 변신술을 동원해 치밀한 계략을 꾸미지만, 전반적으로 어리숙하고 무지해 잘 속아 넘어가는 인물로 그

려진다. 또한 ‘하층’의 상층 ‘살인’이라는 이중의 프레임에 인해 작품 속에서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는 인물이기도 하다.

3. <완월희맹연> 속 남성 하위주체의 욕망

3.1. 독점적 충성심을 통한 신분적 결핍의 보상

주인공 정씨 가문의 심복 하인인 운학과 경용은 월천강가에서 정씨 가문의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을 찾는 일에 동원되었을 때부터 다른 하인들에 비해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 주인인 정잠이 태주로 향하는 길이 급하다고 하인들에게 모두 철수할 것을 명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고 아이들을 찾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다. 이들이 정인광과 정월염을 찾기 위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정인광에게 전하는 후일담처럼 나타나지만²⁸⁾ 이들은 그야말로 정씨 가문의 잃어버린 아이 찾기라는 집념 하에 온 곳을 떠돌아 다녔다. 이후 정인광을 구출한 후에는 다시 정인성을 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데, 자신들이 다시 십 년 이상을 정인성 찾기에 나설 것이므로 정인광이 집에 돌아와도 자신들을 보기 어려울 거라고 하기도 한다.²⁹⁾

이후 정잠과 함께 노영으로 가게 될 때도, 정잠은 가족들이 은거해 있는 천태산으로 가라고 했으나 운학과 경용은 지금은 천태산에 가는 것보다 노영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결국 정잠을 따라 노영으로 향한다.³⁰⁾ 노영에서 위독한 정잠을 구하기 위해 아들 정인성이 기수산에 가 기도하다가 몸이 심하게 상했을 때도 그 멀고 험한 산길을 직접 업고 내려와 그 사이 쾌차한 정잠과 만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잠의 편지를 태주에 전한 후 정삼 등이 그 고된 여

28) 어시의 운학 경용이 통읍(痛泣) 왈, “시운이 불행하여 이공즈(二公子)와 낭쇼저을 적변의 실산하는 화을 면치 못하시니 횡차(行次)의 봉가(奉駕)호와 하향하시를 날을 헤여 괴약하옵다가 쇼복(小僕) 등이 망극 비항하든 족히 알일 비 아니옵거니와.....그씨의 여초여초 월청강을 두로 도라 이공즈의 형영(形影)을 알 길히 업스오니 쇼복 등이 상셔 노야기 여초여초 고희옵고 그 스이 조취 구취를 반이나 도라 쇼주인(小主人)의 거처는 이지 못하오며..... 쇼복 등이 당공즈의 거처 좃기는 날회고 문져 태주로 나아가 두 노야기 녹빙 계월의 극악 대죄를 알외여 밍츄와 왕술위를 잡아 간정(奸情)을 추문(推問)호와 쾌히 쥬복(誅伏)하옵고 다시 일심을 도로의 늪기를 그음호와 이공즈의 거처를 좃고져 하옵더니 맛초와 길흥을 신통이 쥬점(推占)하든 이인(異人)을 만나 이공즈의 스쥬(四柱)을 못조은즉 크게 귀복(貴福)으로 밀위고 ‘당공즈는 만니 타국의 표류하여신 빈 되여시니 슈히 존문(存問)을 듯지 못하려니와 초공즈는 금월 갑진일(甲辰日) 반드시 만나미이실 거시니 무심히 잊지 말고 쥬야 달녀 기강 태원녕을 부라고 갈 썬 아니라 기강 쇼홍손이 굿쳐 올른 곳의 도적의 둔취(屯聚)하 비 되여시리니 화약(火藥)을 가져가 문져 적혈(賊穴)의 불을 지르고 밤비 터원녕으로 가면 그 가온디 위티하를 당하여 조 못 썬 거슬 벗지 못하 조는 곳 공지리니 붓드려 구하라 하며 두낫 당검을 듀옵거늘.....쇼복 등이 유심이 살피온즉 과연하온디라. 바야흐로 절강 정능 썬히셔 쥬야로 횡호와 향직에 문져 기강 쇼홍산이 올른 곳디 니르온즉 과연 도적이 치척을 일워시디 은연이 병진(兵陳)을 넘혀 낭초(糧草)를 썬코 군스를 늪흔 곳 기사온디라. 불승홍히하오나 임의 순초군(巡哨軍)의 잡힌 비 되어.....쇼복 등이 잠간 디정여 그마니 불를 노코 밤비 오노라 하오디 오히려 맞지 못하와 귀체 적도의게 썬히를 당하샤 위경(危境)을 지나시니이다 쇼복 등의 불통 무상하 죄로소이다(권 16)

29) “쇼복(小僕) 등이 초의 낭위 공즈의 심존 거처를 알고 호와 본아(本衙)를 썬낫습더니 공즈의 심존호 시미 노쥬 괴특이 만나를 엿스오나 허다 괴란(怪亂)으로 말미암아 일시도 종용이 봉시(奉侍)치 못하다가 이제 브득이 문져 가오디 대공즈의 심존하시를 아디 못하오니 므습 말슴으로써 므르시를 디허리잇가. 공즈의 상셔를 밧드려 노야기 드린 후 다시 십년을 그음하여 당공즈의 거처를 위하여 구쥬(九州) 팔황(八荒)을 두로 들니니 공지 비록 태쥬로 도라오시나 쇼복 등은 슈히 보시를 덩치 못하시리이다.”(권 19)

30) 이뇌(二奴) 악연 왈, “턴태산은 비록 깊은 곳이나 도죄 노영으로 비치 못하올디라. 양부 노복 하나를 비러 보니셔도 거의 초쥬 왕반(往返)하오려니와 쇼복(小僕) 등은 노야 횡거를 썬나디 못하오리니 비록 역명(逆命)하 죄를 당하오나 이의 썬러져 태산을 향튼 못하리로소이다.”(권 19)

정에 길에서 죽을까 걱정하여 다른 하인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자신이 꼭 가서 정잠 부자를 모시겠다고 애원하여³¹⁾ 다시 노영으로 떠나게 된다.

이처럼 운학과 경용의 주인 가문에 대한 충성심 이면에는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강한 자부심과 독점욕이 깔려 있으며, 가문을 위해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 주인의 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하인 신분의 이들이 신분적 결핍을 가문에 대한 열렬한 충성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그런데 운학과 경용의 경우는 이에서 더 나아가 주인 가문의 성쇠(盛衰)를 곧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그렇기에 아직 미완인 정인성이나 정인광 같은 3대들에게 교훈이나 경계의 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³⁴⁾ 정씨 가문의 대표적 악인인 소교완의 시비 녹앵의 남편으로 소교완의 악행에 가담했던 왕술위가 처살된 후에, 그 죄상의 극악함을 들어 일벌백계를 삼겠다고 하면서 주검을 내주지 않다가 녹빙이 간절히 사정한 후에야 겨우 주검을 내 주면서 정씨 가문 근처에는 묻지도 못하게 하는 장면³⁵⁾에서 정씨 가문의 대리자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3.2. ‘덕’이라는 가치의 추구와 상충과의 관계 맺기

정씨 가문에 소속되어 있다가 장헌 밑에서 하리(下吏)가 된 최언선은 정인광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씨 가문으로 소속되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보이는 인물이다. 할머니가 정한의 부인인 서태부인 집의 노비로 있었다는 점이나 그 숙모와 사촌이 장헌 집의 노비로 있다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잠 밑에 있을 때도 집안의 노비는 아닌

31) 경농이 회간(回簡)을 밧드려 노영으로 도라가물 알외니 처시 튕의엿 노조로 하여곰 도로의 표딘하여 죽을가 녀며하여 다른 노복(奴僕)을 보니고조 하디 경농이 디원이 쏘 다시 십년을 그음하여도 상셔와 공조를 뵈셔 고원(故園)의 도라 즐거음을 부라고 이씨의 홀노 편히 잇고조 아니 함으로 브득이 회셔(回書)를 닷가 도라 보닐 시(권 27)

32) 하층 여성의 경우 이런 신분적 결핍을 가문 남성들의 첩이 되는 것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하층 남성은 그런 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33) 이는 하층 여성 인물들이 그들이 모시는 여성 주인들에 대한 개별적 충성을 다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34) “공지 혼갓 무익지비(無益之悲)를 과히 호스 천금지구(千金之軀)를 도라보다 아니시니 이곳을 디지(遲遲)하여 슈히 썬나디 아니시다가 도적이 치척의 불를 구호고 원분(怨憤)을 아등의게 설코조 흘진디 아등의 위타호른 족히 니르지 말고 화를 공조고 움긴즉 그 망극호를 초아 싱각지 못호리니 비록 공자의 명을 기다리지 못호나 혼도호스 인스를 모로시는 즘음의 업고 점스를 초자? 구호호미 올치 아니라?”(권 16)

35) 초설. 녹빙 별물 극악잇 거시 소부인을 위한 정성은 제 머리를 버혀 드리라 하여도 사양할 마음이 업슨 고로 계월의 위로 경계호는 말을 조초 통호호를 서리담고 금화를 니여 스텘을 갑쥬고 술위에 죽엄을 거두고져 하니 운학 경용 등이 술위에 머리를 놓히 돌고 순히 쥬지 아냐 곱오디. “술적이 국적(國賊) 여졸(餘卒)로 평싱 죄악이 빅번 버히미 가호거늘 가디록 하늘을 두리디 아냐 디존을 고조치 아닌 고로 흠스 초설이 니전(內殿) 녀군(女君)의 뵈호니 이 엇디 혼갓 버힐 썬름이리오. 만신을 삭절(削切)호고 구장(九腸)을 첩혈하여 신슈를 거렬이 순호고 쇠골 표풍하여도 그 죄를 만일도 속지 못호리니 그 다만 머리를 버히미 술적의게 도호호거늘 엇지 감히 신슈를 맛초와 당호를 일너 호노노. 임의 높히 다라 일후 공휴 극악호 적뉴를 징계호리니 결연이 니여 쥬지 못호리라. “호노디라.....요괴로운 심장의 해오리미 익은 고로 다만 운학 경용의게 이결하여 머리를 브드잇고 가슴을 두드려 피를 드리오고 천셔(千緒) 만단(萬端)으로 합슈(合手) 복투(伏視)하여 금석이 녹을 듯 하디 운학 경용이 일즉 부심 절치호던 고로 오리도록 술위에 머리를 쥬지 으니 호더니 제반 동뉘 저마다 권호를 인하여 비로소 놓다랏던 머리를 누리와 가져가라 호미 먼니 녀당(殮葬)호를 날어 감히 동구지니에서 죽엄을 거두지 못호게 호더라.(권 88)

하급 관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서사의 문면에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분명 기강 지역의 예리(禮吏)로 나온다. 또한 이후 정잠을 위해 다시 일하게 된 이후에도 서술자나 등장인물들의 말에서 하리(下吏) 신분이었던 것이 강조된다.³⁶⁾ 이런 모호한 신분은 그의 욕망에서도 중층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전반부에 정인광을 구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연선은 덕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정잠과 물질로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장헌 중에 정잠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³⁷⁾ 또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장헌을 배반하고 정인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가치 추구의 대가를 치르려 한다. 최연선의 자살 의지는 막무가내의 양상을 보여 장헌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이며, 실제로 자살에 실패하고도 다시 자살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은 열녀전 속 열녀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후 정잠을 따라 노영에 가 오랜 억류 생활을 함께 하고 돌아오는 등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인물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은 지속된다.

이처럼 덕을 추구하면서 정잠을 따르는 모습은 그 가치에 대한 주체적 선택을 떠나 최연선이 정잠과 분리되지 않은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정씨 가문 내부의 일에 관여하게 되면서는 이런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

최연선은 정인중에게 겁탈당할 위기에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겨우 살아난 딸 최월혜를 첩으로 받아들여달라는 부탁을 아들 최창윤을 통해 정부에 전하고 결국 최월혜는 정인중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때조차도 “정각노 안전의는 번스를 번득지 못할 바의 제 쏘의 귀구처를 고흐는 날은 한님의 못치인 허물이 시로울지라 진퇴의 엇지힐 바를 아지 못혀”라고 하면서 정씨 가문을 걱정하고 있지만 결국은 감행했고, 이로써 상전으로 모시던 정잠 가문과 인척(姻戚) 관계를 맺게 된다. 정잠을 비롯해 정씨 가문 사람들에게 가문의 은인으로 대접받고 있었음에도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최연선은, 정씨 가문의 소식을 전하러 온 흥문이 정인광의 첩으로 지내는 딸 최월혜의 편지를 전하자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며³⁸⁾ 그들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다.

최연선이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와는 다른, 가족과 자식을 위한 선택과 행위 속에서는 내면에 숨어 있던 상층 지향 혹은 정잠 가문 내부로 편입되고 싶은 욕망이 드

36) 언선이 상서를 뵈셔 복형호를 청호며 운학 등이 쏘호 원호니 능히 물니치디 못할 비로디 상셰 유공(有功)호 노즈와 은혜 두터온 하리(下吏)로 호여금 스디(死地)의 다려가물 차마 못혀.....상셰 마디 못혀 비로쇼 허호니 운학 등이 즐기미 위디(危地)를 씨닷디 못혀고 청턴의 비드흙 궂치 녀이니 갠 쉼노(忠奴)며 의리(義吏)러라.(권19)

37) 언선이 격절(激節) 강기(慷慨) 왈, 현미디언(賢妹之言)이 올토다. 내 정노야를 슈년을 봉시(奉侍)호나 실노 후은(厚恩)을 받조오문 당노야기 밋디 못헐디라. 정노야는 청백(淸白)호샤 관복(官服)이 스시(四時)의 호 빗치요. 쉼종 이 십인의 녀디 아니 호며 턱하의 디후호여 찌나지 못호 연고로 밥을 실시(失時)호는 쉼면 녀름은 막반(麥飯)을 샤흐시고 봄이면 속반(粟飯)을 샤흐시며 가을이면 hing 옥식(玉食)을 주시디 노야의 상을 물녀 주시미 찬선(饌膳)이 육치(肉彩) 슈기(數器) 썸이요. 정도를 당호여 약간 쉼식을 샤흐시는 비 빈한호 집 찬품(饌品)과 궂고 노애 별급(別給)호시는 비 겨울이면 모즈 일납히오 여름의 선즈(扇子) 호노히라. 그 관원을 바라고 하리 어디 가 지리(財利)를 어더 쓰며 만호 쉼식을 취호리오.도치 못호 선즈(扇子)와 구멍 잇는 모지라도 하날노셔 나린 듯 감황호니 나의 살 쉼려진 부치와 썸 빈 누덕 갑포도 정노야 샤흐신 귀물이라. 내 모즈와 선지 업스미 아니로디 정노야 덕음을 저부러디 못혀 그옥히 원호는 비 정노애 결복(闕服)호신 후 넷 벼술의 녀호샤 다시 초즈시물 갈망 허더니 시세 망국호여 다시 찰딕(擦職)호시물 부라디 못헐디라. 당노야를 쉼긴 디 오라디 아니 호디 상샤디물(賞賜之物)이 빈빈호고 쉼로 쉼초 샤흐시는 쉼찬이 상위의 녀뻘디 내 모음이 감복호미 정노야만 궂지 못호니 엇디 정노야 딜즈(姪子)를 갑하 죽디 아니리오. 내 죽으므로써 당노야기 밍명(氓名)을 더음도 절박호것마는 노애 슬오디 아니시리니 어디가 이런 설화호써 슬기를 빗최리오.(권 17)

38) 흥문 언선 등이 다쇼 설화호다가 최유인의 글월을 전호니 언선이 깃거 스무여한(死無餘恨)이러라.(권 176)

러나고 이때 최언선은 정잡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된다. 이는 최언선의 가문과 그들의 삶이 별개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3.3. '귀함'과 '세력'에 대한 욕망과 저항

대대로 도둑질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탈은 무엇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물이다.³⁹⁾ 교한필의 첫째 부인 여씨의 악행에 가담하게 된 것도 도적질한 주성염을 팔아넘긴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돈에 의해 움직이는 전반부에서 장손탈은 그야말로 여씨의 하수인 그 자체이다.⁴⁰⁾

그런 장손탈이 여씨의 악행이 탄로나 여씨는 축출당하고 아내인 비영은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자신은 교한필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장손탈의 구체적인 본적이 소개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초설. 당손탈 흉적은 본디 서절(鼠竊) 구투(狗偷)로디 누세(累世) 적종(賊種)이라. 조쇼(自少)로 반환 경향(返還京鄕)호야 출몰 히등호여 민간의 지보를 노략호며 미여(美女)을 탈취호여 평싱 횡악이 적여 구산(積如丘山)호고 죄과(罪科) 관영천지(貫盈天地)호여시니 그욕이 축연공능홀 쏘 아니라 정원슈 교지를 평정호는 범의 저의 티산북두(泰山北斗) 갖치 양망호던 중 친척의 괴슈 흉적(凶賊)이 멸망호니 스스로 조최 외롭고 당뉘(黨類) 피산(敗散)호를 슬허호디 흉적이 본디 천헌 거슬 거리씨디 아니 호고 회포을 토설치 아니 호여 의시 축냥치 못호는 범의 이시니 이노 천호므로써 귀호물 도모호고 외로오므로써 번성호를 구호는지라.(권 73)

돈을 우선시하고 도적떼와 몰려다니던 장손탈은 정인성에 의해 도적떼가 패산(敗散)한 이후 외로운 신세가 되는데, 서술자는 이런 장손탈에 대해 “천호므로써 귀호물 도모호고 외로오므로써 번성호를 구호는지라.”라고 말한다. 이는 말 그대로, 천한 신분으로 귀한 신분을 도모한다는 것이며,⁴¹⁾ 함께 다니는 무리가 사라진 외로움으로 인해 번성함 즉 세력이 커지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궁중에 들어가 “저의 조최를 추심(推尋)호는 한을 설호고 비잉을 스지(死地)의 구호여 싱노(生路)의 일위고저” 교한필 일가를 복멸(覆滅)고자 한 장손탈은 자신을 하수인으로 부리던 여씨의 남편 교한필을 직접 상대하는 달라진 위상을 보이며, 궁중의 상궁이 되어 있는 누이 장손씨와 처제 비계, 그리고 첩이었다가 후궁이 된 위씨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나름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돈을 것처럼 중시하는 장손탈이 아내나 처제 등 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화를 아끼지 않는 모습⁴²⁾을 보이고 이들 역시 장손탈이 의리를 지킬 것으로 생각해 국

39) 이는 여씨의 흉계가 발각되어 교한필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그 창황한 가운데도 경보(瓊寶)을 거두어 도망친 것이나, 후반부에 열애 등에게 속아 영수암에 갔을 때도 돈을 목숨 같이 아껴 시주를 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 당 이적은 경보(瓊寶)을 단이미 적은 비 아니로디 본디 지보(財寶)을 앗기는 듯디 목숨 갖고 또 그욕이 환술호고 요술호는 요인을 구호는 범의 금보(金寶)을 허비 되리라 호여 잉의 먹이물 스투홀디언정 소양치 아니 호고(권 75)”

40) 이 부분에서는 한길연이 분류한 부수적 악인 중 하층의 한량배로 그려지는 ‘금전추구형’에 그대로 부합된다. 한길연,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애욕추구형 악인의 삼각형의 욕망 구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64, 국어국문학회, 2013, 394쪽.

41) 양상은 많이 다르지만, 진나라 말기의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王侯將相寧有種乎(임금이냐 제후나 장수나 정승 등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사기(史記)』권48 <진섭세가(陳涉世家)> 中)라는 문구 아래 봉기했던 욕망과 정체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2) 저의 니력을 아직 이라디 아니호고 괴딘이보(奇珍異寶)을 가져 환술호는 도인 복침화를 만나 왕옥의

문시에 진실을 말하기 않는 등⁴³⁾ 일종의 동류의식(同類意識)⁴⁴⁾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쫓기다가 붙잡혀 황제의 국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누차 자신의 죄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그간의 죄상을 실초로 올린다.

드디어 실초를 올리니 기소(其辭)의 알.

의신(義臣) 장손탈은 본이 누세(累世) 적종(賊種)이라.....창황이 단습의 집의 의디하여 습의 아오 담을 가마니 독여 시슈(屍首)을 감초고 변용하는 약을 먹고 담이 되어 황티후 옥전의 스후(伺候)하는 티감이 되어 은화를 위첩여에게 구식(求索)하고 기미(其妹)와 비게로 동심하여 교가 일문을 복멸하여 탈의 조취를 추심하는 한을 설하고 비잉을 스디의 구활(救活)하며 여시 교가로 원쉬 및친 벼을 쾌히 갑혀려 함미요 황티후 옥체 미령하신 씨의 독약을 보미의 화하고 요예디물을 무드려 하다가 역절(逆節)을 들인 체하여 짐작 발각함미 다 여시로 함모(合謀)하여 교가를 독이려 함미요 한필의 필체를 노 단쥬 모습(模習)하여 단습에게 보낸 서간이 다 노단쥬의 슈뎨으로서는 비라.....탈이 망명하여 변용 하였고 오강 비게 등이 역옥(逆獄) 등슈(重囚)로 니옥의 엄슈(嚴囚)한 죄인으로 옥뎨 안호로서 홀연 조취 업서디미 옥정(獄情)을 흐리워 헛틀고 변용 당신(藏身)함미 교기 비록 이미하나 어디로 디향하여 죄인을 추즈며 옥역을 곱허리요. 옥정(獄情)이 이러툃 허틀어 호란한 스이의 녀여는 교가 일문을 함술(咸殺)하고 저의 전정을 다시 도모혀려 함미니 씩을 그오고 교밀(巧密)치 안인 비 업스디 하날이 돕디 아니샤 맞츨니 의신의 삼척 소녀에게 속은비 되어 엄형디하(嚴刑之下)의 감히 전전 죄악을 감초 디 못홀디라.....의신은 이 밧게 더 알 비 아니오 고략(苦烙)을 니긔디 못하니 슈이 독기를 원홀 썩 람이로쇼이다.

헛터라. (권 75)

국문장편소설에서 보통 하층 인물들의 실초는 선인형 인물을 보조하는 시비나 유모 등의 치밀한 계획과 주도면밀한 실행 그리고 그들의 의지 등을 공론화하는 역할⁴⁵⁾을 하는 데 비해 장손탈의 실초는 죄상을 실토하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역시 장손탈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상층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과 ‘옥정(獄情)이 이러툃 허틀어 호란한 스이’에서 나타나듯 황실, 천자의 권위까지 흔들었다는 것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서술자가 말한 귀함과 세력에 대한 장손탈의 욕망은 교한필 일가라는 귀한 가문, 나아가 황실에 대한 반항과 저항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완월희맹연> 속 남성 하위주체 욕망의 이면

비게 오강을 건디고 정위에 비잉을 슬와니를 이걸히디(권 75)

43) 상이 비게 오강 등이 비로소 실초를 올리려 함을 깃스기에 악형을 덜고 그 초소를 먼저 부든 후 단담을 나리혀라 하시니 금외 양녀의 초소를 지혹하니 양흥이 일체하여 심담이 상조(相照)한지라. 비게의 한 소리의 오강이 씨다라니 디강 장손탈의 본적을 아직 감초고 단단이 단담으로 밀위른 탈이 변용하는 약이 무슈하고 임시 처변이 심상치 안인디라. 반다시 나명(拿命)을 응하여 힘힘이 좁혀오디 아닐 돌을 알므로 혹 첫 언약을 저버리지 아나 환술하는 이인을 어더 저희를 구출가 부라미 됨하고 불형하여 장손탈이 좁혀와도 추후하여 본적을 알외나 일노써 헌번 듀록을 당홀 밧근 열번 썩홀이든 아닐 비요. 이 일을 만분 덕고하나 죄명이 악역을 면치 못하니 썩 거열이 순함을 버셔나지 못홀 비라. (권 74)

44) 이는 비록 노비들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노비들이 비록 자신이 체벌 받게 될지라도 상전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배려하고 보호하는 동류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갔다”(이혜정, 앞의 논문, 139쪽.)는 내용에 비춰본다면, 별 무리가 없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45) 정선희, 앞의 논문, 263쪽.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월회맹연>에서는 주인 가문의 심복 하인이나 주인 가문과 긴밀한 관계의 하리(下吏)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도적 등의 하층 인물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밀도 있게 재현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 각자 처한 신분과 상황에 근거한 욕망의 편린을 추출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한 국문장편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상층이 아닌 이들 하층의 욕망은 편린조차도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작품 속에서 이들이 욕망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회의와 연결된다.

실제 상층에 중심적 인물이었던 운학·경용과 최언선의 경우, 상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리두기⁴⁶⁾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층 스스로도 부정적인 정체감⁴⁷⁾을 드러낸다. 특히 운학과 경용의 경우는 언제나 운학 등 혹은 경용 등으로 개별적 혹은 독립적 존재가 아닌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최언선의 경우는 노비가 아님에도 대를 이어 정씨 가문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층에 원심적 인물인 장손탈의 경우, 그의 욕망 자체가 욕망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욕망, 불온한 욕망이었기에 변신이라는 환(幻)을 통해서나 가능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기에 이때 진탐의 모습으로 행한 것 역시 환(幻)의 욕망이며⁴⁸⁾ 장손탈 그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완월회맹연>에서 남성 하위주체의 욕망은 있는 듯해 보였던 허상(虛像)일 뿐일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욕망하는 자로서의 남성 하위주체 여부를 떠나, 상층 남성인물 그들만이 살 것 같은 세상에 엄연히 함께 살고 있는 하층 남성인물들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다.

46) 운학과 경용의 경우 정씨 가문을 위한 충성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잠의 노영 억류시에 정잠은 영종황제가 보낸 음식만을 먹는 데 비해 마선이 보낸 음식도 먹는 것으로 그려져 가문에 한정된 충심임을 드러내고 있다.(빅안영으로 조차 어사(御賜)하시는 바 건어(乾魚)와 미시 등물이 아니면 다시 먹는 거시 업는디라. 반깁(飯羹)의 마술 아디 못흐며 슈양산 기아(饑餓)의 치미(採薇)를 불워홀 비로디 능히 아스흐를 면흐고 운학 언선 등은 건간의 주는 바 식미로써 기아흐미 업더니(권 29))

그런가 하면 최언선의 경우 딸 최월혜를 첩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정씨 가문 사람들에 의해 최언선 일가가 천인이라는 것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상국이 고침(高枕) 관지(觀之)의 쇼이무언(笑而無言)이러니 날호여 니르디, “여뵈 잇는 바의 모모흔 대스논 오이 쥬전치 못흐려니와 그만 천인 유무야 내게 대스로이 품호리오? 너희들 번스(煩事)는 스스로 즐겨 아니흐는 3온디 이삼처(二三妻)식 개개히 두어 시니 여뵈 만녕의 두리오미 여림박빙(如臨薄冰)의 궁궁 업업흐느니 중외 당흐호여는 만히 쥬츰니괴(自此內愧)흐는가 시브니 여모와 의논호여 거두라 내 쥬식의 그르문 다스리지 아니흐고 천물(賤物)의 겐들 비상지원(飛霜之怨)을 끼치리오?” 금외 브복 슈명호더라 (권 175))

47) 언선이 요슈(搖手) 왈, “나의 공즈을 위헌 쥬이 엇디 군등만 못호리오? 일이 호발이나 신밀(神密)치 못흐죽 군등과 나의 목숨은 창승 곱트니 쥬히 니를 비 아니어니와 공즈기 참화를 더으리니 슬프물 날 회고 공즈를 밧비 뵈셔 내 쥬미(從妹) 위정의 집으로 가 구호호리니.....”(권 17)

48) 탁원정, 앞의 논문, 201쪽.